

傷寒論 太陽病篇 各方證에 對한 鍼灸治療의 意義

곽재영* · 윤중화** · 배건태*** · 김기범***

大韓醫療氣功學會

I. 緒論

傷寒論은 漢代에 編纂되어 韓醫學에서 外感病 治療의 基礎가 된다. 初期에 傷寒論은 본래 理論의 闡述이 많지 않았고 여러 證候의 虛實寒熱 等 病變의 性質과 部位에 대해 具體的인 分析과 指示가 없었고 이후 歷代 醫家들의 研究 發展에 의하여 많은 부분이 改善되고 각 條文에 대한 分析이 이루어졌다.

이후 傷寒論의 各 條文에 대한 注解뿐만 아니라 각 證候마다 病機 病變에 대해 理論的으로 明白히 研究되어져 왔지만 각 條文이 提示한 針灸治療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만한 것이 없었다. 실제로 傷寒論 398條文中에서 針灸治療와 그 副作用에 대해서 언급된 條文은 단지 14개 條文¹⁾에 不過하다.

*.***.****.***** 동국대학교 침구학교실

1) 24條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 風府 却與桂枝湯則愈.
29條 傷寒 脈浮 自汗出 小便數 心煩 微惡寒 腳攣急. 反與桂枝欲攻其表, 此誤也. 得之便厥 咽中乾 煩躁吐逆者 作甘草乾薑湯與之, 以復

其陽 若厥愈足溫者 更作芍藥甘草湯與之 其脚即伸 若胃氣不和 譫語者 少與調胃承氣湯 若重發汗 復加燒針者 四逆湯主之
113條 傷寒腹滿譫語 寸口脈浮而緊 此肝乘脾也 名曰縱 刺期門
114條 傷寒發熱 齋齋惡寒 大渴欲飲水 其腹必滿 自汗出 小便利 其病欲解 此肝乘肺也 名曰橫 刺 期門
122條 脈浮 宜以汗解 用火灸之 邪無從出 因火而盛 病從腰以下 必重而痺 名火逆也
124條 燒針 令其汗 針處被寒 核起而赤者 必發奔豚 氣從小腹 上衝心者 灸其核上 各一壯 與桂枝加桂湯 更加桂三兩
125條 火逆 下之 因燒針 煩躁者 桂枝甘草龍骨牡蠣湯主之
126條 太陽傷寒者 加溫鍼 必驚也
150條 太陽與少陽 併病 頭項強痛 或眩冒 時如結胸 心下痞硬者 當刺大椎第一間 肺俞 肝俞 慎不可發汗 發汗則譫語 脈弦 五六日 譫語不止 當刺期門
151條 婦人中風 發熱惡寒 經水適來 得之 七八日 熱除而脈遲身涼 胸脇下滿 如結胸狀 譫語者 此爲熱入血室也 當刺期門 隨其實而瀉之
179條 太陽少陽併病 心下硬 頸項強而眩者 當刺大椎 肺俞 慎勿下之
226條 陽明病 下血 譫語者 此爲熱入血室 但頭汗出者 刺期門 隨其實而瀉之 澹然汗出則瘳
231條 陽明病 脈浮而緊 咽燥 口苦 腹滿而喘 發熱 汗出 不惡寒 反惡熱 身重若發汗則躁 心憤憤及譫語 若加燒針 必惕 煩躁不得眠 若下之 則胃中空虛 客氣動膈 心中懊懣 舌上胎者 梔子豉湯主之
356條 傷寒 脈促 手足厥逆者 可灸之
369條 下利 手足厥冷 無脈者 灸之 不溫 若脈不

이에 述者는 《針灸心傳》²⁾과 《傷寒論 針灸穴位選注》³⁾에서 提示된 針灸治療의 原則을 考察하여 傷寒論 處方과 針灸治療의 概念과 그 相關性에 對해 살펴보았다.

本 論文에서는 傷寒六經 中 太陽病에 對해서 傷寒論 各 條文의 處方 構成과 그 治療原則을 살펴보고 同時에 各 處方에 對해서 針灸治療의 原則을 六經經證 府證 結胸證 心下痞證으로 크게 나누어 各各의 治療原則과 治療穴을 比較해 보면서 傷寒論 處方의 治療原則과의 相關關係를 찾고자 한다.

II. 本論

1. 傷寒學派의 形成과 그 發展過程

中國에서는 晉唐時代부터 明清時代까지 張仲景의 傷寒論에 對해 醫家들의 큰 學文의 主流가 形成이 되었는데 이를 傷寒學派라 하는데 中國에는 漢代以前에 크게 두 개의 兩大學派가 있었는데 하나는 醫經學派로 基礎理論에 充實한 학파였고 또 다른 하나는 經方學派로 理論을 收集 整理하고 經驗方을 運用하여 治病을 爲主로 하였다. 仲景의 傷寒雜病論⁴⁾은 이 두 가지의 優秀한 점을 다 갖추었고 이 두 學波의 합쳐짐은 中醫 辨證論治의 基礎를 確實히 다졌으며 아울러 辨證論治의 理論體系를 成立하였다.

環 反微喘者 死

- 2) 高峰：鍼灸心傳，中國，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1993.
- 3) 單玉當：傷寒論鍼灸配穴選注，서울，일중사，1992.
- 4) A.D.219년에 漢代 張仲景의 著作으로 十六卷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漢代 末期에 社會混亂으로 因해 傷寒論 原書의 大部分이 散失되었다. 以後 魏晉時代에 王叔和가 原書의 傷寒部分을 새로이 收集하고 整理. 選擇. 編纂을 하여 傷寒論을 다시금 만들어 後世에 전했지만 이는 仲景의 原書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謄寫를 받았고 長期間 醫家들 사이에서 論爭의 대상이 되었다. 그 후 歷代醫家들의 끊임없는 整理. 研究. 注釋發揮를 통하여 다시금 훌륭한 理論과 實踐價値를 가진 學文으로 發達되었다.⁵⁾

그럼 여기서 傷寒學派가 轉變해 온 段階를 살펴보기로 하자.

傷寒學派의 變遷은 크게 3段階로 나눌 수가 있는데 1段階는 起始段階로 晉唐時期이다. 이 時期는 傷寒論의 原著를 收集 整理하는 단계였으며 代表的인 醫家로는 王叔和⁶⁾가 있다. 王叔和는 散失된 傷寒의 弔文方證을 廣範圍한 地域에서 收集 整理하였다. 이 시대의 醫家들은 仲景의 오래된 傷寒論을 收集하여 證候 診脈 聲色 등을 記錄하고 病에 對하여 處方을 제시함으로써 後世에 이를 傳했다. 즉 그들은 脈證方을 表明하여 仲景의 辨證論治를 整理編纂할 豫定이었다. 醫家인 皇甫謐⁷⁾은 이를 肯定的으로 評價했으며 孫思邈⁸⁾은 당시의 醫家들이 傷寒을 治療할 경우에 石膏 知母 등 모두 冷한 藥物로만 治療를 하였고 이는 仲景의 本뜻과 相反되며 百의 하나도 效果가 없다

5) 陳大舜著：中醫各家學說，중국，湖南科學技術出版社，1985, p10

6) 西晉時代의 醫家로 傷寒雜病論을 定理하였고 脈經을 著述하였다.

7) 西晉時代의 醫家로 甲乙經을 著述하여 鍼灸學의 始祖로 稱頌받았던 인물이다.

8) 京北華原人으로 備急千金要方을 著述하였는데 이 冊은 당 이전 特히 東漢以來의 많은 醫論과 醫方을 收集한 冊이고 內科 婦人科 小兒科 등을 特別히 重視하였다.

며 이를 歎息했다. 그는 傷寒論 條文中에서 方證同條 比類相附를 收集하여 條文的 比較 分析에 便宜를 주었고 나아가 臨床의 應用 에도 도움을 주어 後世에 傷寒論의 方證 研究에 많은 길을 열어주었다. 孫思邈은 특별히 桂枝 麻黃 石膏의 三法의 運用을 重視하였는데 무릇 處方의 大義를 살펴보면 三種에 不過한데 하나는 桂枝이고 다른 하나는 麻黃이며 세 번째는 石膏라고 하였다. 이런 觀點은 後世 傷寒家들에게 影響을 주었으며 明代 方有執⁹⁾ 喻嘉言¹⁰⁾에게 影響을 주어 三綱鼎立學說이 만들어지게 되었다.¹¹⁾

2段階는 興盛段階로 宋金時期인데 이때는 傷寒論原著를 注釋하고 闡發한 時期로 成無已¹²⁾가 代表的인 醫家이다. 그는 傷寒論의 “論”을 “經”으로 해야한다고 主張했으며 經論結合의 方法으로 傷寒學理를 闡明하였고 傷寒論의 50個 條文의 主症을 比較分析하였다. 아울러 傷寒論 舊本의 全面的인 注解와 闡發로 因해 傷寒論은 많은 곳으로 퍼져나갔고 여기다가 成無已의 影響으로 醫家들 사이에서 傷寒論은 高度로 重視되었다. 이 時期에 成無已 外에 有名한 醫家로는 韓祗和¹³⁾는 《傷寒微旨論》에서 脈을 따라 症을 分別했고, 龐安時¹⁴⁾는 《傷寒總病論》에서 病因을 중요시해서 發病方面에서 寒毒 乘氣

之設을 強調했다. 朱肱¹⁵⁾은 《南陽活人書》에서 三陰三陽의 實質의 問題에 대해서 論했고 許叔微¹⁶⁾는 《傷寒九十論·傷寒發微論》에서 理論과 臨床의 兩個方面을 深度있게 檢討했으며 郭雍¹⁷⁾은 《傷寒 補亡論》을 著述하는 등 이 時期는 傷寒學派의 發展이 날로 더해지는 興盛期였다.¹⁸⁾

3단계는 成熟段階로 明清時期였는데 이 時期는 傷寒論의 錯簡重訂 三綱鼎立의 研究方法이 問題提起되어 熱烈히 學術的論爭이 있었으며 傷寒學派의 內部에는 다른 系派들이 形成되었고 이로 因해 傷寒學派는 크게 發展하였고 成熟段階로 접어들었다.

이 時期에 系波간 論爭의 發端은 明代의 方有執이었고 그들은 王叔和가 編纂한 傷寒論이 混雜스러워 고칠 필요가 많다고 생각했고 새로이 修正을 慎重히 고려하여 錯簡重訂을 擡頭시켰다. 傷寒論 太陽篇을 改正 調整하여 關聯이 있는 篇의 文章들로 分類하고 여기다가 衛中風 營傷寒 營衛俱中傷風寒의 理論을 追加해서 傷寒論條辨이라는 冊을 만들었다. 후에 喻嘉言은 《尚論篇》이라는 책에서 方有執의 意見을 매우 贊成했고 王叔和와 成無已등에 대해서는 激烈한 批評을 하였고 太陽篇의 基礎 위에서 改正 作業을 하였고 風傷衛 寒傷營 風寒 兩傷營衛의 所謂 三綱鼎立說을 主張하였다. 喻嘉言의 三綱鼎立說은 後에 激烈한 論爭의 代

9) 明代의 醫家로 字는 中行이며 著書로 傷寒論 條辨 八卷이 있다.

10) 本名은 喻昌으로 江西 新建人이다. 著書로는 崇禎16년에 寓意草一卷을 著述했고 醫門法律을 順治15년에 著述했다.

11) 陳大舜著 : 中醫各家學說, 중국, 1985, p.11

12) 金時代의 醫家로 著書로 傷寒論注 十卷 및 傷寒明理論 三卷이 있다.

13) 哲宗時代의 醫家로 著書로 傷寒微旨論 二卷이 있다.

14) 字는 安常으로 神哲間(1068~1100)의 名醫로 診脈에 대하여 脈經以後 獨特한 見解를 가졌으며 또 濫病과 傷寒이 같지 않음을 強調하였고 著書로는 傷寒總病論이 있다.

15) 字는 翼中으로 大觀 元年(1107年)에 南陽活人書를 著述하여 이 功勞로 醫學博士가 되었다.

16) 字는 知可로 眞州人이다. 著書로는 傷寒百證歌, 傷寒發微論, 傷寒九十論, 類證普濟本事方이 있으며 傷寒論의 辨證論治를 後世에까지 普及시키는 데 상당한 貢獻을 하였다.

17) 字는 子和로 洛陽人이다 著書로는 傷寒補亡論 二十卷이 있는데 이 책에 실려있는 五種 發疹의 鑑別은 注意할 價値가 있다.

18) 陳大舜著 : 前揭書, p.11

償이 되었는데 그 와중에도 錯簡重訂의 바람이 일어나 三綱鼎立說이 다시 再起되어 錯簡重訂波가 形成이 되었다. 그렇지만 王叔和나 成無已 등이 主張한 傷寒論 舊本の 權威를 提倡한 維護舊論派도 形成이 되었다. 이 두 學派의 사이에 存在한 한 學派는 傷寒論의 錯簡이나 眞僞에 관계없이 傷寒論 辨證論治의 規律을 연구하였는데 이 學派를 辨證論治派라 한다. 이런 三個學派의 學術的 論爭은 傷寒學派를 더욱 發展시켜 成熟段階로 접어들게 했으며 더욱이 辨證論治派의 出現은 새로운 新局面을 創造하게 했고 그 影響은 매우 컸다.

2. 傷寒學派에 屬한 各 醫家들의 學術的 觀點

傷寒學派에 屬한 代表的인 醫家들로는 成無已, 龐安時, 朱肱, 方有執, 柯琴이 있는데 그럼 여기서 각 醫家들이 主張한 傷寒論의 學問的 觀點에 關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1) 成無已

成無已는 宋金時代에 傷寒論을 研究한 著名한 醫家로 傷寒論을 全面 注解한 首創者일 뿐만 아니라 內經 難經의 理論으로 傷寒論의 條文 方藥을 解釋하고 分析한 사람이었다.

成無已의 傷寒論을 內經이나 難經 등으로 解釋한 이와 같은 方法은 獨特했고 후세사람들에게 큰 影響을 미쳤다. 아울러 傷寒明理論에서 傷寒論의 症勢 五十證을 詳細히 比較 分析하여 비슷한 症狀의 鑑別方法은 張仲景의 辨證論治의 理論을 발휘한 것이었고 後世 醫家들에 많은 影響을 남겼다.¹⁹⁾²⁰⁾

19) 陳大舜著：前揭書，1985，p.15

20) 任應秋著：中醫各家學說，中國，上海科學技術出版社，1993，p.21~22

2) 龐安時

龐安時は 傷寒論을 깊이 研究한 宋代의 著名한 傷寒學者의 한 사람으로 傷寒總病論을 저술했고 張仲景의 傷寒論理論을 闡發하고 여기에 自己의 豊富한 臨床經驗을 結合하여 傷寒論을 補充하고 發展시켰다. 그는 病의 外因인 寒毒을 重要視했을 뿐만 아니라 體內的 內因인 陽氣를 強調하였고 이는 傷寒發病學上 決定的인 作用이었다. 그는 傷寒을 研究함에 있어 傷寒에만 拘碍받지 않고 傷寒을 일으킬 수 있는 因子를 導出했는데 그것이 溫病²¹⁾이었다. 이 天行溫病은 乘候毒氣의 所致로 傷寒과는 根本的인 區別이 있어 이것 때문에 傷寒을 治療하는 方劑로 溫病을 治療할 수 없다고 하였고 溫病을 治療할 수 있는 새로운 處方을 많이 만들었다. 그는 大劑인 石膏를 잘 사용하였는데 이는 後에 清代 溫病學家에게 影響을 미쳤다. 龐氏는 五種의 天行溫病의 病名을 만들었고 비록 그가 시대에 淘汰된다고 할지라도 四時五行과 傷寒六經을 서로 配合하고 臟腑와 經絡을 서로 結合한 辨證의 方法을 創定했다. 龐安時は 當時 社會的인 歷史條件 下에서 能히 五種의 時行溫病과 傷寒과의 鑑別을 이루어 낼 수 있었고 이는 傷寒病의 診斷에 크게 參考가 됐을 뿐만 아니라 後世 溫病學派의 形成과 發展에 先導作用을 했다. 이 때문에 龐安時は 傷寒學派의 中堅人物이면서 溫病學派의 先行者 役割을 하였다.²²⁾²³⁾

3) 朱肱

朱肱은 傷寒에 더욱 精巧했으며 二十년에

21) 四季의 各異한 溫邪를 感受하여 惹起되는 多種의 急性熱病의 總稱이다.

22) 陳大舜著：前揭書，p.18

23) 任應秋著：前揭書，p.15

걸쳐 心血을 기울여 活人書를 만들었는데 그는 宋代에 傷寒論을 研究한 名家 중의 한 사람이었다. 許叔微는 그 活人書를 두고 가장 簡略하고 分明하며 古典에 가장 合當한 冊이라고 評했다. 劉河間²⁴⁾은 活人書를 일컬어 質問이 많고 處方이 詳細하고 說明이 곧바르며 비슷한 症을 區別해 놓았다고 했으며, 徐大椿은 이 活人書를 두고 仲景의 뜻을 살린 제일 첫 번째 冊이라 稱했다. 汪琥²⁵⁾는 朱肱의 活人書를 칭찬했을 뿐만 아니라 朱肱을 仲景의 大功臣이라 했고, 喻嘉言은 朱肱을 一世的 英雄이고 長沙公乃百川之宗이라 칭찬했다. 이렇듯 그 影響은 무척이나 컸고 後代 醫家들의 尊敬의 대상이었다.

여기서 朱肱의 學問의 見解를 要約해보면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經絡을 重視하였다. 歷代의 傷寒學家들이 仲景의 六經에 대한 見解가 달랐는데 張志聰을 代表로 하는 學者들은 氣化로 六經을 論述하여 傷寒 三陰三陽病을 六經氣化의 病이요 經絡 本身의 病이 아니라고 하였다. 또 柯琴을 代表로 하는 學者들은 分經類證하고 方으로 病證을 하였으며 尤在涇을 代表로 하는 學者들은 法에 따라 類證을 하고 朱肱은 經絡으로 分經을 論하였다. 그는 活人書에 먼저 經絡을 論하고 經絡의 循行으로 六經病證을 解釋하였는데 六經의 病機를 正確히 認識하고 傷寒論 各經의 條文 中에서 六經病 六大 綱領을 뽑아 내었다.

두 번째로 脈證合參 즉 脈診과 證候의 合參을 매우 重視하였다.

그는 傷寒의 病이 脈診에 의하여 鑑別되고 어떤 病은 辨證의 關鍵이 脈診에 있다고 했다.

세 번째로 傷寒과 溫病의 鑑別이다.

傷寒과 溫病의 다른 점을 強調하여 傷寒病은 溫病 暑病 溫疫 등과 區別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治療 上에 錯誤가 發生하고 심지어는 生命의 危險을 招來할 수 있다고 했다.

네 번째는 傷寒論의 補充이다.

그는 “仲景藥方缺者甚大 至如陰毒傷寒 時行溫疫 溫毒 發斑之類 全無方書”라 하고 千金 外台 聖惠方等書에서 關聯 方劑를 골라 傷寒의 治法을 넓혔다.

마지막으로 處方과 用藥에 대한 見解로 辨證選方을 重視하여 處方을 철저히 加減하여 쓸 것을 強調하였다.²⁶⁾

4) 方有執

方有執은 明代에 傷寒學 大家의 한 사람으로 獨特한 觀點으로 傷寒論을 改正하였다.

이 錯簡重訂은 당시 醫學系에 큰 反響을 불러 일으켜 傷寒學派의 內部에도 論爭이 激烈했는데 錯簡重訂에 贊成한 代表的인 醫家로는 喻嘉言이 있다. 그는 “風傷衛 寒傷營 風寒兩傷營衛”라는 所謂 三綱鼎立 學說을 主張했는데 어떤 醫家들은 여기에 反對하고 傷寒論舊本의 權威를 提倡하면서 維護舊論派를 形成하기도 했다. 한편으로는 傷寒論의 辨證論治의 規律을 重히여겨 辨證論治派를 만들기도 했다.

方有執이 錯簡되었다는 前提아래 傷寒論의 編次를 거듭 새롭게 한 것은 확실히 大膽한 시도이며 後世의 影響도 매우 컸다.

24) 字는 守眞으로 著書로는 素問要旨, 宣明論方, 素問玄機原病式, 傷寒直格 등이 있다.

25) 자는 성지로 저서로 素問鈔, 運氣易覽, 外科理例, 針灸問答, 脈訣刊誤 등이 있다.

26) 洪元植著 : 中國醫學史, 韓國, 東양의학연구소, 1984, p.157

그러나 그가 風傷衛 寒傷營 등에 따라서 太陽病을 三篇으로 나눈 것은 역시 아직까지는 妥當視 되지 못하므로 자못 後人의 非難을 받고 있다.²⁷⁾

5) 柯琴

清代의 名醫인 柯韻伯은 仲景學說을 實質的으로 繼承하여 發揚하고 創新하였다.

그는 “以方類證 證從經分”의 方法으로 傷寒論을 編注하여 臨床的으로 辨證施治의 實用가 치를 크게 높였는데 徐大椿의 경우 傷寒論類方은 大體的으로 柯琴의 方式을 採擇하였다.

그는 先人들이 編纂한 傷寒論에 敢히 變革을 追求하고 原書錯簡 등에 對해서는 다른 學術觀點을 가지고 있었으며 王叔和의 編纂에 對해서는 反對했고 方有執 喻嘉言의 重訂 및 三綱鼎立學說에 對해서도 反對意見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仲景의 傷寒論이 그 원모양을 찾기는 不可能하지만 다만 그 辨證論治의 精神은 掌握할 수 있다고 했고 또 “六經地面”說을 主張했는데 傷寒六經이 全身의 여섯 개 分區임을 인식하고 有關한 臟腑 經絡 肌表 組織 官竅 등의 機地聯系에서 誘發된다는 것을 把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傷寒論을 六經實質的으로 解釋하고 스스로 한 學說을 이루어 後世에 一定影響을 미쳤다.²⁸⁾

3. 資料

1) 桂枝湯方 針法

※ 桂枝湯證 條文

12조 太陽中風, 陽浮而陰弱 陽浮者熱自發

陰弱者汗自出 齋齋惡寒, 淅淅惡風 翁翁發熱 鼻鳴乾嘔者 桂枝湯主之.

本條는 太陽中風의 證治에 대한 것을 말한 것으로 太陽中風에 陽脈은 浮하고 陰脈은 弱한데 陽脈이 浮한 것은 열이 저절로 나는 것이고 陰脈이 弱한 것은 땀이 저절로 나는 것이다. 오슬오슬 추워하며 오싹오싹하여 바람을 싫어하며 확확 열이 나며 콧소리 나며 헛구역 하는 것은 桂枝湯을 쓴다.

13조 太陽病 頭痛 發熱 汗出 惡風 桂枝湯主之.

本條는 桂枝湯의 證治에 대한 것을 말한 것으로 辨證을 주로 하였다. 桂枝湯證이 있으면 桂枝湯을 사용할 뿐이고 傷寒, 中風, 雜病등을 따질 필요가 없다. 四證 중에 頭痛은 太陽病의 本證이고 頭痛, 發熱, 惡風 등은 麻黃湯證과 같으나 本方의 重點은 汗出에 있으므로 汗出이 없으면 桂枝湯證이 아니다.

15조 太陽病 下之後 其氣上沖者 可與桂枝湯 方用前法 若不上沖者 不得與之.

本條는 太陽病을 誤下시켜서 氣上衝한 경우의 治法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成無己²⁹⁾는 이는 속이 허한 틈을 타서 邪氣가 아직 侵入하지 않았다는 표시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24조 太陽病 初服桂枝湯 反煩不解者 先刺風池 風府 却與桂枝湯則愈.

本條에서 煩은 熱이 心胸에 鬱한 것이고 發熱은 皮膚에 發하는 것을 말한다.

桂枝湯을 복용한 후에 땀이 나고 몸이 식을 것인데 도리어 답답한 것이 낫지 않는 것은 風이 太陽經에 鬱結하여 생긴 것으로 先刺風池, 風府하여 經絡을 疏通하여 邪氣

27) 陳大舜著: 前揭書, p26

28) 上揭書, p30

29) 宋代에 태어나 金人으로 살았으며 傷寒論에 대한 注解를 한 傷寒論注와 傷寒明理論을 著述하였다.

를泄하고 연후에 桂枝湯으로 풀어주면 낫는다

53조 病常自汗出者 此爲營氣和 營氣和者 外不諧 以衛氣不共營氣諧和故稱, 以營行脈中 衛行脈外 復發其汗 營衛和則愈 宜桂枝湯.

本條는 自汗症의 病理와 治方을 論定한 것으로 ‘營氣和’란 營氣가 不病하여 和平하다는 뜻이고 調和란 뜻은 아니다. 靈樞에 衛氣란 腠理를 肥하게 하고 開闔³⁰⁾을 使하여 外部를 護衛하여 堅固하게 한다 하였으니 自汗症은 衛氣가 病이되어 衛外하지 못하므로 自汗이 나는 것이니 이것이 곧 營氣는 和하나 衛氣와 調和되지 못하는 것이다. 衛는 陽이고 營은 陰으로써 陰陽이 和合하여야 한다. 此症은 營氣는 脈中, 衛氣는 脈外를 각각 순행할 뿐 調和를 喪失하여 自汗病을 형성한 것으로 桂枝湯으로 營衛를 조화시키면 낫는다.

(方藥) 桂枝去皮三兩 芍藥三兩 甘草灸二兩 生薑切三片 大棗十二枚

(方解) 桂枝湯은 足太陽膀胱經의 藥으로 仲景은 發汗을 重히 여기고 解肌는 輕하게 여겨서 中風症은 크게 땀내는 것이 不可하므로 비록 表邪가 있으나 다만 解肌함이 옳은 故로 桂枝湯으로 이를 調和한 것이다. 經에는 風淫의 勝한 辛涼으로서 平하게 하고 苦甘으로서 佐하며 甘味로 이를 緩하게 하고 酸味로 이를 收한다고 말하였다. 桂枝의 辛甘은 發散하여 陽이 되고 芍藥의 酸收로서 辛하며

甘草의 甘平으로서 佐하여 陰氣로 하여 金 走洩하지 못하게 하고 生薑의 辛溫은 能散하고 大棗의 甘溫은 造化를 잘하여 이것이 發散만 한 것이 아니고 또 脾의 津液을 運行하게 하여 營과 衛를 調和한 것이다.³¹⁾

(效能) 解肌發汗, 調和營衛

(主治) 頭痛, 發熱, 汗出, 惡風, 脈浮緩

治療原則: 健胃解肌而調衛和營

配穴: 大椎, 風池, 足三里, 曲池, 京骨, 後谿, 申脈

(1) 大椎: 手足三陽之脈과 督脈이 大椎³²⁾에 모이고 通陽主表하며 斡旋營衛한다.

무릇 外感六淫之邪가 在表하면 이 大椎穴이 桂枝湯의 桂枝, 芍藥에 비유된다.

(2) 風池: 陽維脈³³⁾은 主陽主表하는데 風池穴은 足少陽, 陽維脈의 會로써 能히 表邪를 疎解하고 鎮痛止寒熱하며 鼻竅로 能通한다.

陽維脈은 귀 뒤를 順行하여 風池穴에서 手少陽, 足少陽經과 會合한다.

(3) 足三里: 肺는 皮毛를 主하고 그 肺經은 中焦에서 起하는데 足三里는 胃經으로서 益胃補氣血하며 土足金生하게 하여 肺氣가 充足한 즉 益氣固表한다.

즉, 穀氣를 充足시켜 營衛를 調和시킨다.

(4) 曲池: 曲池穴은 手陽明大腸經의 合穴(逆氣而洩)로써 淸熱에 사용한다.

曲池穴은 足三里혈과 같이 사용하여 調補腸胃한다.

(5) 申脈: 申脈穴은 足太陽膀胱經의 穴로써 陽蹻脈³⁴⁾(起申脈穴 終 風池穴)과 通한다.

30) 開闔樞는 經脈의 生理作用의 세 가지 特徵을 말한 것으로 開는 太陽經이 陽經 中에서 相對的으로 淺表部位에 있어서 連繫에 더욱 近接하여 開放의 作用을 하고 闔은 經脈이 相對的으로 身體內部的 深層에 있어서 閉合收斂의 作用을 具有함을 뜻한다. 樞는 相對的으로 表裏사이에 있어서 戶樞作用을 具有한다는 뜻이다.

31) 汪昂著: 國譯醫方集解,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111

32) 奇經八脈이며 陽脈之海라고도 한다.

33) 奇經八脈으로 諸陽脈을 維絡한다.

34) 奇經八脈으로 陽經을 絡한다.

- (6) 後谿：後谿穴은 手太陽小腸經의 輸穴로써 督脈과 通하는데 督脈은 一身의 陽氣를 通솔하므로 申脈과 後谿穴은 督脈의 陽氣와 太陽經의 經氣를 疏通하여 邪氣를 解肌驅風하여 達表한다.
- (7) 京骨：京骨穴은 足太陽膀胱經의 原穴³⁵⁾이 된다.

2) 桂枝加葛根湯方 針法

※ 桂枝加葛根湯方 條文

14조 太陽病 項背強几几 反汗出惡風者 桂枝加葛根湯主之.

本 條는 桂枝加葛根湯의 條文으로 여기서 項背強이란 項連背部가 經脈이 拘急하여서 強硬한 상황으로 風寒外束하여 經氣가 不舒하고 津液이 阻滯되어 散布되지 못하므로 經脈이 그 營養함을 잃어버린 所致인데 여기서 無汗惡風이라면 葛根湯을 써야하나 反汗出惡風으로 桂枝加葛根湯을 쓴 것이다.

(方藥) 桂枝三兩去皮 芍藥三兩 炙甘草三兩 生薑三兩切 大棗十二枚 葛根四兩

(方解) 이 處方은 桂枝湯에 葛根을 君藥으로 하여 項背部의 強直性 痙攣을 主治하는데 項背部의 肌肉이 強急한 것은 體液이 通達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葛根은 그 藥性이 陽明中土之氣를 宣達하여 外合於 太陽經脈하는 藥이다.³⁶⁾ 本證에 汗出惡風하는 太陽中風症이 있으므로 桂枝湯을 主方으로 하고 여기에 葛根을 加하여 쓴 것이다.

(效能) 解肌和表, 宣通經脈

(主治) 頭痛, 發熱, 汗出, 惡風, 脈浮緩(桂枝湯證 主治) 兼現項背強几几

治療原則：解肌生津

35) 臟腑原氣의 經過와 留止의 穴位

36) 仲昴庭著：本草崇原集說，中國，南京中醫學院，1986, p.90

配穴：大椎, 風池, 足三里, 曲池, 絕骨, 後谿, 大杼, 天柱, 筋縮

桂枝加葛根湯의 主治는 項背強几几 反汗出惡風者인데 汗出惡風은 中風表虛證이고 이는 桂枝湯證의 主治症이므로 桂枝湯方 針穴을 配合한 것이다.

- (1) 絕骨：足少陽膽經의 穴으로써 髓會穴³⁷⁾인데 頸項部를 통과하므로 項背強을 치료하고 升津하여 通經한다.
- (2) 後谿：手太陽經의 穴으로써 督脈과 通하고 散寒通經하며 太陽經氣를 疏通시켜서 項背強几几를 治療한다.
- (3) 大杼, 天柱, 筋縮：此三穴은 足太陽膀胱經의 背俞穴³⁸⁾로써 膀胱經은 督脈과 밀접한 關係가 있는데 膀胱經의 背俞穴 모두가 督脈兩側에 있고 督脈과 더불어 相通하므로 此三穴은 疏通氣血, 濡養肌肉하여 強急을 緩解시키고 解肌升津의 效果가 있다.

3) 桂枝加厚朴杏子湯方 針法

※ 桂枝加厚朴杏子湯 條文

19조 喘家³⁹⁾作, 桂枝湯加厚朴杏子佳.

本條는 平素에 喘疾이 있는 患者가 太陽中風을 感受하여 喘疾이 發作한 경우의 治法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太陽은 모든 陽을 위하여 氣를 주관하는데 風이 甚하여 기가 막히면 喘症이 생긴다. 桂枝湯으로 風을 發散시키고 厚朴과 杏仁을 넣어 氣를 下降

37) 八會穴 中の 하나로 髓의 經氣가 交會하는 穴이다.

38) 背部 膀胱經의 經穴이며 臟腑의 經氣가 輸送되어 있는 곳으로 內臟病變時 그 該當部位가 壓痛, 過敏, 筋의 強直 등이 나타나기 쉬우므로 臟腑의 診斷 및 治療에 사용된다.

39) 蔡仁植著：傷寒論譯證，韓國，高文社，1991. p.23；喘家란 平素부터 喘證이 있는 사람을 말하며 論中에 瘡家, 汗家, 淋家, 虛家란 述語와 同一한 意味이다.

시킨다.

(方藥) 桂枝去皮三兩 芍藥三兩 甘草炙二兩
生薑切三兩 大棗擘十二枚 杏仁五十枚 厚
朴炙去皮二兩

(方解) 이 증은喘가가 太陽中風證에罹患
된 경우를 말하는데 여기서喘家란 平素
부터喘證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桂枝
證이 있고 여기에喘症이 있으면桂枝湯
으로調和營衛하고厚朴으로輸脾寬胸하
고杏仁으로宣降肺氣한다.

(效能) 解表降逆

(主治) 太陽病 桂枝湯主治症兼見汗出而喘者.
治療原則: 解肌降逆定喘

配穴: 大椎 風池 足三里 曲池 豐隆 列缺 魚
際

이미 太陽病의 桂枝湯證이 있는 상태에서
喘證이發한 것이므로 桂枝湯 針法인 大
椎 風池 足三里 曲池를 配合하여 調和營
衛하고 解肌發汗 한다.

(1) 豐隆: 胃之別絡⁴⁰)으로 太陰經으로 別도
走行하며 그 성질이 沈降하고 淸肺熱한
다.

(2) 列缺: 列缺穴은 宣肺定喘한다.

(3) 魚際: 肺經의 井穴⁴¹)로서 表證의 發熱,
頭痛, 咳喘 등을 主治한다.

4) 麻黃湯方 針法

※ 麻黃湯 條文

35조 太陽病 頭痛發熱 身疼腰痛 骨節疼痛
惡風無汗而喘者 麻黃湯主之.

風寒邪氣가 太陽部位에 侵入하면 體內的
正氣가 이 邪氣를 體表로 排除코자 抵抗하
기 때문에 人體의 病的反應을 惹起하여 該
當部 要所인 頭項背脊의 神經系에 出現한

40) 絡穴은 經脈에서 絡脈이 갈라지는 分岐點에
該當하는 穴을 말한다.

41) 諸經脈氣의 起源處로서 때로 救急處置穴이
다.

다. 風寒邪의 障得로 表熱이 排泄되지 못하
여 上衝하기 때문에 頭痛하고 血熱이 外邪
와 抗爭하기 때문에 發熱하고 온몸의 血液
이 排泄치 못한 水毒과 抗凝하기 때문에 身
疼하고 太陽經氣가 經脈으로 循環치 못하기
때문에 腰痛하고 外散障得를 받은 水分이
骨節에 滲透하기 때문에 骨節이 疼痛하고
體溫의 調節機能이 喪失되기 때문에 惡風惡
寒하고 皮毛와 肺의 機能이 失調되기 때문
에 無汗而喘한다.⁴²⁾

麻黃八症에서 痛者는 4症인데 이는 太陽
經의 表氣가 鬱肺되어 생긴 것으로 麻黃湯
을 사용하여 開表鬱 散寒凝한다.

36조 太陽與陽明合病 喘而胸滿者 不可下 宜
麻黃湯

太陽證과 陽明證 모두가 喘症을 일으킬
수 있으나 그 機轉은 다르다. 此症의 喘而
胸滿에서 이는 喘과 胸滿이 連接하여 일어
난다는 뜻으로 喘으로 因해서 胸滿症이 생
긴 것이다. 表邪가 皮毛에서 閉塞되고 肺氣
가 宣降하지 못하여 氣逆邪壅하여 된 症 이
다. 즉 太陽病에서 表部에서 邪氣가 實하
는 것을 反映한 것으로 麻黃湯을 사용하여
發表宣肺하여 表解한 즉 喘滿自平한다.

(方藥) 麻黃去節三兩 桂枝二兩 甘草炙一兩
杏仁七十枚

(方解) 本方은 太陽傷寒證을 治療하는 處方
이며 太陽傷寒證은 外感風寒表實證이 實
한 것을 말한다. 寒邪가 表를 聚束하여
正邪가 相爭하므로 惡寒發熱하고 頭痛과
身疼이 있으며 肺는 氣를 主管하고 皮毛
와 相合되는데 皮毛가 閉塞되면 肺氣가
不宣하므로 無汗하면서 숨이 차게 된다.
그러므로 마땅히 發汗宣肺하는 治法으로
表의 寒邪를 解除시키고 閉鬱된 肺氣를

42) 蔡仁植著: 前揭書, p.41

開泄시킴으로써 表邪가 解散되고 肺氣가 宣通하게 되면 自然히 邪氣가 去하고 喘이 平하게 된다. 方中의 麻黃은 發汗解表하여 風寒을 散하고 肺氣를 宣利하여 喘咳를 平하게 하므로 君藥이 되고 桂枝는 發汗解肌하고 溫經散寒하여 麻黃의 發汗解表作用을 돕고 肢體疼痛을 除去하므로 臣藥이 되며 杏仁은 肺氣를 宣暢하여 麻黃의 平喘作用을 도우므로 佐藥이 되고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이 된다. 이와 같이 四藥이 配伍하여 發汗散寒하고 宣肺平喘하는 效능이 있다.

(效能) 發汗解表 開發毛竅腠理 驅散寒邪 治太陽表實無汗

(主治) 太陽傷寒證, 邪氣在表, 發熱, 頭痛, 身腰痛, 骨節痛, 項背強, 惡寒惡風, 無汗而喘, 脈浮而緊.

治療原則: 發表宣肺散寒, 降逆平喘

配穴: 大椎 曲池 後谿 列缺 喘息 大杼 風門 肺俞

- (1) 大椎: 大椎穴은 疎解表邪 한다.
- (2) 曲池: 手陽明經의 合穴⁴³⁾으로써 大椎穴과 함께 清熱行氣 시킨다.
- (3) 後谿: 通督脈하며 散寒解表 한다.
- (4) 列缺 喘息: 列缺穴은 宣肺氣하고 喘息穴은 降氣定喘하여 宣肺定喘하고 治頭痛의 效과가 있다.
- (5) 大杼 風門: 膀胱經의 穴으로써 太陽經의 表部가 寒邪에 鬱肺된 상태이므로 取하여 發表出汗한다.
- (6) 肺俞: 肺主皮毛하므로 肺俞穴을 취하여 背部의 經氣를 소통시키고 宣肺發表而平喘한다.

5) 大靑龍湯方 針法

※ 大靑龍湯方 條文

38조 太陽中風 脈浮緊 發熱惡寒 身疼痛 不汗出⁴⁴⁾而煩躁者 大靑龍湯主之.

이 條는 太陽中風의 虛證이 實證으로 變하는 機轉이다. 脈이 緊하고 身痛하며 땀이 나지 못하여 肌表에 있던 邪熱이 體內로 陷入하여 鬱蒸하기 때문에 煩燥한 症이 發生한 것으로 麻黃湯을 사용하면 發汗이 되지만 裏熱을 攄할 수 없으며 脾陽을 손상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麻黃湯 用量을 三分의 二로 減하고 生薑과 大棗를 加해서 脾陽을 保護하고 麻黃은 石膏配劑인 關係로 倍用하여서 發汗 清熱케 한 것이다.

39조 傷寒脈浮緩 身不疼 但重 乍有輕時 無少陰症者 大靑龍湯發之.

傷寒에 脈浮緊하면 身疼痛하나 脈浮緩하고 身不疼 但重한 것은 表部에 水濕이 留滯된 것을 말한다. ‘乍有輕時’란 말은 表에 水濕이 停滯되었지만 身體가 浮腫이 생길 정도는 아니다는 의미이며 ‘發之’의 의미는 表部の 水濕之氣를 發散시킨다는 뜻이다. 少陰病에도 脈沈 小便不利 四肢沈重疼痛 등의 症狀이 있으나 이는 水邪가 在裏한 것으로 溫化한 治法을 써야 한다.

(方藥) 麻黃去節六兩 桂枝去皮二兩 甘草炙二兩 杏仁去皮四十枚 生薑切三兩 大棗擘十二枚 石膏碎如鷄子大

(方解) 麻黃湯에 麻黃 炙甘草를 倍로 쓰고 石膏 生薑 大棗를 加한 處方으로 發汗解表하고 清熱除煩하는 效能이 있어 주로 風寒表實證에 裏熱이 兼하여 있어서 發熱 惡寒하는데 寒과 熱이 모두 重하며 身疼痛하고 無汗이면서 煩躁하며 脈이 浮緊한 症狀을 治療한다

43) 人體經脈의 氣流注가 充盈으로 水流의 會合하는 것을 比喩한 것으로 일반 經穴보다는 經脈氣가 더 많이 흐른다.

44) 蔡仁植著: 前揭書, p.44; 表에 邪氣가 있어서 成汗而出할 것이나 단지 成汗하여 나오지 못하는 것.

(效能) 解表清熱 能兩解風寒 治不汗出而煩躁

(主治) 發熱 惡寒 頭痛 身疼 無汗 煩躁 或身但重 乍有輕時 脈浮緊(或浮緩)

治療原則: 發表清熱除煩

配穴: 大椎 曲池 後谿 列缺 內關 足三里

(1) 大椎 曲池 後谿; 此三穴은 散外寒 祛疼痛 止喘의 效果가 있다.

大椎穴은 欲散表邪 할 경우 斜刺, 向後或向肩으로 刺鍼하고 清內熱하고자 할 때는 直刺한다.

(2) 內關: 內關은 心包經의 絡穴로써 清胸膈熱邪의 효능이 있다.

(3) 足三里: 此穴은 清降內熱의 效가 있다.

上記穴들은 散外寒 清內熱의 作用을 한다.

6) 小青龍湯方 針法

※ 小青龍湯方 條文

40조 傷寒表不解 心下水氣 乾嘔發熱而咳 或渴 或利 或噎⁴⁵⁾ 或小便不利 少腹滿 或喘者 小青龍湯主之.

本條는 小青龍湯의 證治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傷寒表不解는 太陽傷寒證이 仍在하여 아직 惡寒 無汗 脈浮緊 等の 症狀이 있다는 의미이다. 心下水氣란 水陰이 心下胃脘部에 停蓄되어 氣를 따라 上逆하여 犯肺한 즉 咳하고 犯胃한즉 乾嘔하는데 이것이 本條의 主症이다. 或症은 不必悉具이다. 水飲이 病이 되면 一般的으로는 不渴하나 水停하여 津液으로 氣가 不化한 경우는 渴한다. 水飲이 大腸으로 侵犯하면 下利하고 水畜膀胱하여 氣化失職한 즉 小便不利하고 下腹脹滿 해진다. 水陰이 內停하여 氣機가 障碍를 받은 즉 咽喉가 막히고 水飲이 犯肺하면 咳而喘해진다.

41조 傷寒 心下水氣 咳而微喘 發熱不渴 服湯已 渴者 此寒去欲解也 小青龍湯主之.

本條는 小青龍湯을 服用한 후 渴할 경우의 向愈하는 機轉에 대해 說明한 것으로 咳而微喘한 것은 水寒氣가 射肺한 것이고 發熱不渴한 것은 表證이 未罷한 까닭이므로 小青龍湯으로 發表散水해야 한다. 小青龍湯을 服用한 후 渴하는 것은 裏氣溫하고 水氣散한 것으로 病이 풀리려는 것이다.

(方藥) 桂枝去皮三兩 麻黃去節三兩 芍藥三兩 細辛三兩 乾薑三兩 甘草炙三兩 五味子半升 半夏洗半斤

(方解) 小青龍湯은 足太陽經의 藥으로 表證이 不解한 故로 麻黃의 發汗으로 爲君하고 桂枝 甘草로 이를 도와 解表하여 佐를 삼고 咳喘은 肺氣가 逆한 것이다. 故로 芍藥의 酸寒과 五味子の 酸溫을 써서 이를 거두는데 發汗으로서는 水邪를 散함이고 收斂하여 眞水를 堅固케 함이다. 水停心下가 되면 腎이 燥한다. 細辛과 乾薑의 辛溫으로 腎을 潤하게 하여 行水시키고 半夏의 辛溫은 逆氣를 잘 거두고 水飲을 解散하므로 使를 삼은 것이다. 外로는 發汗하고 內로는 行水하면 表裏의 邪가 다 解散된다.

(效能) 發汗散寒 驅除寒飲 治表寒而裏有水飲의 雙解之方

(主治) 傷寒表不解 心下水氣 乾嘔發熱而咳 或利 或噎 或小便不利 少腹滿或喘者 及染病腹脹水腫

治療原則: 宣表邪 逐痰飲

配穴: 大椎 後谿 列缺 肺俞 中脘

此症은 傷寒表不解 內挾水氣로 內外合邪하여 肺失宣降한 所致이므로

(1) 大椎 後谿 列缺: 此穴을 사용하여 發散外寒 한다.

(2) 肺俞 列缺: 宣肺氣 驅除內飲한다.

45) 李培生 外: 傷寒論講義, 중국, 1986, p.47; 咽喉部에 氣逆阻塞感이 있는 것을 말한다

(3) 中脘：中脘穴은 胃의 募穴⁴⁶⁾이고 腑會穴 이면서 振陽益胃한다.

7) 葛根湯方 針法

※ 葛根湯方 條文

31조 太陽病 項背強几几 無汗惡風 葛根湯主之

본 조는 邪氣가 太陽에 客해 經俞不利한 症을 말한 것으로 桂枝加葛根湯證의 項背強几几는 邪氣가 肌腠에 存在하여 經俞不利한 경우이고 이 條의 無汗惡風은 表에 邪實하여 經輸不利한 것으로 葛根湯으로 解表而散經輸之邪해야한다.

32조 太陽與陽明合病者 必自下利 葛根湯主之

本條는 太陽과 陽明이 合病⁴⁷⁾하여 自下利⁴⁸⁾ 할 경우의 證治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여기서 合病이란 3개經이 다 邪氣를 받아 함께 병든 것을 말하는데 合病의 경우는 반드시 泄瀉하게 된다고 했는데 이는 邪氣가 陰經에 어울리면 陰이 實해지고 陽은 虛해지며 邪氣가 陽經에 어울리면 陽은 實해지고 陰은 虛해진다. 寒邪의 氣運이 甚하여 두 陽經에 어울려 침범하면 두 陽經은 表만 實하게 되고 裏에는 作用하지 못하게 되므로 裏의 氣가 虛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泄瀉하게 된다. 葛根湯으로 經脈속에 들어있는

심한 邪氣를 헤쳐야 한다.

(方藥) 葛根三兩 麻黃去節三兩 芍藥二兩 生薑切三兩 甘草炙二兩 大棗擘十二枚

(方解) 本方의 主症은 項背強几几이다. 麻黃 症의 喘症이 없으므로 杏仁을 去한 것이다. 几几는 筋脈失濡潤한 症狀이므로 芍藥 甘草 大棗등의 酸甘한 味로 化陰하여 生津液하고 葛根이 升津하여 濡潤하고 麻黃을 加하여 發汗 解表邪 한 것이다.

(效能) 發汗散寒 兼疎經脈

(主治) 太陽病寒邪侵犯 項背強几几 無汗 惡風 太陽與陽明合病之下利

治療原則：疎經解熱 疎表和里

配穴：大椎 風池 足三里 後谿 承漿 風府

(1) 大椎 風池 足三里：大椎穴은 諸陽之會로써 諸陽經氣를 宣通하여 項背部의 筋緊을 治療하고 足三里는 胃經의 合穴로써 補益健脾로 胃腸을 調和시켜 脾胃經의 運輸機能을 돕는데 此三穴은 桂枝 芍藥 甘草에 比喩되어 發汗解肌表와 補益中陽한다.

(2) 後谿 承漿 風府：後谿는 手太陽小腸經의 穴로 太陽之氣를 宣和하고 風府는 太陽經과 督脈의 經氣를 調和시키고 祛風散寒하는데 此穴들은 葛根 麻黃에 比喩되어 太陽經의 邪氣를 疏散하고 通調任脈하여 項強을 治療한다.

8) 五苓散方 針法

※ 五苓散條文

71조 太陽病 發汗後 大汗出 胃中乾 煩躁不得眠 欲得飲水者 少少與飲之 今胃氣和則愈 若脈浮 小便不利 微熱消渴者 五苓散主之

이 條는 太陽病을 發汗시킨 뒤와 크게 汗을 내고 그 다음에 오는 症이 물을 마시어 自愈되는 症과 五苓散症과의 두 개가 있다. 하나는 汗을 났으므로 인해 단지 胃液이 燥枯

46) 胸腹部의 體表에 있는 臟腑의 生理 病理 反應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反應點을 말하며 臟腑의 經氣가 모이는 곳이다.

47) 傷寒病에서 二經 或은 三經이 同時에 受邪하는 것으로 發病하자 곧 各經의 主症이 同時에 出現하는 것을 말한다.

48) 蔡仁植著：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p.39；本症의 下利는 熱利로써 太陽과 陽明의 熱邪가 함께 盛하므로 胃家의 津液이 함께 盛하므로 胃家의 津液이 壓迫을 받아 體外로 排泄치 못하고 胃로 上昇하지도 못하고 腸內로 下注하기 때문에 胃弱한 사람은 자연히 下利한다.

하기만 하고 熱入胃實한 調胃承氣湯症보다 아주 輕한 煩躁症이 있어 잠을 잘 자지 못하나 그 病症은 오직 물을 마시고자 할 뿐이다. 이런 경우는 조금씩 물을 마시게만 하면 胃腸이 水分을 吸收하여 亡失된 津液을 補充하여 胃和하므로 自愈하고 하나는 發汗한 뒤나 또 땀이 크게 난 다음에 脈은 浮數하고 小便은 잘 나오지 아니하며 體內에는 열이 많으나 體表에는 隱微한 熱이 있고 口渴하여 물을 多量으로 마셔도 그것이 體內에서 다 消耗한다. 이것은 內熱로 因한 津液代謝機能障礙이고 古稱 太陽傳本蓄水⁴⁹⁾ 症이다. 太陽證은 表이고 膀胱腑는 本이며 또 津液의 腑이란 의미에서 말한 것이다. 口渴은 治療하려면 膀胱의 熱을 瀉하여야 하고 膀胱의 熱을 瀉하려면 小便을 利하게 하여야 하니 즉 五苓散의 主治이다.

72조 發汗已 脈浮數 煩渴者 五苓散主之

여기서 發汗已는 發汗을 다 마쳤는데 아직 表證이 去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다.

發汗을 이미 마쳤으나 表證이 다 풀리지 아니하여 脈은 浮數하고 下焦에 蓄水되어 津液이 不化한 때문에 小便이 不利하고 煩熱口渴하니 이것은 五苓散의 主治이다.

(方藥) 猪苓十八銖 澤瀉一兩六銖 白朮十八銖 茯苓十八銖 桂枝去皮半兩

(方解) 五苓散은 外解表熱하고 內通水府하는 處方으로 氣化하고 利小便하여 兼治 表邪하는데 主治症은 蓄水症으로 煩渴飲水而 小便不利 하는 症狀을 치료한다. 여기서 口渴하는 것은 氣化異常으로 津液이 不能上升하여 생긴 것으로 萬若에 氣化가 恢復되어 小便이 通利되면 口渴

은 없어진다. 萬若 津液耗傷으로 因해 口渴이 생기고 小便不利가 나타나면 五苓散을 쓸 수가 없다. 五苓散證은 氣化失常으로 因해서 小便不利, 小腹裏急이 생기므로 이것이 辨證의 關鍵이다 方中에 茯苓 猪苓 澤瀉는 下行利水하여 通利小便하는데 所謂淡滲利濕하고 白朮은 助脾燥濕하며 桂枝는 通陽解表한다. 桂枝와 白朮은 同用하면 健脾化氣行水하는 作用이 더욱 增加한다.

(效能) 健脾利水 溫通表陽 外解太陽之表 內疎腎與膀胱水邪

(主治) 太陽病 發汗後 脈浮 小便不利 微熱 消渴者

治療原則：解表 溫中利水 衛外固表

配穴：大椎 列缺 三陰交 陰陵泉 足三里 氣海

- (1) 大椎 列缺：此穴들은 通陽解表시킨다.
- (2) 足三里：足三里穴은 胃經의 合穴로써 助脾祛濕한다.
- (3) 列缺 氣海 三陰交：列缺 氣海穴은 內通水府하고 三陰交 陰陵泉穴과 더해져서 滲濕祛濕之力이 增大된다.

9) 桃核承氣湯方 針法

※ 桃核承氣湯 條文

109조 太陽病不解 熱結膀胱 其人如狂 血自下 下者愈. 其外不解者 尙未可功 當先解其外. 外解已 但少腹急結者 乃可攻之 宜桃核承氣湯.

本條는 太陽蓄血⁵⁰⁾證의 病因 病機 治法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太陽經의 表邪가 不解하여 邪氣가 經을 따라 入府하여 熱로 化하여 膀胱⁵¹⁾에 結한다. 膀胱은 府인 동시

49) 文瀾典外：東醫病理學, 한국, 고문사, 1990, p.379; 邪氣가 太陽之府인 膀胱으로 入하여 水氣의 不化를 招來한 경우를 가르킨다.

50) 文瀾典 外 2인：東醫病理學, 한국, 고문사, 1990, p.379; 邪熱과 瘀血이 下焦少腹部에 結한 病變으로 邪熱이 膀胱血分에 入하여 下焦에 瘀阻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에 胞之室인데 胞는 血海가 되며 膀胱의 外에 居處한다. 熱結膀胱하여 胞를 薰蒸하면 溢入回腸하여 少腹急結을 이룬다. 瘀血初結에 血이 能히 自下한 卽 그 병은 낫지만 少腹急結이 이미 이루어진 다음에는 약이 아니면 攻下하기 어렵고 藥으로 먼저 外部를 先解하여 內傳之路를 遮斷한 後에 桃核承氣湯으로 活血散瘀 瀉熱通便한다.

(方藥) 桃仁五十個 大黃四兩 桂枝二兩 芒硝二兩 甘草二兩

(方解) 本方은 神志症狀과 少腹拘急하며 小便自利가 主症狀인데 이는 邪氣가 裏部로 入해 熱로 化하여 血分에 맺혀서 少腹에 瘀血이 생기므로 少腹拘急해진다. 心은 主神明⁵²⁾ 主血脈⁵³⁾하는데 熱이 血分에 入하여 上으로 神明을 搖動하므로 如狂하게된다. 血이 下焦에 맺히면 膀胱의 氣化에는 影響을 주지 않으므로 小便은 自利하게 되는 것이다. 方中에 桃仁은 潤腸活血 行血通瘀하고 大黃은 行血하여 推陳致新하며 芒硝는 鹹味로 軟堅潤燥 하고 甘草는 調胃和中하며 桂枝는 辛溫의 氣味로 利血行滯한다. 여기서 大黃 芒硝 甘草는 調胃承氣湯으로 逐實攻下하여 血熱을 下行하게 하고 桂枝 桃仁은 活血行瘀한다.

(效能) 行瘀破血 治下焦熱與血結

(主治) 太陽病不解 其人如狂 小便自利 小腹痛

拘急 脈沈澁

治療原則：活血破瘀 疏經瀉熱

配穴：大椎 豐隆 神門 委中 間使

(1) 大椎：大椎穴은 桃核承氣湯의 桂枝에 비유되어 調營衛解의 효능으로 肌表之邪를 除去한다.

(2) 豐隆 神門：此二穴은 清解內熱하고 寧神定志한다.

(3) 委中 間使：委中穴을 出血하고 間使穴을 瀉法을 사용하여 活血化瘀 清心安神시킨다.

10) 抵當湯方 針法

※ 抵當湯條文

128조 太陽病六七日 表證仍在 脈微而沈 反不結胸 其人發狂者 以熱在下焦 少腹當硬滿 小便自利者 下血乃愈. 所以然者 以太陽隨經瘀熱在里故也 抵當湯主之.

本條는 熱結下焦血分(蓄血)의 重症의 證治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太陽病이 六七日이 지나면 頭痛 惡寒 發熱등 表證이 풀릴 터인데 아직 있고 그 表證이 있으면 脈이 당연히 浮할 터인데 도리어 없고 發狂하여 精神의 異常을 나타내며 下腹部가 硬滿하다 또 下腹이 硬滿하면 흔히 小便의 不利가 오는데 小便도 이상없이 自利하다. 이것은 熱이 下焦血分에 搏結해 있는 관계니 下血시키면 熱이 血과 함께 出하여 治愈된다.

129조 太陽病 身黃 脈沈結 少腹硬 小便不利者 爲無血也 小便自利 其人如狂者 血證諦也 抵當湯主之

이條는 小便의 自利와 不利로 血證의 여부를 鑑別한 것이다. 惡寒 發熱 頭痛인 太陽症에 身黃하고 脈象은 沈結하다. 이것은 氣와 血의 연결되지 아니한 반응이다. 下腹部가 빠근하고 小便이 잘나오지 아니하면 水結症인 黃疸이고 血證은 없는 것이지만

51) 蔡仁植：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p.89;膀胱은 現代의 解剖學에서 말하는 膀胱이 아니고 膀胱이 있는 下焦를 가르킨다.

52)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者 君主之官 神明出焉”이라 했고 여기서 神은 中樞神經을 말하는데 이 中樞神經이 心에 의해 主宰되고 體現됨을 말함.

53) 心은 血液運行的 動力을 主宰하며 脈管은 血液運行的 通路이다. 心과 血脈과의 관계는 주로 營養의 輸送과 血液循環의 相互聯關面에서 나타난다.

小便이 별 이상없이 잘 나오고 患者가 狂症 같은 精神의 異狀이 있으면 틀림없는 血證으로 확인되니 抵當湯으로 주치한다.

(方藥) 虻虫去足翅熬三十個 水蛭熬三十個 桃仁去皮尖二十個 大黃三兩酒洗

(方解) 水蛭 虻虫 桃仁 大黃등으로 構成되어 蓄血을 攻逐하는 效能이 있어 下焦의 蓄血로 發狂또는 如狂하고 少腹이 硬滿하여 小便自利하고 잘 잊어버리며 大便色이 검고 硬한 듯하나 易解되며 脈이 沈結한 症과 婦人의 經閉에 少腹이 硬滿하고 拒按하는 症을 치료한다.

(效能) 攻瘀血之峻劑

(主治) 太陽病熱入下焦 與瘀血相搏結 而致 少腹硬滿 其人如狂等蓄血重證

治療原則：活血化瘀 瀉熱平狂

配穴：委中 曲澤 膈俞 豐隆 天樞

(1) 委中 曲澤 膈俞：委中 曲澤穴을 點刺 出血하여 瀉血熱하고 여기다가 膈俞穴을 配合하는데 膈俞穴은 血會⁵⁴로 血病을 治療하므로 活血行瘀한다.

(2) 豐隆 天樞：此穴들은 胃腸을 清瀉하고 引熱下行하며 開心竅하여 神志를 定하게 한다.

11) 桂枝加附子湯方 針法

※ 桂枝加附子湯方 條文

21조 太陽病 發汗 遂漏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桂枝加附子湯主之.

汗漏가 그치지 않고 惡風하는 것은 發汗過多로 表陽이 虛脫⁵⁵한 症이며 小便이 難

難한 것은 水分이 皮膚로 過度하게 排泄되어 膀胱으로 下輸하는 것이 적어진 때문이며 四肢가 微急하고 屈伸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은 津液이 虛脫하므로 骨屬의 屈伸이 不利하기 때문이니 즉 四肢의 運動神經이 滋養을 喪失한 것이고 神經의 滋養喪失은 津液의 缺乏으로 말미암아 四肢에 輸送을 圓滑하게 하지 못한 관계이다. 이 경우를 脫液⁵⁶亡陽이라 하니 그러므로 桂枝湯에 附子를 加하여 固表하여 止汗시키고 回陽하여 生津케 한 것이다.

(方藥) 桂枝去皮三兩 芍藥三兩 甘草二兩炙 生薑切三兩 大棗擘十二枚 附子一枚

(方解) 本方은 桂枝湯에 附子를 加味한 方劑로 桂枝湯證은 麻黃劑로 誤汗하여 表虛와 陰虛가 兼하여 惡風하고 筋肉의 屈伸이 곤란할 때 사용하는데 方中에 桂枝의 辛溫은 表陽을 回하고 生薑과 甘草의 辛甘은 中宮을 補하면서도 桂枝와 함께 寒邪를 散하며 陽氣를 回復하고 芍藥의 酸苦는 津液을 收하여 陰을 益하여 陽의 根을 固하게 함과 아울러 辛味에 의한 散逸을 抑制하고 大棗는 甘草와 함께 中土를 補하며 또한 그 泥性은 氣를 固着케 함과 아울러 津液을 收斂하여 陰을 益하게 하며 附子는 陽의 根源인 命門의 火를 助하여 太陽의 根底인 少陰으로부터 陽을 回生케 하므로 中下의 生함을 得한 表陽은 芍藥의 收斂함과 調和되어 스스로 固衛함을 얻게 되는데 이리하여 陽이 回復되고 營衛가 調和되므로 表까지 陽의 開達이 이루어져 過開가 아닌

54) 八會穴中的 하나로 全身의 一部生理機能과 有關한 重要部位를 8個穴로 概括한 것이다.

55) 脫症이란 疾病의 過程에서 陰,陽,氣,血이 大量으로 耗損되어 生命이 危殆하게 되는 病理를 말하며 久病으로 因해 元氣가 虛弱하고 精氣가 漸次 消亡되어 惹起되는 脫症을 말함.

56) 文瀾典 外 2인 : 東醫病理學, 한국, 고문사, 1990 p.152 ; 津液이 大量脫失되면 氣가 依付할 곳이 없으므로 津液을 따라 外泄하고 나아가 暴脫亡失하게 되는 病理現狀으로 대개 高熱傷津, 大汗으로 因한 傷津脫液, 甚한 泄瀉로 因한 津液의 耗傷等으로 發生한다.

中和로써 그 全體의인 升降作用도 順調로와지는 것이다⁵⁷⁾. 그러므로 이 方을 發汗過多로 因한 惡寒이나 四肢의 屈伸不利 또는 半身不隨 麻痺 筋痙攣 神經痛 手足冷症에도 그 寒冷을 目標로 하여 널리 사용할 수 있다.

(效能) 1. 大補表陽 表陽密則漏汗止 惡風自去. 津止陽回 則小便自利 四肢自柔.

2. 此湯爲表證未除 陽氣已虛而設

(主治) 太陽病發汗 遂漏汗不止 其人惡風 小便難 四肢微急 難以屈伸者.

治療原則: 扶陽解肌

配穴: 大椎 足三里 風池 腎俞 氣海

此證은 發汗太過로 遂漏汗不止하여 생긴 증이다. 心陽虛微하고 腠理不密하여 惡風하는 것이다. 津液이 外로 盡泄하고 不能下輸膀胱하므로 小便이 困難한 것이다. 陽虛로 液脫하여 筋脈이 失濡養하여서 四肢微急⁵⁸⁾하고 難以屈伸한 것이다.

(1) 大椎 足三里 風池: 此穴들은 桂枝湯에 比喩되어 調和營衛한다.

(2) 腎俞 氣海: 此二穴에 灸를 하여 回陽止汗 시키는데 이는 附子에 比喩된다.

12)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方 針法

※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 條文

62조 發汗後 身疼痛 脈沈遲者 桂枝加芍藥生薑各一兩人蔘三兩新加湯主之

이 條는 體虛한 사람의 太陽傷寒을 麻黃湯으로 過多한 發汗을 하여 肌肉의 營養失調로 몸이 疼痛하고 또 汗多亡陽으로 循環系의 機能이 衰弱하여 脈搏이 沈遲⁵⁹⁾하다.

桂枝湯으로 營衛를 調和케 하고 芍藥人蔘生薑을 加하여 益陰養液하여 體液의 源泉을 培補한다 附子를 加하지 아니 한 것은 筋傷肉瞶⁶⁰⁾ 惡風 汗出等 症이 없기 때문이다.

(方藥) 桂枝去皮三兩 芍藥四兩 甘草二兩 人蔘三兩 大棗擘十二枚 生薑四兩

(方解) 本方은 太陽病에서 發汗太過로 因해 營氣不足으로 身疼痛하는 症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身疼痛은 太陽病에서 比較的 常見되는 症狀으로 發汗하면 대부분 消失되나 身痛이 如前한 것은 發汗太過로 營氣를 損傷시켜 筋脈이 失養한 所致이다. 아울러 脈이 沈遲한 상황은 營氣不足으로 脈道를 充盈할 수 없어서 나타난 症狀으로 桂枝湯을 本方으로 써서 調和營衛하고 芍藥을 重用하여 和營養血하며 生薑을 重用하여 宣通陽氣한다. 여기에 人蔘을 加해 益氣生陰하여 汗後之虛를 補한다

(效能) 祛邪扶正 和營助衛

(主治) 發汗後 身疼痛 脈沈遲者 及一切兩傷 氣陰 營衛不和 而身痛 脈沈者

治療原則: 益血和營

配穴: 大椎 風池 足三里 肝俞 脾俞 腎俞

兩傷氣陰 汗後身痛 脈沈者는 桂枝湯을 사용하여 調和營衛 시킨다. 脈沈者는 營中虛寒한 것이므로 生薑 芍藥 人蔘으로써 補氣陰한 것이다. 桂枝가 人蔘을 得한즉 大氣周流 氣血足而百骸里 하고 人蔘이 桂枝를 得한即 通行內外 補營陰而益衛陽한다. 氣虛와 陽虛의 區別이 있으므로 人蔘으로 補氣하고 附子를 사용하지 않

59) 脈象이 來輕하나 取하면 不應하고 重按하면 느끼지는데 一息에 四至가 不足한 脈象으로 發汗太過, 氣血虧損으로 脈道가 不充하여 鼓動이 無力하여 나타나는 象이다.

60) 肌肉이 痙攣 跳動하는 것으로 津液의 損傷 정도가 甚한 것이다.

57) 李正來: 東醫要諦眞詮, 한국, 광림공사학술도서, 1992, p.664

58) 崔達永, 金俊錡: 傷寒論釋講, 한국, 대성문화사, 1993, p.41; 四肢屈伸이 不能하고 약간의 攣急感이 있는 狀況을 말한다.

은 것이고 陰虛와 血虛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生薑 白芍藥을 사용하여 益營陰한 것이고 補血之劑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 (1) 大椎 風池 足三里 : 此穴은 桂枝湯에 比喩되어 調和營衛 止痛復脈시킨다.
- (2) 肝俞 脾俞 腎俞 : 此穴들은 兩補氣陰의 效가 있다.

13) 苓桂朮甘湯方 針法

※ 苓桂朮甘湯方 條文

67조 傷寒 若吐若下後 心下逆滿 氣上冲胸 起則頭眩 脈沈緊 發汗則動經⁶¹⁾ 身爲振振搖者 茯苓桂枝白朮甘草湯主之

本條는 中陽不足과 水飲上逆의 證治와 治藥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吐下後에 裏虛하여 氣가 上逆하면 心下逆滿⁶²⁾하고, 氣上衝胸하고 表陽이 不足하면 起則頭眩한다. 脈이 浮緊하면 邪가 在表하니 當發汗이고 脈이 沈緊하면 邪가 在裏하니 不可發汗이다. 萬若 發汗을 하면 外로 經絡을 動하여 陽氣를 損傷시키고 陽氣가 外虛한 卽 모든 脈을 主管할 수가 없으므로 몸이 떨리는 것이다. 이때 苓桂朮甘湯을 써서 經絡을 調和시키고 陽氣를 돕는다.

(方藥) 茯苓四兩 桂枝去皮三兩 白朮二兩 甘草二兩炙

(方解) 本方은 溫陽健脾 利水化飲의 主方으로 傷寒太陽證에는 當發汗해야 하나 誤治로 吐下하여 脾胃之陽을 損傷시켜 中虛가 되어 水氣가 上逆하여 心下逆滿하고 氣上衝胸하여 上으로 淸陽이 朦朧해

져서 起立即 頭眩한다. 脈證에서 沈主水 緊主寒하므로 寒凝은 水飲이 不化한 것이므로 苓桂朮甘湯을 써서 溫陽化水해야 한다⁶³⁾. 方中에 茯苓은 淡滲利水하는데 여기서 利水는 通陽의 義味이다 桂枝는 溫陽化氣하고 白朮은 健脾燥濕하며 茯苓 桂枝를 配合하여 中焦를 다스린다. 炙甘草는 益氣助運化하는데 四藥이 配伍하여 痰飲病은 溫藥으로 和하여 治療하는 것을 나타낸다.

(效能) 利水助心脾之陽

(主治) 傷寒 若吐若下後 心下逆滿 氣上冲胸 起則頭眩 脈沈緊 發汗則動經 身爲振振搖者

治療原則: 健脾行水 理氣降冲

配穴: 百會 大椎 足三里 內關 中脘 公孫 胃陽이 傷하여 中焦에 水飲이 停蓄하여 心下逆滿 氣上冲胸 起則頭眩한 것은 胃飲이 上逆한 症狀이다. 特別히 身體가 振振搖한 것은 陽虛로 水가 動한 症狀이다.

- (1) 百會 大椎 足三里 : 此穴들은 桂枝 甘草에 比喩되며 和中助陽한다.
- (2) 內關 中脘 公孫 : 此三穴은 茯苓 白朮에 比喩되고 健脾滌飲한다.

14) 眞武湯方 針法

※ 眞武湯方 條文

84조 太陽病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瞶動 振振欲擗者 眞武湯主之.

本條의 症은 太陽病을 잘못 發汗시켜 亡陽이 되어서 少陰의 眞武湯症으로 轉變함을 論한 것으로 陽虛한 體質의 太陽病 患者에게 麻黃湯 등의 強發汗劑를 써서 땀은 나고도 病은 풀리지 아니하여 여전히 發熱하고

61) 李培生 : 傷寒論講義, 중국, 호남과학기술출판사, 1986, p.78 ; 動經은 經脈之氣를 傷動했다는 意味이다.

62) 胃脘사이에 痞悶脹滿함을 느끼는 것을 心下滿이라하고 氣가 上逆하는 感覺을 兼有한 것.

63) 李培生 : 傷寒論講義, 중국, 호남과학기술출판사, 1986, p.78

汗出로 裏氣가 弱하여 心下部가 動悸하고 上虛하여 머리는 어지럽고 經脈에 營養液이 모자라 몸이 벌벌 떨리며 全身은 흔들흔들하여 땅에 넘어지려고 하는 症이 생겼으니 이것은 眞武湯의 主治이다.

(方藥) 茯苓三兩 芍藥三兩 白朮二兩 生薑切三兩 附子一枚泡去皮破八片

(方解) 太陽表病에는 發汗해야 하나 誤治로 因해 虛弱해진 사람이 發汗하게 되면 內로 少陰陽氣를 傷하고 病이 不解하게 된다. 陽氣가 內虛하면 虛陽이 外로 浮越하고 發熱하게 된다. 腎은 主水하며 陽氣의 힘을 빌어 蒸化하는데 陽虛로 因해 化氣行水를 하지 못하여 水氣가 泛濫하여 上으로 凌心⁶⁴하므로 心下悸가 되고 清陽을 犯해서 頭目昏眩하게 된다.

《素問·生氣通天論》에 “陽氣者 精則養神 柔則養筋”⁶⁵라 했듯이 陽氣가 虛하면 筋脈肌肉을 溫煦할 수 없으므로 全身이 顫抖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故로 眞武湯을 써서 溫陽化水해야 하는데⁶⁶ 方中에 附子는 辛溫大熱하며 腎陽을 壯하여 化水氣하고 白朮은 苦溫燥濕하여 健脾制水하며 生薑은 宣散하고 附子를 도와 助陽한다. 이는 化氣行水하여 中焦에 있는 水를 散하려는 의도이다. 茯苓은 淡滲하고 白朮을 도와 健脾하면서 利水하고 芍藥은 酸苦微寒으로 斂陰和營하여

附子の 剛燥性을 緩和한다. 즉 眞武湯은 溫陽化氣利水하는 處方이다.

(效能) 溫腎陽 驅寒而利水邪

(主治) 太陽病 發汗 汗出不解 其人仍發熱 心下悸 頭眩 身瞤動 振振欲擗者

治療原則：扶陽散寒利水

配穴：中脘 足三里 列缺 腎俞 京門

此症은 腎陽이 虛해서 頭眩 身瞤하고 眩이 甚하여 振振搖動으로 支持할수 없어 넘어지려고 하는 것이다.

(1) 中脘 足三里 列缺：此穴들은 茯苓 白朮 芍藥에 比喩되어 健脾行氣하여 去水邪한다.

(2) 腎俞 京門：腎의 募穴과 背俞穴을 서로 配合하여 灸를 하는데 二穴은 附子 生薑에 比喩되어 腎陽을 溫하고 鎮水邪한다.

15) 大陷胸湯方 針法

※ 大陷胸湯方 條文

138조 太陽病 脈浮而動數 浮則爲風 數則爲熱 動則爲痛 數則爲虛 頭痛發熱 微盜汗出而反惡寒者 表未解也. 醫反下之 動數變遲 膈內拒痛 胃中空虛 客氣動膈 短氣煩躁 心中懊懣 陽氣內陷 心下因硬 則爲結胸 大陷胸湯主之.

本條는 太陽病의 脈이 浮而動數하면 마땅히 發汗시켜야 할 터인데 醫가 反대로 瀉下시켜서 浮數하던 脈이 沈遲로 變하니 이것은 表邪가 乘虛內陷한 때문이다. 이같이 잘 못 瀉下한 관계로 誘發되는 症을 세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으니 膈內拒痛 短氣 躁煩 心中懊懣한 症은 甘草瀉心湯 및 梔子豉湯證이고 心下硬滿而痛은 大陷胸湯證이며 頭汗出 小便不利 發黃은 茵陳蒿湯證이다.

139조 傷寒六七日 結胸熱實 脈沈而緊 心下痛 按之石硬者 大陷胸湯主之

本條는 傷寒의 太陽病이 誤下에 依하지

64) 金完熙, 崔達永：臟腑辨證論治, 한국, 정보사, 1990, p.186; 心陽이 不振한데다 腎陽까지 虛弱해져서 下焦의 水寒이 制伏되지 못하고 水邪를 形成하여 위로 心을 넘보기 때문에 心悸症狀이 나타나는 것.

65) 王琦外 4인：素問今釋, 중국, 귀주인민출판사, 1981, p.17; 陽氣는 人體에서 매우중요하며 精微之氣로 養神하고 柔和之氣로 養筋한다고 했다.

66) 李培生：傷寒論講義, 한국, 일중사, 1986, p.86

아니하고 六七日만에 結胸證⁶⁷⁾이 된 것을 들어 말하고 있다. 熱實이라 한 것은 寒實 結胸⁶⁸⁾도 있음을 相對해서 말한 것이나 實은 즉 胃家の 實이니 大便不通을 의미한다. 傷寒 六, 七日은 裏로 傳한 實熱을 말한 것이다. 脈이 沈한 것은 邪氣가 裏에 있는 것이고 緊한 것은 裏가 實한 것이다. 心下가 아프고 누르면 단단하기 때문에 結胸이라 하여 大陷胸湯을 써서 맺힌 熱을 없애야 한다.

141조 太陽病 重發汗而復下之 不大便五六日 舌上燥而渴 日晡所小有潮熱 從心下至少腹硬滿而痛不可近者 大陷胸湯主之

太陽病에 重發汗하고 다시 泄瀉시키면 內外로 거둬 津液이 없어지면서 邪熱內結하여 便을 5~6일동안 보지 못하게 되며 혀가 마르고 渴症이 나는 것이다. 日晡潮熱은 胃에 屬한 것이다. 그러나 日晡時⁶⁹⁾에 潮熱이 조금씩 나는 것은 胃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心下에서 少腹까지 단단하고 그득 하면서 아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은 腹의 위와 아래에 邪氣가 모두 甚한 것이다. 大陷胸湯을 써서 邪氣를 몰아내야 한다.

(方藥) 大黃六兩 芒硝一升 甘遂一錢七

(方解) 大陷胸湯은 大結胸을 治療하는 方으로 平素에 陽氣가 偏盛하여 表邪가 傳裏하여 熱로 化하여 胸中에 停留하여 水飲과 더불어 結한 것인데 水熱이 胸膈에 結하면 氣血이 阻滯不通해지므로 心下痛이 생겨 按之即 石硬한다. 여기서 石硬

은 心下肌肉의 緊張이 特히 甚한 것으로 邪結이 비교적 높은 부위에서 생겼기 때문에 胸膈心下가 硬痛한다. 脈沈緊은 大結胸症의 전형적인 脈象인데 沈脈은 邪氣가 裏部에 있음이고 緊脈은 邪實을 의미한다. 脈證이 다 갖추어진 경우 大陷胸湯으로 峻瀉逐水하는데 方中에 甘遂는 峻逐水飲하여 結滯를 破하고 大黃은 瀉熱蕩實 하며 芒硝는 瀉熱하고 軟堅破結하는데 三藥이 합하여져서 瀉熱逐水 破結한다.

(效能) 破堅結 瀉水熱, 水熱結胸攻下峻劑.

(主治) 太陽病 重發汗而復下之 不大便五六日 舌上燥而渴 日晡所小有潮熱 從心下至少腹硬滿而痛不可近 脈沈緊者

治療原則: 開結瀉熱 疏經止痛

配穴: 大椎 列缺 豐隆 內關 支溝 陽陵泉

此症에서 水熱이 胸膈에서 結하므로 硬滿痛이 생기고 手不可近하게 된다. 邪熱內結한即 便秘가 생기고 陰液이 耗傷한 卽 舌上이 渴한다.

(1) 大椎 列缺: 行氣利水하여 甘遂에 比喻된다.

(2) 豐隆 內關: 胸部的 熱을 清瀉한다.

(3) 支溝 陽陵泉: 利氣通便하는데 上記 六穴을 使用하여 利氣 清熱 通便 行水之功으로 破堅結하고 瀉水熱한다.

16) 大陷胸丸方 針法

※ 大陷胸丸方 條文

135조 結胸者 項亦強 如柔瘕狀 下之則和 宜大陷胸丸

結胸病으로 項強한 것은 邪氣가 가슴속에 멎쳐 그득하며 心下가 단단하여 쳐다보기만 하고 구부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項強하여 역시 柔瘕⁷⁰⁾의 症狀과 비슷한 것이다.

67) 朴憲在: 傷寒論概論, 한국, 약업신문, 1991, p.69; 表邪가 內陷하는 과정에서 熱邪가 痰水와 結合해 胸廓部에 結聚된 病變.

68) 結胸證의 한 種類로 寒氣가 胸中에 結聚된 所致이다.

69) 蔡仁植: 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p.108; 日晡時란 午後 四五六時 卽 古代의 未申時를 말한다.

70) 蔡仁植: 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大陷胸丸으로 맺힌 것을 내리고 그득한 것을 없애야 한다.

(方藥) 大黃半斤 葶藶子熬半斤 杏仁去皮尖 炒黑半斤 芒硝半斤

(方解) 本方은 傷寒 結胸證에 項强하며 柔瘕症과 같은 症을 治療하는 足太陽 陽明藥이다. 方中の 大黃은 性이 苦寒하여 泄熱하고 芒硝는 性이 鹹寒하여 軟堅하며 杏仁은 性이 苦甘하여 降氣하고 葶藶과 甘遂는 行水하여 直達하는 作用으로 使用하였고 白蜜은 潤滑하고 甘緩하여 取하였다.

(效能) 治水熱結于上 爲緩攻之方

(主治) 結胸症病位偏上 項亦强如柔瘕狀. 下之則和 治療原則: 瀉熱破結逐水

配穴: 大椎 後谿 內關 列缺 足三里 天樞

此症은 結胸證보다는 比較的 가볍고 病的 位置가 偏上하므로 病的 症勢가 胸部가 緊張되고 項部가 强緊한 것으로 此穴을 使用하여 緩和之法을 써서 胸緊項强을 治療해야 한다.

17) 小陷胸湯方 針法

※ 小陷胸湯方 條文

142조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者 小陷胸湯主之.

心下가 硬痛하고 아파서 手不可近하는 것은 結胸證인데 心下를 누르면 아픈 것은 熱氣가 오히려 열은 것이므로 小結胸이라고 한다. 結胸은 脈이 沈,緊⁷¹⁾하거나 脈이 浮하고 關脈이 沈한데 寸脈이 浮滑⁷²⁾하므로

p.105; 柔瘕狀과 같다는 말은 頭痛은 없고 項强하며 不惡寒하고 頭汗出 한 것을 意味한다.

71) 脈來緊急하고 應指하면 緊張有力하며 左右가 無常한 象이다.

72) 脈搏의 往來가 流利하고 應指하면 圓滑하며 輕取해서 得하는데 表裏俱熱 氣實血壅의 症.

열이 깊이 뭉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小陷胸湯으로 가슴속에 뭉친 열을 풀어야 한다.

(方藥) 黃連一兩 半夏洗半升 瓜蒌實大者一枚

(方解) 傷寒에 誤下하여 小結胸證이 心下에 正在하여 누르면 痛하고 脈이 浮滑한 症狀과 痰熱이 塞胸한 症을 治療하는 方으로 足少陽藥이다. 方中の 黃連은 性이 苦寒하여 泄熱하고 瓜蒌는 性이 寒潤하여 邪氣를 洗滌하고 半夏는 性이 辛溫하여 散結化痰하여 小結胸證을 治療한다. 結胸은 痰熱結聚로 因하여 發現하는 症으로 三藥을 사용하여 除痰去熱 함으로써 結胸證이 治愈된다.

(效能) 清熱滌痰 潤下開結

(主治) 小結胸病 正在心下 按之則痛 脈浮滑者 以及心下結痛 氣喘胸滿者

治療原則: 清熱開癡滌痰

配穴: 內關 豐隆 中腕 梁門 梁丘

此症은 大結胸과 病因은 相同하나 病勢가 비교적 가볍고 病이 胃脘에 局限되어 있으며 不按不痛하다. 邪熱의 結이 沈하지 않은 것이다.

(1) 內關: 心包經의 穴으로써 腹으로 上行하여 胸膈에 이르는 陰維脈⁷³⁾과 通하며 胸利氣하여 心胸部의 熱邪를 清熱한다.

(2) 豐隆: 胃經의 絡穴로 健脾胃하여 消痰한다.

(3) 中腕 梁丘 梁門: 此三穴들은 氣結壅滯된 것에 대해 開結止痛한다.

18) 三物白散方 針法

※ 三物白散方 條文

73) 奇經八脈의 하나로 內踝上方에서 起始하여 頭頂部에 이르는데 有病하면 惡寒發熱의 症이 나타난다.

146조 寒實結胸 無熱證者 與三物小陷胸湯
白散亦可服

여기서 寒實이란 것은 熱實을 相對해 말한 것으로 熱證이 없다는 말이고 寒證이 있는 것도 아니다. 實은 胃家實이란 뜻으로 大便不通을 의미한다. 즉 結胸에 熱證이 없으면서 大便보지 못하는 者는 마땅히 白散을 주어 攻下하고 萬若 熱이 있으면 丸散으로 攻下하는 것은 적당하지 못하니 湯劑로 瀉下시켜야 한다.

(方藥) 桔梗二分 巴豆二分去皮心熬黑破如脂
貝母三分

(方解) 三物白散은 寒實⁷⁴結胸에 使用하는데 初期에 熱이 在表했는데 水寒에 눌러서 不得外泄하고 안으로 몰려 胸膈에 結하면 心下가 硬痛하는데 水寒에 熱이 눌러 邪氣가 實해졌으므로 寒實結胸이라 한다. 無熱證은 겉에 熱이 없고 熱이 다 裏部로 收斂된것이므로 小陷胸湯으로 熱을 아래로 몰아내야 한다. 이때 白散도 熱을 내리므로 亦是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方中에 巴豆는 大辛大熱하여 瀉下冷積 散寒逐水하여 破結의 主藥이고 貝母는 鬱結之痰을 解하며 桔梗은 肺氣를 開提하여 載藥上行하는데 三藥이 合用하여 溫下寒實하고 滌痰破結하는 方이 된다.

(效能) 化水寒 破結實

(主治) 寒實結胸無熱證者

治療原則: 溫下寒實

配穴: 膻中 內關 脾俞 氣海 足三里

- (1) 膻中: 膻中穴에 灸를 하여 攻寒逐水하며 巴豆에 比喩된다.
- (2) 內關 脾俞: 內關은 上部熱邪를 淸利하면

서 脾俞穴과 함께 祛痰開胸한다.

- (3) 氣海 足三里: 益氣健脾로 祛痰하며 桔梗에 比喩된다.

19) 大黃黃連瀉心湯方 針法

※ 大黃黃連瀉心湯方 條文

159조 心下痞 按之濡 其脈關上浮者 大黃黃連瀉心湯主之.

本條는 熱痞의 證治에 대하여 설명한 것으로 心下가 硬하고 누르면 아프고 關脈이 沈한 것은 實熱이고 心下가 더부룩하고 누르면 柔軟하고 關脈이 浮한 것은 虛熱이므로 大黃黃連瀉心湯을 사용하여 虛熱을 없앤다.

169조 傷寒大下後 復發汗 心下痞 惡寒者 表未解也 不可攻痞 當先解表 表解乃可攻痞. 解表 宜桂枝湯;攻痞, 宜 大黃黃連瀉心湯

本條는 解表攻痞의 先後證治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크게 泄瀉시킨뒤에 다시 嘔을 내면 表裏의 邪氣가 응당 없어졌어야 할 것인데 心下가 더부룩하고 惡寒 하는 것은 表裏의 邪氣가 다 풀리지 않은 것이다. 表邪가 풀리지 않았는데 下시켜 心下痞가 된 것인데 먼저 桂枝湯으로 表邪를 풀고 表邪가 풀린 다음 大黃黃連瀉心湯으로 心下痞를 治療한다. 內經에 從外之內로 內에서 盛한 것은 그 밖을 治療한 뒤에 그 속을 調和시킨다고 하였다.

(方藥) 大黃二兩 黃連一兩(又方有黃芩)

(方解) 本方에서 心下가 痞하여 按하면 濡하고 硬하지 않으니 이것은 內陷의 邪가 無形의 氣로 더불어 結聚하여 散하지 않음인 것이고 脈이 浮하여 關 以上에 在한⁷⁵것은 그 勢가 가장 高한 것이므로

74) 蔡仁植: 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p.112; 寒實은 膈間에 平素부터 寒涎이 있고 內陷한 邪氣와 相結하여 實이 된 것이다.

75) 蔡仁植: 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p.122; 脈의 關上浮는 陽邪이고 浮는 在上을 爲主하고, 關은 中焦를 보고, 寸은 上焦로 보아 邪熱이 中焦인 胃에 있으므로 關上이 浮

이것은 君火가 上으로 亢盛하여 能히 下로 陰에 交하지 못한 것이므로 上焦君火의 化함에 感하여 熱痞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方中에 大黃 黃連의 大苦 大寒함을 用하여 下降케 함으로써 한 것이니 火가 降하므로 水도 스스로 上升하여 또 한 痞를 治療하는 것이다.

(效能) 清熱 泄痞 開結

(主治) 胃脘痞滿 按之柔軟 煩燥 口乾渴 舌紅苔黃 關脈見浮

治療原則：清降火熱 益陰生津

配穴：中脘 內關 豐隆 尺澤

- (1) 中脘 內關：中脘 內關은 黃連에 比喩되며 心胸部의 熱을 清利하여 除痞한다.
- (2) 豐隆 尺澤：豐隆穴은 降下시키고 尺澤穴을 放血하여 清熱시키는데 此二穴은 大黃에 比喩되어 開結散熱한다.

20) 附子瀉心湯方 針法

※ 附子瀉心湯方 條文

160조 心下痞 而復惡寒汗出者 附子瀉心湯主之

本條는 熱痞兼表陽虛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心下痞⁷⁶⁾는 虛熱이 속에 있는 것이고 惡寒 汗出하는 것은 陽氣가 表虛한 것이므로 瀉心湯으로 心下痞를 治療하고 附子를 넣어 陽氣를 固陽한다.

(方藥) 附子一枚 炮去皮別煎取汁 大黃二兩 黃芩二兩 黃連二兩

(方解) 本方은 溫經扶陽 泄熱消痞하는데 心下痞는 虛熱이 속에 있는 것이고 惡寒 汗出은 陽氣가 表虛한 것이므로 瀉心湯을 써서 痞證을 治療하고 여기에 附子를 넣어 陽氣를 固陽해야 한다. 本方은 大

하다고 한 것이다.

76) 朴憲在：傷寒論概論， 한국， 약업신문， 1991， p.78；心下痞는 胃脘部가 痞塞해서 飲食物의 流通이 不便하게 느껴지는 病症이다.

黃黃連瀉心湯(혹은 加黃芩)에 附子를 가해 이루어진 것으로 上部熱邪를 清瀉하고 消痞하는데 四藥이 合用하여 泄熱消痞하고 扶陽固表한다.

(效能) 扶陽瀉痞 溫經清熱

(主治) 胃脘痞滿 惡寒 自汗

治療原則：交通心腎 扶陽消痞

配穴：中脘 天樞 氣海 大椎 腎俞

此症의 痞滿은 熱痞와 原因은 同一하나 兼하여 冷症과 汗出의 症狀이 있다.

이것은 邪熱이 有餘하고 陽이 不足한 것으로 그 症은 邪實而正虛한 것이다.

- (1) 中脘 天樞 氣海：此穴들은 大黃 黃芩 黃連에 比喩되어 泄熱消痞한다.
- (2) 大椎 腎俞 氣海：此穴들을 灸를 하여 溫經回陽시키는데 이는 附子에 比喩된다.

21) 生薑瀉心湯方 針法

※ 生薑瀉心湯方 條文

162조 傷寒汗出 解之後 胃中不和 心下痞硬 乾噦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者 生薑瀉心湯主之

本條는 汗出後解 胃不和와 脇下有水氣가 發生하는 痞症의 治法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胃는 津液을 主管하고 陽氣의 根本이다. 大汗出 後 外로 亡津液하여 胃中空虛하고 客氣上逆하여 心下가 痞硬한다. 中焦氣運이 고르지 못하면 不能消穀하므로 트림을 하는데 트림하는데 乾噦食臭⁷⁷⁾者는 胃虛로 飲食을 消化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다. 脇下에 水氣가 있고 腹中雷鳴⁷⁸⁾하는 것은 土弱하여 勝水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瀉心湯을 써서 痞氣를 治療하는데 生薑을 넣어 胃氣를 도와준다.

77) 李培生：傷寒論講義， 중국， 호남과학기술출판사， 1986， p.122；噦氣中에 飲食物의 腐한 氣味가 나는 것을 말함.

78) 腹中에 漉漉有聲이 있음을 形容한 말이다.

(方藥) 生薑四兩 甘草三兩 人參三兩 乾薑一兩 黃芩三兩 半夏半升 大棗十二枚 黃連一兩

(方解) 本方은 半夏瀉心湯에서 乾薑의 用量을 減하고 生薑을 加하여 構成된 處方으로 散水治利하고 和胃消痞하는 效能이 있어 水熱이 互結되어 胃中이 不和하고 心下가 痞硬하며 腐臭가 나는 噯氣 腹中雷鳴下利等의 症狀을 治療한다.

(效能) 健脾和胃 消痞化水

(主治) 胃脘痞硬 乾噯食臭 脇下有水氣 腹中雷鳴 下利 治療原則: 運調升降 散水消痞

配穴: 中脘 內關 足三里 陰陵泉 脾俞 胃俞 此針은 胃虛 水熱痞를 治療하는 針法으로,

(1) 中脘 內關 足三里 陰陵泉: 此穴들은 補益脾胃하여 行氣化水 하는데 生薑 甘草 人參 乾薑 大棗에 比喩된다.

(2) 脾俞 胃俞: 瀉法을 써서 清熱和胃하고 散痞하는데 黃連 半夏에 比喩된다.

22) 甘草瀉心湯方 針法

※ 甘草瀉心湯方 條文

163조 傷寒中風 醫反下之 其人下利日數十行 穀不化 腹中雷鳴 心下痞硬而滿 乾嘔 心煩不得安. 醫見心下痞 謂病不盡 復下之 其痞益甚 此非結熱 但以胃中虛 客氣上逆 故使硬也 甘草瀉心湯主之

本條는 胃中虛 客氣上逆으로 誘發된 痞의 證治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傷寒中風은 傷寒證이나 中風證을 말한 것이다. 邪氣在 表한데 醫反下之하여 腸胃⁷⁹⁾를 虛하게 하면 氣運이 속으로 들어간다. 下利를 하루에 數十回하여 穀不化하고 腹中雷鳴하는 것은 泄瀉한 뒤에 속이 虛해지고 胃가 弱해진 것이다. 心下가 더부룩하고 단단하며 乾嘔가 나

므로 瀉心湯을 써서 痞症을 治療하고 甘草를 넣어 虛한 것을 補해야 한다. 卽 下後에 胃가 虛해진 것으로서 內로 陰氣를 損傷했기 때문에 甘草를 넣은 것이다

(方藥) 甘草四兩 黃芩三兩 乾薑三兩 半夏半升 黃連一兩 大棗十二枚

(方解) 本方은 半夏瀉心湯에 炙甘草의 用量을 倍로하여 構成된 處方으로 胃氣가 虛弱하여 氣結成痞하게 되어 飲食이 不化하고 腹中雷鳴下利하며 心下가 痞硬하고 滿悶乾嘔 不安焦燥한 症狀을 治療한다.

(效能) 補胃降逆 消痞除煩

(主治) 心下痞硬 乾嘔 心煩不得安

治療原則: 和中降逆消痞

配穴: 中脘 內關 足三里 攢竹

(1) 中脘 內關: 此穴들로 補益胃氣하며 甘草 大棗 乾薑에 比喩된다.

(2) 足三里 攢竹: 此穴들은 降逆止嘔하는데 이는 半夏에 比喩되고 또 內庭에 瀉法을 써서 泄胃除煩하는데 이는 黃連에 比喩된다.

23) 半夏瀉心湯方 針法

※ 半夏瀉心湯方 條文

154조 傷寒五六日 嘔而發熱者 柴胡湯證具而以他藥下之 柴胡證仍在者 復與柴胡湯 此雖已下之 不爲逆 必蒸蒸而振 却發熱汗出而解. 若心下滿而硬痛者 此爲結胸也 大陷胸湯主之 但滿而不痛者 此爲痞 柴胡不中與之 宜半夏瀉心湯

本條는 小柴胡湯 大陷胸湯 半夏瀉心湯의 不同한 適應症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傷寒 五六日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는 때인데 嘔而發熱하는 것은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는 것이므로 이것이 柴胡湯證이 具備된 것인데 他藥으로 泄瀉시켜도 柴胡湯證이 없어지지 않은 것은 逆症⁸⁰⁾이 되지 않은 것이

79) 胃腸을 包含하여 小腸 大腸 膀胱等 消化器系 全體를 가르키는 말이다.

다. 再次 柴胡湯을 쓰면 낫는다. 萬若 下後에 裏部에 들어간 邪氣가 半表半裏에 있으면 陰과陽 모두에 邪氣가 있을 수 있고 下後에 邪氣가 裏에 傳할지라도 陰邪, 陽邪가 다르게 전한다. 萬若 下後에 陽邪가 裏에 傳하면 胸中에 邪氣가 結하여 結胸이 된다. 그것은 胸中은 陽이 氣運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大陷胸湯을 써서 뭉친 것을 내려야 한다. 만일 陰邪가 裏에 傳하면 心下에 머물러 痞氣가 된다. 心下는 陰이 氣運을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半夏瀉心湯을 써서 그 痞氣를 통하게 해야 한다.

(方藥) 半夏半升 黃芩 乾薑 人蔘 甘草各三兩 黃連一兩 大棗十二枚擘

(方解) 本方은 小柴胡湯을 誤下하여 心下痞가 생겼을 경우에 活用하는데 中氣의 損傷으로 升降作用을 하지 못하면 發熱이 있고 上으로는 嘔吐가 있고 下로는 腸鳴 下利가 있다. 半夏 黃芩 人蔘 甘草 生薑 大棗는 小柴胡湯에서 君藥인 柴胡를 去한 것으로써 本方의 症狀이 寒熱往來가 없으므로 君藥인 柴胡를 去하여 使用하였고 여기에 乾薑 黃連을 加한 方劑로 볼 수 있다. 小柴胡湯의 四大症狀⁸⁰⁾中에서 胸脇苦滿 心煩喜嘔 不欲飲食은 柴胡를 去한 小柴胡湯으로 治할 수 있으며 半夏 乾薑은 止嘔溫中하는 作用을 하고 黃芩 黃連은 大黃이 去해진 瀉心湯으로 心下痞를 治할 수 있다. 이 半夏瀉心湯은 小柴胡湯에서 柴胡를 去하고 半夏를 君으로 하여 大黃이 去해진 瀉心湯을 合하고 乾薑을 加한 方劑로 볼 수 있다.

(效能) 辛開苦降 和中開痞

80) 病症이 一般規律대로 發展하지 않고 突然 嚴重하게 變하여 惡化될 趨勢가 있는 것을 말한다.

81) 寒熱往來 胸脇苦滿 心煩喜嘔 默默不欲飲食.

(主治) 胃脘痞滿 心煩 惡心 嘔吐 噎氣 腸鳴 大便不調 舌紅苔白膩

治療原則：疏經降逆 建中消痞

配穴：中脘 氣海 公孫 內關 足三里 內庭

- (1) 中脘 氣海：此穴들은 任脈의 穴로 灸를 하여 補脾胃하는데 人蔘 乾薑 甘草 大棗에 比喩된다.
- (2) 公孫 內關：公孫은 脾經의 穴로 補脾胃하고 內關은 心包經의 穴로 上部胸熱을 淸熱하여 痞熱을 瀉하는데 黃芩 黃連에 比喩된다.
- (3) 足三里 內庭：此穴들은 足陽明胃經의 穴들로 瀉法을 써서 降逆止嘔하고 이는 半夏에 比喩된다.

24) 旋覆代赭湯方 針法

※ 旋覆代赭湯方 條文

166조 傷寒發汗 若嘔 若下 解後 心下痞硬 噎氣不除者 旋覆代赭湯主之

이 條의 證은 生薑瀉心湯證에 比하여 泄瀉가 없으나 역시 心下가 痞硬하고 噎氣가 있으니 生薑瀉心湯의 主治이다. 그러나 生薑瀉心湯을 服用하여도 噎氣가 除去되지 아니한 患者에게는 旋覆代赭石湯으로 主治해야 한다는 것이다.

(方藥) 旋覆花三兩 代赭石一兩 人蔘二兩 甘草三兩 半夏半升 生薑五兩 大棗十二枚

(方解) 旋覆代赭湯은 胃虛한 患者가 痰飲을 수만한 外에 肝氣上逆⁸²⁾해서 生한 心下痞症을 治療하는데 太陽病을 誤治에 속하는 催吐 瀉下하여 胃氣가 더욱 虛해지고 이때 肝氣乘之⁸³⁾하는데 이는 脾胃로 하여금 水穀을 消化運輸하는 本래의 機

82) 肝氣가 지나치게 鬱結하여 위로 上升하여 下降하지 못하는 것으로 眩暈頭痛 胸脇苦悶 面赤耳聾하고 甚하면 嘔吐한다.

83) 肝氣의 鬱結된 邪氣가 相克關係인 胃腸이 弱해진 틈을 타서 侵犯하는 症狀.

能을 阻礙하여 水穀의 精氣로 하여금 營衛의 本源으로 化生시키지 못하고 痰飲으로 化生시킨다. 이렇게 生成된 痰飲이 氣의 流通을 不完全하게 만들어 心下에 痞塞한 상황에서 上逆한 肝氣는 계속 下降하지 못하므로 噯氣가 계속 나오는 것이다. 本方은 旋覆花 代赭石 人蔘 生薑 半夏 炙甘草 大棗에 의해서 構成되고 있다. 이 중 旋覆花는 消痰飲하며 上逆한 氣를 下降시키고 結聚된 邪氣를 解散시킨다. 代赭石은 肝氣逆上을 重鎮降逆시키는 效能이 있으므로 兩者를 배합하여 逆上한 氣를 下降시키고 噯氣를 治療한다. 또 人蔘 甘草 大棗는 氣血을 補益해서 中焦之氣를 補扶함으로써 運化機能을 促進시키고 津液을 지체없이 全身에 循環시킨다. 이렇게 함으로써 消痰飲과 通氣流通으로 心下痞 噯氣등을 治療할수 있게 된다.

(效能) 和胃降逆 益氣鎮肝

(主治) 心下痞硬 噯氣不除

治療原則 : 調肝理氣 和胃消痞

配穴 : 此方은 胃虛痰濁氣阻로 인한 噯氣 惡心嘔吐에 사용하고 常用的으로 慢性胃炎 胃下垂 胃潰瘍등을 治療할 때 使用한다. 鍼治療時에는 任脈의 穴인 上脘 中脘 下脘과 內關 豐隆을 이용해서 和胃降逆시키고 止嘔한다. 즉 下脘에서 足太陰脾經과 만나고 中脘에서 手太陽 手少陽 足陽明經과 만나고 上焦病의 治穴이나 胃痛 胃痙攣 胃潰瘍을 治療하는 上脘을 配合하여 健脾和胃 시켜 降逆한다. 內關은 上部熱邪를 清熱하고 豐隆은 足陽明胃經의 穴으로써 中脘과 함께 祛痰之要穴이 되어 胃虛로 생긴 痰을 除去한다.

25) 桂枝附子湯方 針法

※ 桂枝附子湯方 條文

179조 傷寒八九日 風濕相搏 身體疼煩 不能自轉側 不嘔 不渴 脈浮虛而澁者 桂枝附子湯主之.

本條는 上熱下寒한 病機의 證候와 治法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傷寒이나 中風이 7~8일이 되어 再次 傳經할때에는 邪氣가 흔히 裏部에 있으므로 身體가 아프지 않을 것인데 지금 여러 날 되어 몸이 아프고 煩熱⁸⁴⁾이 나며 不能轉側하는 것은 風과 濕이 相搏한 것이다. 煩者는 風이고 身疼하여 不能轉側하는 것은 濕이다. 經에 風證은 脈이 浮, 虛하다 했고 脈이 澁⁸⁵⁾한 것은 寒과 濕에 傷한 것이라고 하였다. 不嘔不渴한 것은 裏에 邪氣가 없는 것이고 脈이 浮, 虛하고 澁하면서 몸이 몹시 아프고 괴로운 것으로써 風과 濕이 經絡에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桂枝附子湯으로 表에 있는 風과 濕을 없애야 한다.

(方藥) 桂枝四兩 附子泡三枚 大棗十二枚 生薑三兩 甘草二兩

(方解) 本方은 風濕이 經絡에 流入함으로써 된 症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方中の 桂枝로써 그 表에 在한 風을 散하고 附子로써 그 經에 在한 濕을 驅逐하며 生薑과 大棗 甘草로써 營衛를 行하게 함과 아울러 津液을 通하게 하는 것이니 이와 같이 調和하여 作用하므로 곧 身疼의 諸症이 自解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方을 自汗漏出이나 發汗過多로 因한 惡寒과 尿不利 또는 四肢의 屈伸이 不利하여 굳은 것 같은 느낌이 있는 者에게 使用한다.

84) 發熱과 同時에 心煩 或은 煩躁症이 있어서 悶熱한 感覺이 생기는 것을 모두 말한다.

85) 脈搏의 往來가 어렵고 끝끝하며 遲滯不暢한 脈象이다.

(效能) 祛風勝濕 從表解邪

(主治) 傷寒八九日 風濕相搏 身體疼煩 不能自轉側 不嘔 不渴 脈浮虛而澁

治療原則：健脾胃調二便 散風濕止疼煩

配穴：大椎 風池 脾俞 腎俞 足三里 三陰交 承山 風市 陰市

- (1) 大椎 風池：此穴을 사용하여 解肌 通經 調營衛하는데 桂枝에 比喩된다.
- (2) 脾俞 腎俞：脾俞 腎俞에 灸를 하여 溫補 脾腎하며 附子에 比喩된다.
- (3) 足三里 三陰交 承山：此穴들로 健脾化濕 하는데 甘草 生薑 大棗에 比喩된다
- (4) 風市 陰市：此穴로 祛風通絡하여 下肢의 麻痺 寒痺症을 治療한다.

26) 甘草附子湯方 針法

※ 甘草附子湯方 條文

180조 風濕相搏 骨節疼煩 掣痛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短氣 小便不利 惡風不欲去衣 或身微腫者 甘草附子湯主之

本條는 風濕留於關節의 證治에 대하여 說明한 것으로 여기서 風濕相搏이란 그 患者가 본래 濕邪가 있는데 새로 風邪를 感冒하여 風邪와 濕邪가 相搏한 原因을 들어 말한 것이다. 骨節疼煩은 즉 關節痛인데 濕邪가 關節로 流注하기 때문이다. 關節의 疼痛이 激甚하므로 당기며 屈伸을 임의로 못하고 손을 대어 만지면 疼痛이 더 甚해진다. 風과 濕이 서로 모이며 壓迫하므로 汗이 나고 風濕邪의 衝逆으로 深呼吸를 하지 못하고 淺表呼吸하게 되어 急迫하므로 숨이 빨라져서 短氣⁸⁶⁾하며 水氣인 濕邪의 壅滯로 氣化의 調節 障礙를 받아 小便이 不利하며 보통의 惡風보다 조금 重하여 衣被를 벗고자 아니한다. 이상과 같은 症에 浮腫이 있기도 하니 甘草附子湯으로 散濕하고 衛氣를 튼튼

86) 呼吸이 短促하고 接續이 잘 안된다는 뜻.

히 해야 한다.

(方藥) 甘草二兩 白朮二兩 桂枝四兩 附子二枚炮

(方解) 本方은 白朮附子湯(白朮二兩 甘草一兩 附子一枚)에 桂枝를 加하고 生薑과 大棗를 不用하면 甘草附子湯이라 名하여 風과 濕이 相搏하여 一身이 煩痛하고 汗出 惡風해서 小便이 不利하여 或身微腫을 治한다.

(效能) 除濕調氣 散風邪 振陽氣

(主治) 風濕相搏 骨節疼煩 掣痛不得屈伸 近之則痛劇 汗出短氣 小便不利 惡風不欲去衣 或身微腫

治療原則：溫陽化濕祛風 舒筋利節止痛

配穴：大椎 風池 脾俞 肝俞 腎俞 足三里 三陰交 陰陵泉

此方은 風濕이 背關節에 侵入한 것으로 風濕을 治하는 處方으로,

- (1) 大椎 風池：此穴로 解肌通絡하고 調和營衛하여 祛風하여 膀胱經氣를 疏調한다.
- (2) 脾俞 腎俞 肝俞：膀胱經의 背俞穴로 脾俞 腎俞穴에 灸를 하여 溫補脾腎하고 肝俞穴에 灸를 하여 養血柔肝⁸⁷⁾으로 養筋하고 膀胱經을 疏通하여 濕濁⁸⁸⁾을 없앤다.
- (3) 足三里 三陰交 陰陵泉 陽陵泉：脾胃經의 穴으로써 健脾化濕하고 足少陽膽經의 穴이고 筋之會인 陽陵泉으로 舒筋利節하여 骨節疼煩을 治療한다.

4. 太陽病 各處方과 鍼灸治療의

87) 肝陰虛(肝血不足)를 治療하는 方法으로 肝이 血의 營養에 依存하므로 養血之品을 攄으로 肝이 營養을 얻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88) 濕氣를 말하는데 濕은 性質이 重濁 粘膩하므로 언제나 病位에 停留하여 輕淸한 陽氣의 活動을 阻礙하므로 濕濁이라 한다.

相應關係

1) 桂枝湯方 針法

桂枝湯의 症狀은 太陽中風證으로 크게 땀 내는 것이 不可하므로 治療原則도 發汗解肌 調和營衛인데 桂枝湯證의 鍼灸配列은 健胃 調和營衛으로 太陽經(申脈, 京骨) 少陽經(風池) 督脈(大椎)의 穴을 使用하여 外感의 邪氣를 驅風하는데 京骨과 申脈은 膀胱經의 經穴로 太陽經의 邪氣를 驅風하고 風池⁸⁹⁾는 足少陽과 主陽主表하는 陽維脈의 會로써 表邪를 疏解하고 鎮痛止寒熱한다. 大椎⁹⁰⁾穴은 人體의 手足三陽經과 督脈이 이 穴에 모여서 通陽主表하고 幹線營衛한다. 그리고 陽明經(足三里, 曲池)의 穴을 使用하여 內部の 營衛를 調和시키는데 足三里穴은 胃經의 合穴로써 肺主皮毛하는 肺經이 中焦에서 起하므로 中焦를 補하고 益胃氣血 하여서 土足 金生케 하여 肺氣가 充足한 卽 益氣固表한다. 曲池穴은 清熱에 使用하며 足三里穴과 함께 腸胃를 補한다.

2) 桂枝加葛根湯方 針法

이 方은 桂枝湯에 葛根을 君藥 으로 하여 項背部的 強直性痙攣을 主治하는데 여기서 項背強几几는 體液이 上部로 通達하지 못한 것으로 項背의 經脈이 拘急하여서 強急한 것인데 風寒이 外束하고 經氣가 不舒하며 津液이 阻滯되어 散布되지 못한 것이므로 針治療의 原則은 解肌⁹¹⁾生津을 主로 하는데

89)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564, 565; 風池는 邪氣가 侵入하여 邪氣留滯한다는 穴로 手足少陽과 陽維脈의 交會穴로 疏風解熱하고 聰耳明目한다.

90)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65; 大椎穴을 百勞라고도 하며 陽經絡은 전부 大椎穴에서 會한다. 針灸甲乙經에서는 大椎穴을 三陽과 督脈의 會라고 했으며 解表 通陽, 清腦寧神의 效能이 있다.

桂枝湯症狀이 있으므로 桂枝湯方 針穴(大椎 風池 足三里 曲池)에 絶骨 後谿 大杼 筋縮을 加했는데 絶骨은 足少陽膽經의 穴로 項背部를 通過하고 升津하여 通經하며 後谿는 督脈과 通하고 散寒通經하여 項背強几几를 治療하고 大杼 天柱 筋縮은 膀胱經의 背俞穴로 督脈과 通하므로 筋肉의 強急을 緩和하고 解肌生津의 效能이 있다.

즉 桂枝湯方 針穴로 發汗解肌 調和營衛⁹²⁾를 시키고 項背強几几⁹³⁾를 治療하기 위하여 督脈과 相通하는 手太陽小腸經의 後谿 膀胱經의 背俞穴(大杼 天柱 筋縮)을 選擇하고 體內的 津液을 背部로 升津하여 通經하는 足少陽膽經의 絶骨穴을 取한 것이다. 여기서 督脈과의 相關性은 難經 二十九難에 督脈에 病이들면 脊強과 昏厥이 나타난다고 한 것⁹⁴⁾에서 찾을 수 있다.

3) 桂枝加厚朴杏子湯方 針法

本方은 平素 喘證이 있는 患者가 桂枝湯證 症狀이 發했을 경우를 治療하는 處方으

91) 外感證의 初期에 有汗한 경우를 治療하는 方法으로 땀이 약간 날 정도로 發汗하는 방법.

92) 朴憲在 : 傷寒論概論, 한국, 약업신문, 1991, p.30; 太陽中風의 病理를 傷寒論에서는 營弱 衛強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衛強’은 精氣에 屬하는 衛氣가 風寒이라는 邪氣를 맞아 表에서 抗爭하므로써 發熱惡寒, 脈浮等の 抵抗現象이 나타난다는 것이지 絶對로 衛氣가 強盛해진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營弱’은 衛氣가 固攝치 못하면 營陰이 內守치 못하기 때문에 自汗出하는 것이다. ‘衛強’에 대해서 相對的으로 ‘營弱’이라는 表現을 쓰고는 있으나 實質的으로 營陰이 虛弱하다는 뜻은 아니다.

93) 朴憲在 : 傷寒論概論, 한국, 약업신문, 1991, p.34; 几几는 短翼한 새가 地上에서 날려고 하는 모습, 즉 날려고 해도 短翼한 관계로 飛翔은 되지않고 해서 목을 길게 뽑아 버둥대는 모양을 形容하는 것이다.

94) 朴旻著 : 國譯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攷附脈訣攷證, 한국, 대성문화사, 1992, p.188

로 喘症이란 風이 甚하여 氣가 阻塞되어 疏通이 되지 않으면 發生하므로 治療原則도 解肌降逆하여 定喘해야 하는데 處方에서는 桂枝湯으로 調和營衛하고 解肌하는 同時에 厚朴으로 寬胸하고 杏仁으로 宣降肺氣하여 治療하는데 針治療에서는 桂枝湯方針穴(大椎 風池 足三里)에 宣肺에 重點을 두어서 是動病⁹⁵⁾에 喘咳가 있는 手太陰肺經의 穴인 列缺 魚際와 胃之別絡인 豐隆을 加하는데 豐隆은 胃經의 別絡으로 太陰肺經으로 別走하고 清熱의 效能이 있고 列缺은 宣肺定喘하며 魚際穴은 肺經의 井穴로 表證의 喘咳를 主治한다. 여기서 豐隆穴은 그 性이 厚朴의 降逆에 比喩되고 列缺은 杏仁의 寬에 比喩된다.

4) 麻黃湯方 針法

麻黃湯은 太陽傷寒證 卽 外感風寒表實證을 治療하는 處方인데 이는 寒邪가 表를 外束하여 正邪가 相爭하여 發生하는 頭痛發熱 身疼腰痛 惡風無汗而喘을 治療하는데 發汗宣肺의 治法으로 寒邪를 除去하고 閉鬱된 肺氣를 宣暢시키는데 方中の 麻黃은 發汗解表하여 風寒을 散하고 肺氣를 利하여 止咳平喘하므로 君藥이 되고 桂枝는 發汗解肌하고 溫經散寒하여 麻黃의 發汗解表를 돕고 身體疼痛을 除去하므로 臣藥이고 杏仁은 肺氣를 宣暢하여 麻黃의 平喘作用을 도와 佐藥이 되며 炙甘草는 諸藥調和로 使藥이 된다.

鍼治療 原則은 發汗解表 降逆平喘으로 督脈과 膀胱經의 經穴로 發汗解表하여 寒邪를

驅逐하고 肺經과 膀胱經의 背俞穴(肺俞)을 이용해 宣肺發表而平喘하는데,

大椎穴은 督脈의 穴으로써 疎解表邪하고 曲池穴은 大椎穴과 함께 清熱行氣 시킨다.

後谿穴은 通督脈하여 散寒解表하고 大杼 風門 此穴들은 膀胱經의 穴로 寒邪로 鬱滯된 表部를 發表汗出한다. 列缺 喘息穴은 各各 宣肺氣 降氣定喘하고 肺俞穴은 背部의 經氣를 疏通 시키면서 平喘한다.

5) 大青龍湯方 針法

大青龍湯은 傷寒이 不汗出해서 表邪가 不解하고 陽氣가 體內에서 鬱滯하여 內熱한데서 形成된 表寒兼內熱의 症이다. 이 症은 發汗을 해야 하는데 發汗을 하지 않아서 衛陽은 表寒의 阻塞하는 作用에 의해 蟄閉되고 鬱滯內熱하면 內熱妄行의 所致로 煩躁狀態가 된다 즉 條文中에서 不汗出而煩躁 라고 한 것은 이 煩躁가 不汗出로 因한 陽氣內鬱해서 宣散하지 못한데서 起因한 것임을 지칭한 것이다. 本證은 外寒에 內熱을 兼한 證이므로 麻黃湯으로서는 表寒과 內熱을 함께 治療할 수 없기 때문에 大青龍湯으로서 外로는 風寒을 解散하고 內로는 煩熱을 清解하지 않으면 안된다. 本方은 麻黃湯의 麻黃을 2배로 하고 여기에 生薑 大棗 石膏를 加하여 成立된 方이다. 方中の 麻黃을 增量하고 桂枝 生薑의 協力을 얻어 發汗解表를 促進시키고 있다. 杏仁을 사용해서 肺氣를 이롭게 하고 麻黃의 宣發作用을 돕는다. 辛甘하면서도 大寒한 石膏를 肌表의 邪氣를 解散하는 麻黃에 配合해서 陽氣의 鬱肺됨을 열어주고 아울러 清熱除煩한다. 甘草와 大棗는 胃氣를 中和해서 正氣를 補扶하므로 發汗에 의한 消耗를 보충한다. 大青龍湯은 ‘不汗出而煩躁’한 表寒內熱症을 治療하는데 사용되는 處方이긴하나 이것은 본 處方適應

95)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鍼灸學(上), 한국, 집문당, 1991, p 103

是動病은 邪氣가 經脈의 氣分에 들어와 正氣運行을 阻滯시키므로써 氣의 異常變動으로 말미암아 發生되는 病으로 經絡의 病變이고 그 經絡自體의 原發性인 것을 말한다.

의 한 분야만을 설명한 것으로 다른 症候에도 본 處方을 적용시킬 경우도 있다. 그것은 不汗出하여 陽氣가 鬱滯해서 發散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肌表에서의 體液도 凝滯해서 流通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陽氣가 鬱滯하면 體液의 循環이 순조롭지 못해서 水滯現狀이 되기 때문에 脈은 緊에서 緩으로 變하고 同時에 全身의 沈重感和 함께 腫痛을 兼하기도 한다. 或은 四肢가 沈重하기도 하고 四肢의 關節이 腫痛하기도 한 경우에 大靑龍湯을 服用하면 發汗에 의해서 水邪가 排泄되어 治愈되는 것이다. 이에 針灸治療原則도 發表清熱除煩인데 太陽表實로 汗不得出해 內鬱로 煩躁가 生한것이므로 足太陽膀胱經의 郄穴⁹⁶⁾인 金門을 取해 陽鬱을 清熱시키고 여기에 諸陽之會인 大椎를 配合해 諸陽經氣를 疏通시키며 宣表發汗한다. 여기에 手陽明大腸經의 原穴인 合谷으로 陽明熱을 清瀉하고 開閉宣竅한다. 이 合谷穴과 함께 三焦經의 絡穴인 外關을 配合하여 三焦를 清利시켜 疏經活絡하여 除煩하는데 이 四穴을 瀉法을 使用하여 開腠理하고 鬱熱을 瀉하며 止煩躁한다. 또 內關 足三里穴을 써서 上中焦의 熱實을 瀉한다.

6) 小靑龍湯方 針法

小靑龍湯은 氣管支炎 氣管支喘息 呼吸困難을 目標로하며 一般的으로 心下有水氣가 目標가 된다. 本方은 麻黃湯에서 杏仁을 去하고 白芍藥 五味子 半夏 細辛 乾薑을 加한 方劑로 麻黃 桂枝는 發汗解表 宣肺平喘하니 主藥이 되고 乾薑 細辛은 溫肺散寒 하고 水飲을 化하며 五味子は 斂肺止咳⁹⁷⁾하니 肺氣耗散太過의 弊를 防止한다. 이 三者를 合用

한 것은 散中에 收斂하는 것으로 開闔을 并施한 것이며 半夏는 燥濕祛痰하고 白芍藥은 和營하는데 桂枝와 用하여 能히 調和營衛하며 甘草는 諸藥을 調和한다 本方의 治療原則은 表邪를 散하고 水飲을 逐하는 것으로 針灸配列은 督脈으로 外邪를 發散하는 同時에 肺 胃經의 穴을 使用하여 宣肺하고 益胃시킨다.

大椎 後谿 列缺 此穴들은 發散外寒하고 桂枝 麻黃 甘草之功에 比喩되고 喘息 肺愈穴은 宣肺氣驅除內飲하며 細辛 乾薑 芍藥 五味子에 比喩된다.

中腕穴은 胃經의 募穴로 腑會穴이면서 振陽益胃 利氣化痰하고 脾經의 原穴인 太白穴은 健脾利濕하고 胃腸을 通調한다.

7) 葛根湯方 針法

太陽病經證에서 風邪가 所中된 中風으로 太陽膀胱經의 流走가 不利해져서 “項背强几几 反汗出惡風”의 症候가 出現하면 이는 ‘太陽表虛兼經俞不利症’이므로 이에 桂枝加 葛根湯으로 治療해야 한다. 만약 寒邪에 所傷된 傷寒인 경우 “項背强几几 無汗惡風”의 症候가 나타나는 것은 ‘太陽表實兼經俞不利症’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에 葛根湯을 사용해서 治療해야 한다. “太陽病 項背强几几”한 것은 같다 하더라도 中風과 傷寒이라는 兩病은 그 本質的인 성격상 表虛와 表實이라는 對照的인 差異가 있어서 慎重한 鑑別을 要한다. 그 鑑別의 要點은 有汗과 無汗이라는 對照的인 症候에 있다. 무릇 寒邪에 所傷되면 寒이란 凝滯收斂하는 性質이 있는 까닭에 汗出하지 못하는 것이다. 太陽膀胱經의 經氣가 不利해지면 津液이 上焦로 運輸되지 못하는 까닭에 筋脈은 그 滋養原이 끊겨지는 까닭에 이로 인해 項脊이 拘緊해져서 舒暢이 여의롭지 못하게 된다. 葛根

96) 間隙의 뜻으로 經氣聚集의 部位를 말하고 間隙은 氣血이 匯集하는 骨交의 間隙이나 孔 鄰血氣의 深集을 말한다

97) 久咳하며 肺虛한 것을 治療하는 方法이다

湯은 단지 發汗解表해서 散寒하는 效能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津液을 上昇시켜 筋脈을 舒暢토록 하는 效能까지 兼하고 있다. 本方은 葛根 麻黃 桂枝 生薑 炙甘草 芍藥 大棗로 構成된 處方이다. 葛根은 表邪를 解除한다. 同時에 津液을 上昇시켜 筋脈을 滋養하여 項背의 拘攣을 緩和한다. 麻黃 桂枝 生薑은 辛溫散寒하는 性能으로 發汗解表한다. 芍藥은 葛根을 도와 筋脈을 緩和해서 圓滑한 血流을 促進시킨다.

甘草와 大棗는 營衛를 調和하고 脾胃를 中和하며 麻黃 桂枝의 辛散에 의한 過多發散을 調節한다. 鍼灸治療原則은 疏經解熱 疏表和里해야 하는데 熱府라 稱하는 風門穴을 이용하는데 風門穴⁹⁸⁾은 足太陽經과 督脈之會로써 風寒이 侵入하는 門戶를 다스리고 風府穴은 督脈 足太陽經 陽維脈之會로써 風邪가 腦部로 侵犯하는 要穴로써 이 두 혈을 合用하여 太陽經과 督脈의 經氣를 調和시키고 祛風散寒 宣肺發表시킨다. 大椎穴은 諸陽之會로써 一身之陽을 主하고 諸陽經의 經氣를 宣通하는데 大杼穴과 配合되어 手足太陽少陽之會로써 傷寒脈浮 頭項強痛 項背筋急酸痛으로 屈伸不利가 뚜렷한 경우에 有效하다. 또 後谿 崑崙을 사용하는데 後谿는 手太陽小腸經의 募穴이고 崑崙은 足太陽經의 穴로써 두 혈은 太陽之氣를 宣和하여 解表한다. 그리고 足三里 陽谿穴을 取穴하는데 이는 足三里가 足陽明胃經의 合穴로써 手陽明大腸經의 陽谿穴과 配合하여 胃腸을 調和하게 하여 津液이 上部로 잘 運輸되게 하여 項背部的 筋肉이 強急한 것을 풀기 위

함이다. 즉 大椎 風門 風府 後谿 崑崙穴로 太陽經氣를 疏通시켜서 項脊部를 柔軟하게 하는 同時에 胃腸을 調理하여 津液이 上部로 잘 공급되게 하는 것이다.

8) 五苓散方 針法

本方은 太陽經의 表邪가 未解한데 안으로는 太陽膀胱腑에 傳入되어 膀胱의 氣化作用이 不利하게 되어서 下焦에 水蓄하여 太陽經腑가 같이 病을 이룬 것을 治療한다고 했다. 밖으로는 表邪가 있어 頭痛 發熱 脈浮 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膀胱의 氣化作用이 失常하게 되므로 小便이 不利하게 되어 蓄水症이 되고 下焦에 水蓄으로 氣가 津液을 生化하지 못하여 水津이 不布하게 되어 煩渴欲飲하며 水氣가 內停하여 마신 물을 輸布하지 못하게 되므로 마시는 즉시 吐하는 水逆證을 이루게 된다. 治法은 마땅히 小便을 急히 利하고 兼하여 化氣解表 하여야 한다.

方中에 澤瀉를 君藥으로 重用하여 膀胱으로 直達케 하여서 滲濕利水하게 하고 茯苓과 豬苓은 滲濕하여 利水の 效能을 增強해주므로 臣藥으로 하였으며 健脾하는 白朮을 佐藥으로 하여 水濕을 運化하는 效能을 도와주고 또 桂枝를 佐로 하여 한편으로는 太陽의 表邪를 解産하고 또 한편으로는 膀胱의 氣를 溫和하게 하였다.

水腫, 泄瀉, 霍亂, 痰飲 등의 모든 病이 脾虛不運으로 水濕이 泛溢하여 된 病症에는 本方으로 利水滲濕하고 또 健脾化濕하여 治療해야 한다. 鍼灸治療의 原則은 解表 溫中 利水 衛氣固表해야 하는데 未解한 表邪를 없애기 위해 膀胱經의 穴을 使用하여 外邪를 發散하면서 氣化를 主로하는 三焦經⁹⁹⁾을

98)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340; 風門은 督脈과 足太陽經의 交會穴이다. 《針灸甲乙經》에서는 “風門熱府”라고 말했듯이 風의 門이다. 風邪가 들어가는 門, 風邪의 豫防.治療穴이라는 것이 穴名의 由來이다.

99) 金完熙, 崔達永 : 臟腑辨證論治, 한국, 성보사, 1990, p.86; 三焦의 氣化에 대하여는 上, 中,

選擇하고 여기에 滲濕의 效能이 있는 脾經을 選擇한다.

大椎 列缺 氣海 此穴들은 通陽解表시켜서 桂枝에 比喩되고 여기에 氣海穴이 더해져서 內通水府하며 茯苓 豬苓 澤瀉에 比喩된다. 京骨혈은 太陽經의 原穴로 太陽經氣를 疏通시켜 清熱解表 시키며 腎經의 原穴인 太谿穴과 配合되어 臟腑를 調和시키고 太陽經의 氣化를 돕는다. 中渚穴은 三焦經의 經穴로 三焦氣機를 調暢시켜서 通利水道 시키며 膀胱俞는 五苓散證의 小便不利가 主가 되므로 膀胱經의 背俞穴인 膀胱俞를 使用하여 氣化를 도와서 通利小便 시킨다.

三陰交 陰陵泉 此穴을 使用하여 滲濕祛濕之力을 增大시키고 足三里穴은 健脾燥濕하여 白朮에 比喩된다.

9) 桃核承氣湯方 針法

本方은 調胃承氣湯에 桃仁 桂枝를 加하여 구성된 方劑로 傷寒論에 太陽經에 있는 邪氣가 不解하여 下焦로 傳入하여 瘀熱¹⁰⁰⁾이 互結하므로 생기는 下焦蓄血을 治療한다고 하였다. 瘀血이 下焦에 鬱結하므로 少腹이

急結¹⁰¹⁾하고 下焦蓄血의 原因이 蓄水에 관련된 것이 아니므로 小便은 自利하며 熱邪가 血分에 있으므로 밤이 되면 發熱하고 瘀熱이 心神을 上擾하는 까닭으로 狂人처럼 煩躁不安하고 甚하면 譫語昏狂하게 된다. 證이 瘀熱互結에 속하면 治法은 마땅히 逐瘀泄熱해야 한다. 方中の 桃仁은 破血祛瘀하고 大黃은 瘀積을 攻下하며 熱邪를 瀉滌하므로 二藥을 合用하여 瘀熱을 함께 치료하므로 같이 君藥이 되고 桂枝는 血脈을 通行시키면서 桃仁의 破血行瘀作用을 協助하고 芒硝는 軟堅散結하면서 大黃의 通便泄熱을 緩和해 주므로 臣藥으로 하였으며 炙甘草는 調胃安中하고 아울러 諸藥의 峻烈한 性을 緩和해 주므로 佐, 使藥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全方이 破血下瘀하는 效能을 나타내면서 下焦의 瘀熱蓄結의 證候를 治療한다. 本方에서 針灸治療의 原則은 活血行瘀하고 疏經시켜서 瀉熱하는 것인데 督脈穴(大椎)을 이용하여 外邪를 驅逐하는 同時에 足三陰經과 任脈의 穴을 이용하여서 下腹部의 瘀血을 除去한다. 大椎穴은 桃核承氣湯의 桂枝에 比喩되어 調營衛解의 효능으로 肌表之邪를 除去하고 關元¹⁰²⁾은 足三陰과 任脈의 會이며 胞中에 正在하고 또 血海가 되므로 針刺시 清熱利濕하여 膀胱熱結을 治療한다. 四滿穴¹⁰³⁾은 足少陰腎經 冲脈의 會

下焦의 氣化機能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上焦의 氣化는 中焦의 脾胃로부터 오는 水穀의 精微로운 氣運을 받아서 血液循環과 肺의 宣發, 肅降機能을 利用하여 水道를 通調케하고 膀胱으로 내려보내는 가운데 그 精微로운 氣를 體表 뿐만 아니라 體內的 여러 부분에도 散布시키는 것이고 中焦의 氣化作用은 胃가 水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腐熟시킨 다음에는 脾의 運化機能에 의하여 水穀중으로부터 精微로운 氣가 생겨나며 이로써 氣血이 化生한다. 下焦의 氣化作用은 清濁을 分別하여 二便을 疏通시키는데 三焦의 氣化作用은 命門에 그 根本을 두고 있으므로 命門의 火가 三焦 氣化作用의 基礎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命門의 元氣는 三焦의 氣化作用에서 肌表와 全身으로 通達하게 되는 것이다.

100) 熱과 痰濕이 서로 結合되어 內部에 鬱積된 熱證을 말함.

101) 蔡仁植 : 傷寒論譯註, 한국, 고문사, 1991, p.89; 少腹急結은 少腹이 硬滿과 같다고 하나 患者가 急痛을 呼訴할때도 있어 硬滿과는 다르다. 膀胱部位에 急結이 나타나기 보다는 下行結腸部位에 흔히 나타난다.

102)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678; 關元穴은 足三陰經과 任脈의 交會穴이면서 小腸經의 募穴이고 別名으로 丹田이라 한다. 效能은 培腎固本, 調氣回陽한다.

103)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463; 足少陰腎經, 冲脈의 交會穴로 婦人病이나 泌尿器에 病이 있을 때 효과가 있는데 《針灸說約》에 따르면 "臍下에 塊가 있는

가 되어 少腹積聚를 治療하고 調補肝腎 活血散瘀의 功能이 있는데 關元 四滿 두 혈을 瀉法을 사용하여 胞中에 있는 瘀血熱結을 除去한다. 太谿穴은 腎經의 原穴로써 補腎壯水하여 除熱하고 飛揚穴은 足太陽膀胱經의 絡穴로써 少陰經으로 別走하고 表裏의 經氣를 疏通하고 瀉熱行血 하는데 此二穴은 原絡相配로써 腎, 膀胱의 表裏相通의 疾病을 治療한다. 또 委中穴을 出血하고 間使穴을 瀉法을 사용하여 活血化癥 清心安神 시키는데 桃仁 芒硝 大黃에 比喩된다. 豐隆 神門 此穴들은 清解內熱하고 寧神定志하며 大黃 芒硝 甘草에 比喩된다.

10) 抵當湯方 針法

太陽病에 熱이 下焦로 入하여 瘀血과 더불어 搏結하여 少腹硬滿을 이루고 其人如狂하는 등 蓄血의 重證에 使用하는 處方으로 本方은 攻瘀血의 峻劑로 桃核承氣湯보다 더 猛烈한 藥이다. 方中에 虵虫¹⁰⁴⁾ 水蛭¹⁰⁵⁾은 破血하고 桃仁은 苦味로 散血하고 甘味로 緩急하며 大黃은 通經하여 去瘀逐血除熱한다. 抵當湯證은 下腹에 瘀血이 結하여 發한 것이므로 針灸治療도 下腹의 根幹을 이루는 衝任脈¹⁰⁶⁾을 通調하여 經氣를 疏通시키고

것, 腸癰, 切痛, 大腹石水, 女子의 惡血 汚痛을 治한다.”고 했다.

104)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敎室 : 본초학, 한국, 영림사, 1991, p.432, 433 ; 이 藥은 蟲科에 屬하며 性味는 微寒 有小毒하고 味는 苦하다. 本藥은 肝經血分에 들어가 血結을 攻逐하는 效能이 있어 水蛭과 그 效能이 서로 비슷하여 血瘀癥結의 症을 治療하는데 常用한다.

105)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敎室 : 本草學, 한국, 영림사, 1991, p.432 ; 이 藥은 水蛭科에 屬하며 性은 平 有小毒하고 味는 辛鹹苦하다. 本藥의 辛味는 散하고 苦味는 泄하여 肝經血分에 들어가 破血消癥하므로 血瘀로 因한 經閉와 癥瘕積聚, 蓄血發狂 및 跌仆損傷의 重證을 治療하는데 適用한다.

106) 奇經八脈으로 下腹部의 陰氣를 調節하며

足三陰經을 調補하여 行氣活血하게 한다. 鍼灸治療의 原則은 活血化癥 瀉熱로 心, 小腸은 表裏關係이고 濁熱이 循經上擾한즉 發狂하는데 小腸經의 募穴인 關元을 사용하여 通竅瀉熱降濁한다. 또 關元穴이 正在胞中하므로 血海가 되고 足三陰, 任脈의 會로써 少腹에 血蓄하여 脹痛하는 경우에 瀉法을 사용하여 行瘀散結, 清熱涼血한다. 中極穴은 膀胱經의 募穴로써 調任脈而通胞宮 하여 行氣化癥한다.

四滿 中注穴은 足少陰과 冲脈의 會로써 膈下積聚, 腹痛을 治療하고 瀉血行血의 작용을 한다. 肝은 藏血하고 疏泄作用을 하는데 肝經은 陰器를 돌아서 少腹으로 循行하므로 肝의 原穴인 太衝을 刺針하여 疏調經氣하고 瀉熱降逆하여서 氣血을 宣導한다.

合谷穴은 大腸經의 原穴로 開閉宣竅 導濁熱下行 시키며 後谿穴¹⁰⁷⁾은 小腸經의 穴로써 通督脈하며 外로는 疏經活絡하여 解表邪하고 內로는 清心導火하여 降濁熱한다.

三陰交穴은 調補三陰하고 行血氣而散瘀結하며 益津血而養經脈한다.

11) 桂枝加附子湯方 針法

本方은 發汗太過로 遂漏汗不止한 것을 治療하는데 太陽病은 當然히 發汗해야 하는데 지금 發汗이 過度하여 汗漏不止하고 桂枝湯의 本證이 未除하면 陽이 汗을 따라 泄하고 膀胱의 寒水가 陽이 없어 氣化하지 못하게 되어 外로는 惡風하고 下로는 小便難 하게 된다. 陽氣는 柔則養筋하는데 陽虛하므로

衝爲血海, 任主胞胎라는 說이 있는데 이는 衝任脈이 婦女의 月經 妊娠과 密接한 關係가 있음을 말한 것이다.

107)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288, 289 ; 後谿穴은 小腸經의 輸血, 八脈交會穴中의 하나로 督脈과 通하여 舒筋脈, 通督脈, 清神志 太陽傷寒의 劇烈한 頭痛에 좋은 效果를 나타낸다.

筋脈을 濡養하지 못하고 四肢微急하며 難以屈伸하게 된다. 本方에서 桂枝는 調和營衛하고 附子는 回陽하여 少陰之本을 굳게 하며 陽回한 卽 汗止하고 汗止卽 津液이 回復된다. 桂枝 甘草 生薑 大棗 附子는 辛甘한 味로 生陽하고 助陽固表한다 또 芍藥 甘草 生薑 大棗는 酸甘한 味로 化陰하여 救液濡潤한다. 鍼治療時에 督脈과 手足三陽經의 會인 百會穴에 灸를 하여 升舉陽氣 回陽固脫하고 氣海 足三里穴에 刺針하는데 氣海穴은 元氣之海¹⁰⁸⁾로서 灸한卽 振扶元陽하고 少陰之本을 固한다. 足三里穴과 配穴한 卽 補益中陽하고 回陽하여 止汗시키고 津液을 恢復시켜서 筋脈이 得養되어서 四肢微急하여 難以屈伸과 小便難을 治療한다.

여기에 委中穴을 加하는데 委中穴은 膀胱經의 合穴으로써 太陽經氣를 疏調한다.

12) 桂枝加芍藥生薑人蔘新加湯方 針法

本方은 營虛血少를 해결하기위해 藥을 重用하고 生薑으로 胃氣를 振興시키며 人蔘으로 補氣生津하므로 氣營이 모두 回復되어 扶正祛邪의 目的을 달성하도록 한 것인데 桂枝湯에 芍藥 生薑 各一兩 人蔘三兩을 加한 것으로 傷寒의 汗出後에 身痛하며 脈來의 沈遲한 症을 治하는데 沈遲한 것은 汗出後에 血虛한 것으로 正氣가 虛하여 外邪가 나갈 수가 없는데 桂枝湯을 주어서 未盡한 病邪를 풀어주고 芍藥과 人蔘을 加하여 陰液을 거두어서 營血을 補充해 주는 것이다.

針灸治療原則은 調和營衛 益氣和營으로 大椎 風池 足三里穴로 調和營衛 止痛復脈 시키고 肝俞 脾俞 腎俞등 足三陰經의 背俞穴을 使用하여 陽輔氣陰 한다. 또 築賓과 內關을 사용하는데 築賓은 少陰腎經의 經穴이고 陽維脈의 郄穴이며 內關¹⁰⁹⁾은 心包經의 絡穴이면서 陽維脈과 通하는데 此二穴을 補法을 쓰면 滋陰養血한다. 여기에 足三陰經과 任脈의 會이면서 小腸의 募穴인 關元穴과 小腸俞를 配合하여 灸를 한즉 陽生陰長을 시킨다.

13) 苓桂朮甘湯方 針法

本方은 中焦가 陽虛로 因하여 脾失健運하거나 氣不化水로 聚濕하여 形成된 痰飲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水飲이 胸脇에 停滯하면 胸脇이 脹滿하고 心肺로 上凌하면 心悸短氣而咳하며 水飲이 中焦에 阻塞하면 清陽이 不升하게 되므로 目眩 頭暈등의 症狀이 나타나고 脈弦滑 또는 沈緊하는 모든 症狀은 水飲症에 屬한다. 그러므로 茯苓을 君藥으로 하여 健脾시키고 滲利水濕케 하였고 桂枝는 溫陽化氣 하고 또 茯苓과 補助하여 運化水濕하므로 佐藥으로 하였고 炙甘草는 諸藥을 調和하므로 使藥으로 하였으며 茯苓 白朮과 配合하면 補脾를 兼하고 桂枝와 配合하면 甘溫補陽한다. 그러므로 四藥이 合用하여 健脾滲濕하고 溫化痰飲의 效能을 나타내는데 治療原則은 健脾行水 理氣降沖으로 針治療 時에도 脾經을 다스려 中陽을 補하고 肝經을 使用하여 肝氣의 橫犯을 막으면서 疏調肝脾한다 脾俞穴은 脾의 精氣가

108)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682; 氣海라 함은 元氣의 海라는 말인데 元氣의 變動이 集中하는 穴임을 나타내고 있다. 元氣의 充實은 모든 病의 治癒를 促進시키고 元氣의 缺乏은 全身에 影響을 끼쳐 諸病의 治癒를 遲延시킨다. 따라서 氣海穴을 調整하는 것이 疾病恢復에 대단히 重要하다.

109)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488, 489; 內關은 心經의 絡穴로 少陽으로 別走하고 八脈交會穴의 하나이며 陽維脈과 通한다. 效能은 寧心安神 理氣鎮痛하는데 《靈樞·經脈篇》에서는 “心系實할 때는 心痛하고 虛할 때는 頭強이 있다. 이것을 兩筋의 사이에서 取한다.”고 하였다.

모이는 곳으로 健脾益氣利濕하고 水穀을 消納하며 氣機升降을 調動하는데 中陽이 不振하여 水濕이 內停하는 경우에 刺針하고 陰陵泉은 脾經의 合穴으로써 降逆利水하여 健脾시키며 太衝은 肝經의 原穴으로써 舒肝 解鬱 降沖시키고 肝氣의 橫犯을 瀉한다. 期門혈은 肝經과 脾經의 會이면서 肝經의 募穴인데 太衝穴과 配合하여 氣逆胸滿脇痛을 治療하고 疏調肝脾하며 濁陰之氣를 泄한다.

14) 眞武湯方 針法

本方은 少陰陽衰로 水氣가 病이된것을 溫陽化氣시키는 代表的인 方劑이다 水를 制하는 바는 脾에 있고 水를 主하는 바는 腎에 있어 少陰腎이 寒하면 먼저 化氣行水를 못하고 또 寒水가 도리어 脾를 障礙하므로 脾腎이 陽衰하게 되어 寒水가 內停하게 된다. 그리고 水氣의 停蓄에는 또 肝의 疏泄作用의 失調와도 關連이 있다¹¹⁰⁾. 단 本方證의 寒水가 病이 된 것은 腎陽이 虛하여 主가 되어 發生한 것이므로 利水하고자 하면 먼저 溫腎하는 것이 마땅하다. 方中の 附子는 大辛大熱하고 腎經에 들어가 腎陽을 溫壯하고 化氣行水하므로 君藥으로 하였고 水를 制함은 脾에 있으므로 또한 茯苓 白朮을 配伍하여 健脾滲濕 利水하므로 臣藥으로 하였으며 白芍藥을 配伍하여 疏肝止痛하고 養陰利水하며 또한 附子의 辛燥性을 緩和해 준다. 辛溫性인 生薑을 配伍하여 附子의 溫陽化水에 協助하고 또 茯苓 白朮의 溫中健脾를 도우므로 함께 佐, 使藥이 된다 이와 같이 諸藥을 合用하여 暖腎 健脾 疏肝 溫陽化

氣 利水의 效能을 이루게 하는 方劑가 된다. 針灸治療의 原則은 扶陽散寒利水로 鍼治療도 命門火를 補하는 同時에 膀胱經의 穴로 利水해야한다.

關元穴은 足三陰과 任脈의 會이면서 小腸經의 募穴인데 關元穴에 灸를 하여 壯陽益氣시키고 命門火를 도와서 陰寒을 散한다. 中極穴은 膀胱經의 募穴으로써 氣化하여 利小便시키고 太谿穴은 腎經의 原穴로 補腎益精하고 三焦를 調治한다. 여기다가 足三里를 配合하여 暖中宮而降沖逆한다.

15) 大陷胸湯方 針法

本方은 結胸熱實의 症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水飲과 邪熱이 胸腹에 互結하게 되면 心下가 硬滿疼痛하고 甚하면 心下에서 少腹까지 硬滿하고 손도 대지 못할 정도로 甚한 痛症이 있으며 水熱이 互結하면 津液의 敷布가 不能하므로 위로는 口燥하면서 渴하고 煩燥 短氣등이 나타나고 밑으로는 便秘가 되어 그 症後가 急하고 邪氣가 盛하며 脈象이 沈緊하며 有力하므로 峻攻之劑로 急히 그 實邪를 瀉해야 한다. 方中の 甘遂 大黃은 같은 苦寒峻下의 藥으로 甘遂는 瀉水逐飲의 作用이 強力하므로 泄熱散結하고 大黃은 邪熱을 蕩滌하는 效能이 뛰어나서 함께 水熱互結의 邪氣를 瀉하는 君藥이 되고 芒硝는 瀉熱軟堅하며 또 君藥을 도와 積結을 破除하여 推陳致新하므로 臣, 佐藥이 된다. 藥物은 비록 三味에 지나지 않지만 그 效力은 매우 峻烈하여 瀉熱 逐水 散結의 峻劑가 된다. 針灸治療의 原則은 開結邪熱 疏經止痛으로 鍼治療時에도 心, 小腸經을 이용해 上下之結을 없애고 大腸經으로 熱邪壅滯를 治療한다. 巨闕혈은 心經의 募穴으로써 清心化積의 效能으로 胸滿脹痛 熱病胸中澹澹 腹滿暴痛을 治療하며 關元혈은 小腸經의 募穴으로써

110) 金完熙, 崔達永: 臟腑辨證論治, 한국, 성보사, 1990, p.142; 肝의 疏泄機能은 氣機를 通暢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三焦를 圓滑하게 하여 水道를 通調시키는데 疏泄機能이 失調되어 氣機不暢하면 三焦의 通利에 影響을 미쳐 水液代謝의 障礙로 因한 水腫, 腹水等 症이 發生하기도 한다.

分別淸濁하고 少腹之熱을 淸한다. 巨闕 關元 두 혈을 瀉法을 사용하여 上下之結을 開結한다.

中脘은 胃經의 募穴로 六腑之會이며 淸胃化滯하며 天樞는 大腸經의 募穴로 疏泄腑氣하며 開水結하고 蕩熱實하는데 上記 四穴을 이용하여 “從心下至少腹硬滿而痛”症을 治療한다. 合谷은 大腸經의 原穴로써 熱邪壅滯를 疏泄하고 開閉宣竅하고 復溜는 足少陰腎經의 經穴로 淸熱利濕하고 腹水腫脹을 治療한다.

支溝는 三焦經의 經穴로 淸利三焦 調動氣機¹¹¹⁾하며 通調水道하며 陽陵泉은 膽經의 合穴로 膽火之鬱滯를 淸瀉하여 胸脇脹痛을 治療한다.

16) 大陷胸丸方 針法

大陷胸丸은 結胸病으로 項強이 柔痙狀과 같을 때 사용하는데 結胸病으로 項強하는 것은 邪氣가 胸中에 結하여 그득하며 心下가 단단하여 쳐다보기만 하고 구부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이 項強하여 亦是 柔痙의 症狀과 비슷한 것으로 大陷胸丸으로 멎힌 것을 내리고 그득한 것을 없애야 한다. 本方은 大陷胸湯에 葶藶子 杏仁 白蜜을 加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大黃 芒硝는 泄熱破結하여 蕩實邪하고 甘遂는 峻逐水飲하며 葶藶 杏仁은 瀉肺利氣 한다. 白蜜은 甘緩和中하여 公히 瀉熱逐水の 效가 뛰어난다. 針灸治療原則은 瀉熱 破結 逐수로 心, 小腸經의 募穴인 巨闕 關元으로 上部의 實證을 瀉熱破結하고 足少陽膽經의 募穴인 日月穴과 大腸經의 募穴인 天樞를 이용해 水熱之結을 破한다. 여기서 各經의 募穴을 사용한 것은 募穴이 臟腑의 經氣가 胸腹部에 凝集된 곳

111) 通常은 氣의 機能活動을 뜻하며 때로는 臟腑之氣의 運行通路를 뜻하기도 한다.

으로 開鬱解結의 效能으로 水熱이 胸中에 阻滯된 것을 治療하기 때문이다.

巨闕은 手少陰心經의 募穴로 胸滿脹痛을 治療하며 心氣를 疏調하여 開竅하고 瀉火熱而化濁降逆하고 中脘¹¹²⁾은 胃經의 募穴로 衝任脈을 調和하여 開胸順氣하고 淸熱化滯하여서 理中氣而升淸降濁하는데 巨闕 中脘으로 上部의 實證을 破한다.

日月¹¹³⁾은 足少陽膽經의 募穴로 足太陽 足少陽 陽維脈의 會로써 淸膽熱 利膽道 하여서 少陽樞機를 動調하여서 司開闔하고 天樞는 大腸經의 募穴로 通腑助腸 行氣導滯하는데 此二穴은 水熱之結을 疏泄한다.

17) 小陷胸湯方 針法

本方은 원래 傷寒表證을 誤下하여 邪熱이 內陷하고 痰熱이 心下에 互結하여서 된 小結胸證을 治療한다. 痰熱이 內結하면 氣鬱不通하므로 胸脘痞悶하고 手按하면 疼痛하며 痰稠色黃 苔黃 脈數등의 症狀이 나타나며 이와 같은 症狀은 모두 痰熱의 徵候이다. 治法은 마땅히 淸熱滌痰하여 寬胸散結하여야 한다. 方中の 瓜蒌實을 君藥으로 하여 淸熱化痰하고 下氣寬胸하며 黃連을 臣藥으로 하여 淸熱降火하고 半夏를 佐藥으로 하여 降逆消痰하여 散結除痞하고 黃連과 合用하여 辛開苦降하므로 두 가지 藥物을 配合하면 熱痰의 互結은 이미 消除되고 또 氣鬱의 痞도 열어주어 淸熱滌痰하고 寬胸散結

112)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694 ; 中脘은 手太陽經, 手少陽經, 足陽明經, 任脈의 交會穴로 胃中央部에 該當하여 胃를 治療하는 代表穴로 調氣理氣, 化濕降逆한다.

113)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570 ; 日月穴은 足太陽 足少陽 陽維脈의 會이고 膽經의 募穴이므로 膽經의 氣가 腹部로 通하는 것이므로 胸에서 腹에 걸쳐 甚한 痛症이 있다든가 충분히 呼吸할 수 없을 때 使用한다.

하는 良劑가 된다.

鍼灸治療의 原則은 清熱開竅消痰인데 心包經과 手少陰心經의 絡穴인 臈中과 巨闕을 이용해 上焦를 宣通하여 滌痰하고 三焦經의 支溝로써 三焦氣機를 調和하는데 臈中¹¹⁴⁾은 心包經의 絡穴로써 氣之會이며 脾 腎 小腸 三焦經과 任脈의 會인데 寬胸利氣하고 上焦를 宣通한다. 巨闕은 清心開結하고 通胃氣하여 滌痰濁하고 豐隆은 胃經의 絡穴로써 脾經으로 別走하여 疏經活絡하고 健脾胃하여 祛痰化濁한다. 支溝는 三焦腑氣를 清利하며 內關은 心胸部의 熱邪를 清熱한다.

18) 三物白散方 針法

寒實이 胸中에 結한 경우에 峻攻하지 않으면 邪氣가 除去되지 않는데 다만 苦寒한 藥으로 攻下하면 寒凝이 풀리지 않으므로 반드시 辛熱한 藥으로 水寒을 解散하여야 한다. 三物白散 中の 桔梗 貝母는 開肺解結하는 作用을 하며 巴豆는 辛熱有毒하여 胸中の 寒凝堅結을 破한다. 따라서 病이 膈上에 있던 사람은 吐하며 膈下에 있던 사람은 下利하게 된다. 만일 服藥後에 下利하지 않으면 뜨거운 粥로 藥力을 補助하며 下利가 그치지 않을 경우에는 冷粥을 服用하여 그치도록 한다. 이것은 巴豆의 性質이 熱을 얻으면 行하고 冷을 얻으면 解하기 때문이며 巴豆毒에 中毒된 사람에게 冷飲을 服用시키면 毒性이 현저하게 解毒되는 것을 應用한 것이다. 鍼灸治療의 原則은 寒實을 溫下하는 것이며 鍼治療는 氣之會¹¹⁵⁾인 臈中穴을 사용하여 寬胸利氣로 上部를 通利하고 臈中穴에 灸를 하여 峻逐水飲한다. 內關은

手厥陰心包經의 絡穴로써 陰維脈과 通하는데 陰維脈은 腹으로 上行하여 脇肋을 돌아서 위로 胸膈에 이르러 上部熱邪를 清利한다. 公孫은 脾經의 絡穴로써 胃經으로 別走한다. 또 冲脈과 通하는데 冲脈은 氣衝에서 起하여 少陰經과 더불어 臍를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서 散한다. 氣海 足三里穴을 取해서 氣海穴은 元氣之海로 扶振元陽하고 少陰之本을 固하며 足三里穴과 함께 補益中陽 益氣健脾하여 祛痰한다.

19) 大黃黃連瀉心湯方 針法

本證에서 心下痞 按之柔는 胃脘部의 痞悶不舒感を 말하는 것이고 按之柔軟而不痛함으로써 結胸證이 아니라는 말이다. 關脈은 中焦를 反映하는데 浮함은 陽熱을 말하고 이는 無形의 熱邪가 心下에 結하여 氣機가 壅滯되므로 心下가 閉塞되어 不通한 느낌이다. 本證은 熱證에 屬하여 心下痞外에 口渴 心煩¹¹⁶⁾ 舌紅苔黃等の 症이 수반되므로 本方을 사용하여 邪熱을 清泄하면 痞滿등이 自然히 없어지게 된다. 方中에 大黃 黃連은 모두 苦寒 清泄之藥으로 大黃은 胃之熱結을 瀉熱하고 黃連은 心胃之火를 清利하는데 二藥이 相合하여 熱邪를 除去하고 氣機가 暢通한즉 痞滿은 없어진다. 鍼灸治療의 原則은 清降火熱 益陰生津으로 鍼治療는 手少陰心經의 募穴인 巨闕을 이용하여 心火를 下降시키고 水化既濟를 이루어 火生土로 健脾시킨다. 아울러 心經의 井穴인 少衝을 點刺出血하여 少陰火熱을 清降시킨다. 豐隆과 尺澤을 이용해 氣機를 下降시키면서 尺澤을 放血시켜 清熱시켜서 開結散熱하고 靈道는 心經의 募穴로 行氣活血하여 寧心시킨다. 水泉은 腎經의 穴로 滋腎水益陰氣하여 火降

114) 安榮基 : 經穴學叢書, 한국, 성보사, 1986, p.702, 703 ; 臈中은 足太陰經, 足少陰經, 手太陰經, 手少陽經, 任脈의 交會穴로 上焦의 氣가 會하므로 上焦의 諸病을 주관한다.

115) 八會穴 中 氣會穴을 말한다.

116) 心中의 煩悶으로 대개 內熱로 因해 惹起된다.

津生케 한다.

20) 附子瀉心湯方 針法

本方은 心下痞滿과 동시에 惡寒汗出을 兼한 症狀을 治療한다.

즉 熱結로 된 心下痞症을 主治하고 아울러 陽虛證을 兼한 惡寒汗出의 證候를 治療한다. 三黃瀉心湯에 附子를 加한 것으로 本方의 特徵은 惡寒과 心下痞가 겸하여 있으므로 辛溫之劑만으로 惡寒을 治하면 心下痞가 甚해지고 苦寒之劑만으로 痞를 治하면 陽氣가 損傷되어 惡寒이 加重된다. 따라서 瀉心湯을 百沸湯에 담그면¹¹⁷⁾ 瀉心湯의 輕淸한 氣味가 上部 邪熱을 淸하게 하고 心下痞도 治할 수 있게 된다. 附子는 大辛大熱하므로 別煎하여 汁을 取하면 藥力이 厚하여 溫經 扶陽而固表하는 效果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本方은 寒熱에 兼用하고 邪熱 消痞와 扶陽固表를 동시에 治할수 있는 方劑로 解釋할 수 있다. 針灸治療原則은 交通 心腎하고 扶陽消痞하는 것으로 手少陰心經의 原穴인 神門穴로 調心安神하여 淸降火熱하고 腎經의 原穴인 太谿穴을 取하여 補腎滋陰하여 心腎交通케 한다. 또 少陰本熱이 虛衰하여 惡寒汗出하므로 小腸經의 募穴인 關元에 灸를 하여 溫陽壯元하고 命門之火를 돕는다. 氣海穴은 關元을 도와 扶振陽氣하고 氣分の 閉滯를 調理하여 消痞한다.

21) 生薑瀉心湯方 針法

本方은 半夏瀉心湯에서 生薑을 君으로하고 黃芩을 使로 한 것이 處方構成上의 變化이다. 本方의 病症은 誤下하거나 誤汗해서 생긴 病理가 아니고 平素에 胃中不和하고 心下痞와 噎氣 脇下有水氣 腸鳴 下利等 水와熱이 서로 만나서 생긴 病狀이므로 生薑

과 半夏가 君으로 配伍되어 和胃 降逆 化飲作用을 增大시키고 人蔘 乾薑 甘草를 臣으로 하여 補益脾胃하여 胃의 機能을 補強하고 黃連 黃芩은 瀉心湯의 일부로써 心下痞와 降逆과 泄熱을 治하므로 佐使로 하였다. 따라서 本方은 生薑의 宣散水氣와 和胃降逆作用을 半夏가 助하고 黃連 黃芩의 苦寒之性이 瀉熱하므로 升淸降濁의 機能을 正常化시키고 人蔘 乾薑 甘草로 扶正하므로써 和胃降逆하고 宣散水氣하는 效能이 있는 方劑이다. 治療原則은 脾胃를 다스려 運調升降하여 散水消痞하는 것으로 中脘은 胃經의 募穴로 健脾시켜 消納水穀하고 脾胃輸는 瀉法을 使用하여 淸熱하는 同時에 健脾胃시켜 運化精微한다. 足三里는 胃經의 合穴로 脾胃를 도와 運化시키고 升降氣機를 調理하여 水穀不別하여 생긴 乾噎食臭 腹中雷鳴下利를 治療한다. 여기에 合谷을 加하는데 合谷은 胃經의 穴로 胃腸을 調運하여 散水消痞한다. 즉 脾胃經의 穴로 健脾胃하여 運化機能을 增強시키는 同時에 膀胱經의 脾胃俞로 淸熱하면서 補脾胃하여 水熱互結로 胃中不和하여 생긴 心下痞를 治療한다.

22) 甘草瀉心湯方 針法

本方은 傷寒 誤下로 생긴 病理로 下利 腸鳴 穀不化 心下痞滿 乾嘔 心煩할 때 活用하는 方劑로써 半夏瀉心湯에서 半夏대신 甘草를 君藥으로 바꾼 處方이다. 甘草는 淸熱除煩하고 胃虛를 補하고 和胃降逆하는 作用이 있는데 乾薑 人蔘 大棗가 이를 助한다. 한편 半夏 乾薑 黃芩 黃連은 降逆消痞한다. 따라서 中氣의 機能이 正常化되면 모든 諸症狀이 스스로 없어지게 된다. 針灸治療原則은 和中降逆하여 消痞하는데 中脘 內關을 使用해 補益胃氣하여 胃虛痞症을 治療하고 中虛로 陰陽升降이 失常되고 淸濁相混 寒熱

117) 즉 瀉心湯의 藥劑를 끓는물에 담그면의 뜻이다.

挾雜¹¹⁸⁾ 痞心下한 狀態이므로 胃經의 合穴인 足三里 輸血인 陷谷穴로 健脾和胃 시키고 降逆止利하며 氣機升降을 調節하고 攢竹穴을 配合하여 降逆止嘔 시킨다. 建里 內庭穴은 建里穴이 任脈穴이고 內庭穴은 胃經의 榮穴인데 二穴을 同時에 補法을 사용하여 調中益氣하여 降逆消痞한다.

23) 半夏瀉心湯方 針法

本方은 小柴胡湯證을 誤下하여 中洲를 損傷하여 形成된 痞症을 主治한다. 邪氣가 少陽에 있으면 당연히 和解法으로 治療해야 하는데 攻下法을 誤用하면 中氣가 損傷되므로 少陽의 邪氣는 腸胃를 犯하여 寒熱이 心下部에 互結하여 마침내 心下痞硬症을 形成하게 된다. 中氣의 損傷으로 升降作用을 못하게 되므로 위로는 嘔逆이 멎지 않고 밑으로는 腸鳴下利하게 된다. 治法은 辛開苦降으로 消痞補中하고 寒熱을 調和해야 한다. 方中の 半夏는 味가 辛苦하여 胃에 들어가 君藥이 되고 辛味로는 開痞散結하고 苦味는 降氣止嘔하여 痞滿을 除하고 嘔逆症을 멈추게 하며 乾薑은 辛溫祛寒하고 黃芩 黃連의 苦寒은 泄熱하므로 臣藥이 되고 人蔘 大棗는 中氣를 補益하므로 佐藥이 되고 甘草는 脾胃를 補하고 諸藥을 調和하여 使藥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諸藥을 서로 配合하여 寒熱한 藥을 併用하고 辛苦한 藥性을 併進하여 補瀉를 같이 實施하여 瀉心消痞하고 補中扶正하며 寒熱調和의 效能을 얻게 된다. 本方은 胃虛嘔逆痞症을 治療하므로 針灸治療原則은 疏經降逆 建中消痞로 中脘에 灸를 하여 補脾胃하고 寒熱이 挾雜하고 中焦에서 氣滯하여 心下가 痞塞한 경우로 心의 募穴인 巨闕을 取하여 調心火하여 下降以通腎하

고 陰陽二氣를 交合하며 和胃降逆하여 建中한다. 膈俞穴은 血之會로 行血調氣하며 寬胸降逆하여 心下痞滿을 治療한다. 여기에 脾俞穴을 取하는데 脾俞穴은 膀胱經의 背俞穴로 臟腑經絡之氣를 溝通하여 表裏를 調暢하고 運脾和中한다. 內庭은 胃經의 穴로 補榮調水하여 氣機升降之本을 健運케 한다. 즉 任脈과 脾胃經의 穴으로써 補脾胃하여 和胃降逆하여 建中시키고 痞症을 治療하도록 하였다.

24) 旋覆代赭湯方 針法

本方은 胃虛痰阻하고 氣逆不降으로 因하여 나타나는 症狀을 治療하는 方劑이다 胃는 納穀을 主司하고 氣를 降하게 하는 것이 順理인데 胃氣가 虛로 因하여 上逆하면 噎氣가 자주 나오고 反胃嘔吐하게 되며 痰濁이 內阻하여 升降이 失常하면 脘이 痞硬하고 涎沫을 嘔吐하는 症狀이 나타난다. 治療에 있어 胃虛는 補해야 마땅하고 痰濁은 마땅히 化痰하고 氣逆은 降氣해야 마땅하므로 治法은 降逆化痰하고 益氣和胃해야 한다. 方中の 旋覆花는 降氣消痰하고 代赭石은 重鎮逆氣하여 胃氣上逆으로 因한 呃逆嘔吐를 治療하므로 君藥이 되고 人蔘은 補氣益胃하여 그虛를 치료하고 半夏는 降逆祛痰하고 消痞散結하므로 臣藥으로 하였으며 또 甘草와 大棗는 人蔘의 益氣和中에 扶助하고 生薑과 半夏를 配合하여 降逆止嘔를 하므로 함께 佐, 使藥으로 하였다. 이와 같이 諸藥을 함께 씌으로써 中焦를 健運케 하면 清升濁降하여 痰濁除去되어 噎氣 嘔吐 痞硬等 諸症이 治療된다. 本證은 胃虛痰阻하고 氣逆不降으로 因하여 나타나는 症狀으로 治法은 益氣和胃하여 降逆化痰하는 것으로 公孫과 育俞를 쓰는데 公孫은 脾經의 絡穴으로써 胃經으로 別走하고 冲脈과 通하는데 脾經은

118) 寒證과 熱證이 交錯해서 同時에 出現함을 말한다.

腹으로 入하여 屬脾絡胃한 卽 病이되면 腹脹善噯한다. 冲脈은 氣衝에서 起하여 少陰과 더불어 臍를 끼고 上行하여 胸中에 이르는데 病이되면 逆氣裏急한다¹¹⁹⁾. 故로 公孫穴을 取하여 健脾和胃降逆하고 足少陰과 冲脈의 會인 盲兪穴을 配穴 하여 理氣降冲한다. 아울러 中腕과 太衝穴을 쓰는데 中腕穴을 補하여 健中土하고 太衝을 瀉하여 調肝氣 하여서 脾健胃強卽 心下痞가 없어지고 升降調和卽 噫氣가 없어진다.

25) 桂枝附子湯方 針法

本證은 風邪와 濕邪가 同時에 侵襲하면 經脈의 氣血이 鬱滯되는데 그러면 不通則痛하는 것과 같이 身體의 疼痛이 자각된다. 이 痛症은 집요하고도 疼重感和 함께 견디기 어려운 痛感으로 이를 疼煩이라 한다. 또 濕邪는 陰邪에 속하고 重滯한 性質의 邪氣이므로 身體轉側이 힘들고 病의 進展또한 緩慢하여 時日이 經過해도 陽明이나 少陽病으로 傳經하지 않으므로 不嘔不渴한 것이다. 이 경우 桂枝附子湯으로 散風除濕하고 扶陽祛寒해야 하며 本方은 桂枝 炮附子 生薑 炙甘草 大棗에 의해서 構成되며 桂枝는 驅風通陽하고 附子는 辛溫한 藥性으로 陽氣를 促扶해서 寒濕之氣를 溫之하고 生薑은 寒邪를 外表로 解散하고 炙甘草 大棗는 正氣를 護養하고 辛熱한 藥性을 中和한다. 針灸治療原則은 健脾胃調二便 散風濕止疼煩으로 大椎 風池穴을 이용해 解肌 通經 調和營衛하고 胃經의 合穴인 三里와 脾經의 經穴인 商丘를 取하여 先鍼後灸한 즉 通經氣化 寒濕하여 醒脾陽하고 行津入胃한 卽 二便이 自調한다. 曲池는 大腸經의 合穴로 疏經通絡하여 氣血의 閉滯를 宣暢하고 足少陽膽經

의 合穴이며 筋之會인 陽陵泉을 使用하여 舒筋利節하고 散風除濕한다.

26) 甘草附子湯方 針法

風寒濕의 3邪가 混合侵入하면 特히 寒濕한 邪氣가 關節에 留滯해서 凝結하면 筋肉間에 氣血의 流通이 障礙를 받아 筋骨이 牽引痛과 屈伸運動이 如意치 못하게 된다. 손으로 누르면 激甚한 痛症을 호소하게 된다. 또 風濕한 邪氣의 侵襲을 받으면 表裏間의 陽氣가 虛損되는 까닭에 自汗 短氣 惡風 惡寒 등을 호소하게 되고 두꺼운 옷을 입기를 좋아한다. 또 陽氣가 虛하므로 水濕으로 하여금 氣化시키지 못하므로 小便은 不利하고 肢體는 浮腫한다. 이 病症에는 甘草附子湯으로 溫經扶陽해서 風濕之邪를 除去해야한다. 甘草附子湯은 白朮 桂枝 炮附子 炙甘草로 構成되어 있다. 處方중의 桂枝 白朮 附子를 同時에 사용하면 表裏間을 走行해서 助陽化濕하는 작용이 있다. 本症은 濕邪가 關節에 깊이 侵入해 있어서 短期間으로는 除去되는 것이 困難하다는 것을 參照해서 緩慢한 治法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本方의 附子의 量은 桂枝附子湯에 比해서 減量해서 配合했으며 中和作用이 강한 甘草의 性能을 浮刻해서 處方名稱을 甘草附子湯이라 하고 있다. 이렇게 意圖하는 目的은 作用을 圓滿하게 持續시킴으로써 表裏의 邪氣를 아울러 충분히 除去시키는데 效果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針灸治療原則은 溫陽化濕하여 祛風하고 舒筋利節하여 止痛시키는 것인데 肝은 藏血하고 主筋하므로 治風에는 먼저 治血해야하므로 肝兪를 使用하는데 痺痛이 오래되어 風濕이 經氣를 阻滯하고 筋骨로 流注할 때는 肝兪穴에 灸를 하여 養血柔肝養筋하고 膀胱經氣를 疏調하여 風濕을 化濕한다. 아울러 少陰心腎이 陽虛하여 寒凝하고 水濕이

119) 朴炅 : 國譯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攷附脈訣攷證, 한국, 대성문화사, 1992, p.166.

不化한 卽 腎俞穴에 灸를 하여 陽光扶振케 하여 陰霾를 없앤다. 曲池穴은 手陽明大腸經의 合穴로 行氣導滯하여 祛風燥濕하고 陽陵泉은 足少陽膽經의 合穴로 筋之會이며 舒筋利節하여 骨節疼煩을 治療하고 曲池 手三里 此穴을 刺鍼時에는 燒山火手法¹²⁰⁾을 使用한다.

III. 考察

傷寒論에 대해서는 그 동안 많은 註釋家들에 의해 見解들이 提示되었으나 集約하면 두 가지로 하나는 傷寒論이 風寒으로 指稱되는 邪氣에 被傷된 外感性疾患에 대해서 그 證의 鑑別과 治法을 論한 專門書라는 것과 다른 하나는 傷寒論은 辨證. 論治의 書라는 見解로서 數種의 雜病까지 外感인 傷寒에 포함시켜 그 六經分證이라는 카테고리 에 모든 病은 包攝되어 있어 이 典籍에 含蓄하고 있는 全體의 意味는 傷寒一病을 論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傷寒을 例證으로 疾病 一般을 論한 것이라는 見解이다. 그런데 傷寒論은 陰陽의 區分 寒熱의 觀察 表裏의 盛衰에 관한 判斷 및 疾病의 發生과 發展의 법칙을 밝히고 있으며 특히 理論을 展開함에 있어 綱領的인 方法을 採擇함으로써 煩雜을 피하고 簡便을 취하고 있다.

즉 傷寒에는 狹義의 傷寒과 廣義의 傷寒이 있는데 狹義의 傷寒이란 주로 風寒이라는 外邪에 感受되어 發現하는 外感病證을

指稱한 것으로 前者가 이에 해당하고 廣義의 傷寒에는 中風. 傷寒. 濕溫¹²¹⁾. 熱病. 溫病¹²²⁾등을 包含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傷寒論에서 傷寒이라는 名稱이 表題로 使用되고는 있으나 그 內容에는 中風. 傷寒을 위시해서 溫病까지도 包含해서 여러 種類의 外感病證의 辨證治法을 論하고 있다.

傷寒論은 六經을 辨證論治의 綱領으로 삼고 있는데 六經이란 太陽, 陽明, 少陽, 太陰, 少陰, 厥陰의 總稱으로 素問 熱論篇의 六經分證¹²³⁾을 繼承하고 있는데 素問 熱論篇의 六經은 단지 分證의 綱領을 記述한데 그칠 뿐 辨證論治의 具體的 方法을 提示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 그 內容面에 있어서도 六經의 熱證과 實證에 대해서만 論述되고 있으나 六經의 寒證과 虛證에 대해서는 언급

121) 文濬典 外 2인 : 東醫病理學, 한국, 고문사, 1990, p.476; 濕溫은 濕熱病邪로써 發生되는 外感熱病으로 夏, 秋雨濕이 盛한 季節에 多發한다. 病理特徵은, ① 發病緩慢, 病勢綿綿, 病程較長 ② 以脾胃爲病變中心, 常留變氣分 ③ 留困日久, 可傷陽氣, 可化燥化火, 深入營血이다.

122) 文濬典 外 2인 : 東醫病理學, 한국, 고문사, 1990, p.378; 溫病은 처음 發生하였을 當時 太陽證의 範疇에 屬하는 경우이고 溫病의 全體의인 情況을 包括하는 것은 아니다. 主要症狀은 發熱而渴 不惡寒이며 病理機轉은 津傷內熱, 外受溫邪이다.

123) 傷寒一日, 巨陽受之, 故頭痛腰脊強. 二日 陽明受之, 陽明主肉, 其脈俠鼻絡于目, 故身熱目疼而鼻乾, 不得臥也. 三日少陽受之, 少陽主膽, 其脈循脇絡于耳, 故胸脇痛而耳聾. 三陽經絡皆受其病, 而未入于藏者, 故可汗而已. 四日 太陰受之, 太陰脈布胃中絡于噎, 故腹滿而噎乾. 五日少陰受之, 少陰脈貫腎絡于肺, 系舌本, 故口燥舌干而渴. 六日厥陰受之, 厥陰脈循陰器而絡于肝, 故煩滿而囊縮. 三陰三陽, 五臟六腑皆受病, 營衛不行, 五臟不通, 則死矣.

其不兩感于寒者, 七日巨陽病衰, 頭痛少愈, 八日陽明病衰, 身熱少愈, 九日少陽病衰, 耳聾微聞, 十日太陰病衰, 腹減如故, 則思飲食, 十一日 少陰病衰, 渴止不滿, 舌乾已而嚙, 十二日 厥陰病衰, 囊縱少腹微下, 大氣皆去 病日已矣.

120) 全國韓醫科大學 針灸. 經穴學教室 : 침구학 (하), 한국, 김문당, 1991, p.1124; 燒山火手法은 寒證에 使用하여 陽生熱하여 病人이 溫熱의 感覺을 느끼게 되는데 基本組成은 徐疾, 提插, 九六數, 呼吸, 開閉補瀉를 이용하여 三進一退, 緊插慢退, 行九數, 呼氣進針, 吸氣拔針, 拔針閉穴의 操作으로 이루어진다.

하지 않았다. 이와는 對照的으로 傷寒論은 六經은 관련된 臟腑經絡의 病變과 證候와를 有機的으로 결부시켜서 개괄하고 분석해서 證의 分別과 治療를 위한 指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病邪에 대한 抵抗力의 強弱, 病勢의 進退, 緩急 등과 여러 가지 素因들을 감안해서 疾病의 發生 發展過程을 통한 各種 證候를 分析, 歸納해서 病變의 部位, 寒熱의 性質, 正邪의 盛衰 및 治療의 順逆, 禁忌등을 判斷하고 이것을 診斷과 治療의 根據로 삼고 있다. 이 六經辨證은 疾病이 나타나는 證候를 6개의 系列別類 型으로 概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同時에 傷寒의 病變過程에 있어서 각기 相異하거나 관련을 가지는 6개의 段階의 過程의 存在를 提示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편 六經에 의하여 陰陽을 구분하고 이 陰陽은 表裏, 寒熱, 虛實의 變化와 因果性 그리고 法則을 概括하고 있다고 하는 六經과 八綱의 實質的연관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 것이다.

六經의 病은 각기 別個의 孤立된 六組의 證候가 아니라 經絡臟腑의 病變이 反映된 現狀으로 보아야 하는데 六經 中의 三陽經의 病症은 六腑의 病變을 反映한 것이고 手足三陰經의 病證은 五臟의 病變을 反映한 것이다. 또 經에 있던 邪氣가 解消되지 않을 때는 經을 따라 入裏해서 臟腑의 病을 촉발시킨다. 例로 太陽病에는 經證¹²⁴⁾도 있고 府證¹²⁵⁾도 있는 것 등 이런 例들은 모두

124) 朴憲在 : 傷寒論概論, 한국, 약업신문, 1991, p.28; 太陽經證이란 病邪가 太陽經表를 侵襲하고는 있으나 아직 太陽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상황의 證을 말한다.

125) 朴憲在 : 傷寒論概論, 한국, 약업신문, 1991, p.61; 太陽의 經脈에 있던 邪氣가 經에서 解除되지 않으면 그 邪氣는 經脈을 통해서 腑로 들어감으로 太陽病府證을 형성하는데 經脈을 循行하고 있는 邪氣가 膀胱의 氣化機能

臟腑와 經絡의 相互關係를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經脈의 走行 關係에 의해서 각기 經脈과 臟腑간에는 相應하는 表裏關係가 있는데 이 表裏關係에 있는 臟腑經脈에 病變이 생기면 相互關聯함과 동시에 影響으로서의 反映이 생긴다. 예를 들면 太陽病은 體表에서 陽氣가 邪氣를 맞아 抗爭하기 때문에 太陽經의 表證이 나타난다. 그러나 太陽에서의 邪氣에 대한 抵抗力이 低下되면 表裏關係에 있는 少陰의 陽氣도 傾虛해지므로 太陽의 邪氣는 越經해서 少陰에 入裏한다.(表裏傳) 그러나 少陰의 陽氣가 회복해서 이 抵抗機能의 회복으로 邪氣를 體表로 逐出하게 되면 病變은 陽으로 轉化해서 太陽으로 外轉한다. 이러한 太陽과 少陰間의 病症에서 볼 수 있는 轉化나 出入은 그것들이 서로 表裏關係에 있는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表裏關係에 있는 經脈, 臟腑의 病症이 相互關聯되고 相互影響하는 것은 餘他 經脈이나 臟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辨證上 思考 方式, 즉 陰陽, 表裏, 寒熱, 虛實 등에서 생기는 矛盾性 活動 속에서 臟腑經絡의 病理變化를 인식하는 일 그것이 傷寒論이 疾病을 인식하는 基本的方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意味에서 六經變證도 臟腑辨證의 한 부분인 것이다.

傷寒論이 古典醫書들 중에서 특히 그 價値를 높이 評價받고 있는 이유는 그 卓越한 辨證論治에 立脚한 理論體系 때문인데 張仲景은 陰陽學說을 繼承해서 이 理論을 臨床經驗에 결부시켜 더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키는 데 성공하여서 傷寒論은 六經辨證의 大綱이 바로 陰陽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다.

에 영향을 미친즉 太陽蓄水症이 형성된다. 또 經脈을 循行하는 邪氣가 血과 相合하면 太陽蓄血證이 發生한다.

즉 三陰三陽이 모아진 六經辨證의 大綱은 陰陽에 있는 것이다.

六經辨證을 행사할 경우 病이 陰으로부터 發했는가 陽에서 生했는가 하는 먼저 陰陽을 分別하는 것이 절대로 중요한 일이며 이 大綱을 把握한 후에 여러 가지 綱目도 부칠 수 있는 것이다. 즉 病位의 所在, 病情, 病勢의 進退등을 探究하게 되고 表裏, 寒熱, 虛實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六經辨證의 論理를 일관하는 八綱辨證의 구현으로서 疾病을 8개의 주된 요소로 식별하는 것이며 辨證論治의 前提가 되는 不可缺의 條件인 것이다. 즉 六經辨證은 八綱을 臟腑經絡과 확실하게 결부시킴으로서 八綱辨證은 臟腑經絡辨證과 有機的으로 결부시키는 것이 되며 八綱辨證의 不足함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다.

歷代의 傷寒論 研究學者들은 傷寒論에서 六經의 意味를 ‘經은 經을 意味한다’라는 見解 卽 經으로서 邪氣가 去來하는 經路를 알 수 있는 지표로 삼는다고 했다. 또 ‘經은 界를 뜻한다’한 것은 경에 의해서 병에는 범위가 있어서 서로 혼돈해 있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을 지적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따라서 經을 이해하는 것은 證을 辨別함에 있어 一目瞭然한 指標가 되는 길이다. 즉 頭項이 強痛하면 太陽의 經脈이 受邪한 證據이며 綠綠面赤하고 額痛하고 鼻乾하면 陽明經脈이 受邪한 것이고 耳聾하고 胸背苦滿한 즉 少陽經脈이 受邪한 것이다. 腹滿하고 時痛 時減하면 太陰經脈이 受邪한 證據이고 咽乾 咽痛하면 少陰經脈이 受邪한 것이다. 頭頂痛하고 乾嘔吐涎沫 한즉 厥陰經脈이 受邪한 證據등으로 經과 界를 알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證候의 發生과 그 理由를 설명 하려면 經絡學說을 떠나서는 說明할 길이 없다. 또 經絡系統의 連結, 交會의 關係에

있어서도 人體의 五臟六腑, 表裏上下, 四肢 九竅, 皮肉筋脈등 各組織器官은 하나의 統一된 有機的인 전체로 되어 있는 바 이 사실에 비추어 六經辨證은 臟腑經絡의 病變 또한 相互影響을 授受하는 有機性에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例로 發熱과 惡寒이 있고 脈이 浮한 것은 太陽經의 表가 受邪한 것이다. 그러나 脈이 浮하지 않고 沈脈이면 太陽의 表邪가 少陰에 累를 끼치고 있는 證據이다. 太陽과 少陰은 表裏關係에 있으므로 少陰에 陽氣가 不足한 상태에서는 風寒에 外感하면 兩經이 同時에 邪氣를 받게 되어 太陽과 少陰의 ‘兩感症’이 된다. 또 脾와 胃는 서로 表裏關係에 있어서 일단 病變이 생기면 서로 影響하는 처지가 된다. 그러므로 ‘實則陽明 虛則太陰’이라는 連結句가 생긴다. 이와 같이 病變이 서로 影響을 授受하는 것은 表裏關係에 있는 經絡 및 臟腑間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인 바 이런 의미에서도 辨證이란 經絡을 무시하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다. 辨證은 六經을 掌握함으로써 辨證上 範圍가 明白해지고 規準이 確實하게 세워진다. 이것이 傷寒論의 核心的 精神인 것이다. 아울러 傷寒論의 辨證論治의 精神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많은 相互間에 關聯되기도 하고 矛盾되기도 하는 錯雜한 證候나 治法을 하나로 연결시켜 이것을 多角度로 比較鑑別하고 이것을 反復하는 동안 그 중에서 學者들로 하여금 올바른 結論을 얻게 만들도록 辨證의 思考 姿勢를 深化시키게끔 誘導하고 있는 點인데 例로 傷寒論에서 提示한 條文들은 하나 내지는 둘씩의 主要한 證候를 鑑別, 比較하는 것으로써 辨證을 쉽게 하는 것이다.

以上에서 傷寒論의 研究, 傷寒論에서 六經의 意味, 六經과 臟腑와의 關係를 살펴 보았다.

지금부터는 太陽病의 辨證綱要와 함께 六經의 經證 府證과 함께 各各의 證에서 제시된 處方과 거기에 相應하는 針灸治療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太陽病의 經證

太陽經證이란 病邪가 太陽經表를 侵襲하고는 있으나 아직 太陽府에는 影響을 미치지 않는 狀況의 證을 말한다. 經과 府는 서로 表裏關係에 있어서 太陽經證이란 太陽의 表證인데 반해 太陽府證은 太陽의 裏證이란 差異가 있는 것이다. 條文에서 例示한 “脈浮 頭項強痛而惡寒”하는 太陽病은 주로 太陽經病임을 말한 것이다. 이 太陽病經證은 그 形證에 따라 太陽中風과 太陽傷寒의 둘로 구별하게 되어있다.

1) 太陽中風證(桂枝湯證)

太陽中風은 風邪가 外襲해서 太陽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이라는 기초적인 脈證外에 다시 “發熱, 汗出, 惡風, 脈緩”등의 證候가 添加된 太陽病證의 一種이다. 이것은 循環系 疾患인 腦血管異常에서 發病하는 ‘中風’과는 根本적으로 다른 것이다. 太陽中風은 桂枝湯을 治療의 根本方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太陽中風을 桂枝湯證이라고도 일컫는다. 桂枝湯은 解肌發汗 調和營衛를 목표로 삼고 있으므로 針灸治療에서는 手足三陽之脈과 督脈이 大椎에 모이고 通陽主表하고 膀胱經인 京骨 申脈으로 祛風邪하며 主陽主表하는 陽維脈을 이용하는데 風池는 陽維脈과 足少陽經의 會로써 表邪를 疏海한다. 또 一身의 陽氣를 主管하는 督脈과 通하는 後谿로 解肌驅風하고 陽明經穴인 曲池 足三里를 이용하여 穀氣를 充足시켜 營衛를 調和시키는 동시에 土足生金하여 益氣固表한다.

(1) 桂枝湯의 加減症

① 桂枝加葛根湯證

本方은 桂枝湯證에다가 項背部的 強急을 治療하는데 桂枝湯方 針穴에다가 絶骨 後谿 大杼 天柱 筋縮을 사용하는데 絶骨은 膽經穴로 頸項部를 通過하므로 項背強을 治療하고 後谿는 小腸經의 穴이지만 督脈과 通하여 太陽經氣를 疏通시키므로 項背強几¹²⁶⁾를 治療한다. 大杼 天柱 筋縮은 膀胱經의 背俞穴로서 膀胱經은 督脈兩側에 있으면서 督脈과 더불어 通하므로 肌肉濡養하여 強急을 緩和시켜서 項強을 治療한다.

② 桂枝加厚朴杏子湯證 針法

本證은 平素에 喘證이 있는 사람이 太陽中風證에 罹患된 것으로 桂枝湯證으로 調和營衛하고 厚朴과 杏仁으로 輸脾寬胸 宣降肺氣하여 治療한다.

鍼治療는 大椎 風池 足三里 曲池穴에 刺針하여 桂枝湯의 경우처럼 祛風解肌 調和營衛시키고 豐隆 列缺 魚際穴로 宣肺定喘하는데 豐隆穴은 胃之別絡으로 太陰經으로 別走하며 清肺熱하고 列缺은 宣肺定喘하며 魚際穴은 表證의 發熱 頭痛 咳喘等を 治療한다.

③ 桂枝加附子湯證 針法

此證은 發汗太過로 遂漏汗不止하여 생긴 것으로 心陽이 虛微하고 腠理不密하여 惡風하는 것인데 津液이 外로 泄하여 不能下輸膀胱하므로 小便不利하고 陽虛하여 筋肉을 滋養하지 못해서 四肢微急하고 難以屈伸한 것으로 陽虛를 補陽해야 하므로 督脈과 手足三陽의 會인 百會와 元氣之海인 氣海穴에 灸를 하여 升舉陽氣 固陽固脫하고 振扶元陽한다. 아울러 氣海穴에 足三里를 配穴하여 補益中陽하여 回陽하고 止汗시켜서 津液을 恢復시켜 筋脈을 濡養하여 四肢微急과 小便

126) 頭項과 背部的 肌肉, 經脈에 땅기는 不舒感이 있는 症狀.

難을 治療한다. 委中穴을 刺針하여 太陽經氣를 疏通한다.

④ 桂枝加芍藥生薑一兩人 參三兩新加湯證 針法

太陽病에서 發汗後에 身體疼痛은 대체로 氣血이 兩虛한 까닭에 筋脈의 滋養이 이루어지지 않은데 起因한다. 脈象도 氣虛하고 血虛하므로 血脈이 充滿하지도 못하고 이를 고동시킬 力量도 不足하므로 脈은 沈遲하게 나타난다. 治法도 溫補로서 治療해야 하는데 大椎 風池로 發汗解肌하여 調和營衛하고 背俞穴인 肝俞 脾俞 腎俞로 兩補氣陰하며 築賓 內關穴로 滋陰養血한다. 그리고 關元과 小腸俞에 灸를 하여 振扶元陽으로 陽生陰長하게 한다.

2) 太陽傷寒證(麻黃湯證) 針法

太陽傷寒證은 寒邪에 外感되어 일으킨 太陽病 “脈浮, 頭項強痛而惡寒”이라는 基礎的 脈證위에 첨가한 無汗而喘 頭痛, 身痛, 腰痛, 骨節疼痛, 脈緊等の 證候를 갖춘 일종의 典型的인 太陽表證이다. 그 주된 治療處方이 麻黃湯으로 되어있어서 太陽病傷寒證 또는 ‘麻黃湯證’이라고 한다. 太陽中風證과 太陽傷寒은 다함께 太陽經表證에 속하나 각각 다른 2종의 特徵的인 證候가 있다. 太陽病中風은 風邪에 外感되어 發病하는 것으로 肌表가 疏緩해져서 自汗出하기 때문에 이것을 ‘表虛’라고 하며 太陽傷寒證은 寒邪에 所傷되어 發病하는 것으로 肌表는 密閉해져서 無汗하므로 ‘表實’이라고 한다. 本方은 外感風寒表實證을 治療하는 處方으로 寒邪가 表를 聚束하여 正邪가 相爭하고 寒邪로 因해 皮毛가 閉塞되어 肺氣가 不宣하여 일어난 症狀이므로 發汗宣肺하여야 하는데 大椎穴이 表邪를 解散하고 後谿가 通督脈하여 解表散寒하고 膀胱經의 穴인 大杼 風門으로

寒邪로 鬱肺된 表部를 發表汗出하여 疏通시킨다. 동시에 列缺 喘息穴로 宣肺氣 降氣定喘하고 肺俞穴로 背部經氣를 疏通시키면서 宣肺平喘한다.

(1) 麻黃湯의 加減證

① 小青龍湯證 針法

本證은 傷寒表證이 不解한 상태에서 水飲이 心下胃脘部에 停蓄되어 上逆해서 犯肺하여 咳하고 犯胃하여 乾嘔의 症狀을 發하면서 肺失宣降한 所致이므로 大椎 後谿로 發散外寒하고 肺俞 列缺로 宣肺氣하여 驅除內飲한다. 中腕 太白穴로 水飲이 心下胃脘部에 停蓄된 것을 治療하는데 胃의 募穴이고 膈會穴인 中腕穴로 益胃하여 理氣化痰하고 脾經의 原穴인 太白穴로 健脾利濕한다.

② 大青龍湯證 針法

本證은 傷寒表證에서 不汗出하여서 肌表에 있던 邪熱이 體內로 陷入하여 鬱蒸하여서 煩躁症을 發한 것으로 風寒表實證에 裏熱이 兼하여 있는 것이다. 治法은 解表清熱시켜야 하는데 大椎 後谿穴로 發散外寒하고 曲池穴로 祛風解表 清熱利濕하는 同時에 內關과 足三里穴로 內部的 熱邪를 清熱하는데 內關은 胸膈部의 熱邪를 清熱하고 足三里는 理脾胃 清內熱한다.

③ 葛根湯證 針法

本證은 無汗惡風이라는 風寒表實證에 項背強几几의 筋脈失濡潤한 症狀이 主가 되는데 熱府이며 足太陽經과 督脈之會인 風門穴과 督脈, 足太陽經, 陽維脈之會인 風府穴을 配穴하여 督脈과 足太陽經의 經氣를 疏通시키면서 祛風散寒하고 諸陽之會인 大椎穴로 諸陽經의 經氣를 宣通한다. 絕骨穴과 督脈과 通하는 後谿穴로 太陽經을 散寒通經하여 項背強几几를 治療하고 陽明經인 足三里와 陽谿穴로 胃腸을 調和하여 津液이 背部로 上升하게 한다.

2. 太陽經의 府證

脈과 臟腑는 相互 連絡關係에 있어서 陽經은 府에 陰經은 臟에 連繫를 이루고 있다. 太陽經은 三陽經 中の 한 經 卽 일정한 經絡과 영역의 패턴이 內部로는 太陽의 府 즉 膀胱에 連絡되고 있는 關係에 있다는 것이다. 太陽의 經脈에 있던 邪氣가 經에서 解除되지 않으면 그 邪氣는 經脈을 통해서 府로 들어가므로 太陽病府證을 형성하게 된다. 만약 經脈을 循行하고 있는 邪氣가 膀胱의 氣化機能에 影響을 미친즉 太陽蓄水證이 形成된다. 또 經脈을 循行하는 邪氣가 穴과 相合하면 太陽蓄水證이 發生한다.

1) 太陽蓄水證

太陽蓄水證은 언제나 太陽經證에서 傳受해서 發生하는 形證으로 太陽表證이 解除되지 않았거나 또는 發汗法을 타당치 못하게 시행했을 때 太陽의 邪는 經을 따라 入裏하는데 太陽의 府가 邪氣의 影響을 받으면 膀胱의 氣化作用이 障害를 받아 氣化自體가 不利해지고 水津에 上升해 陽氣를 和潤하지 못하므로 煩渴欲飲水 한다. 또 水分의 氣化作用이 이상적으로 遂行되지 않을 경우 飲水量 만큼의 水分이 이상적으로 吸收되지 못하므로 飲水卽時 吐出해내는 水逆症이 形成되고 飲水된 물이 膀胱까지는 輸送되더라도 氣化作用이 不利해서 正常的으로 排泄이 行해지지 않을 때 小便不利症을 形成한다. 즉 太陽蓄水證이란 太陽에 속하는 表裏經府가 同時에 罹病한 것을 지칭하며 五苓散으로 主治하는데 鍼治療는 大椎 列缺로 表部の 邪氣를 通陽解表시키고 서로 表裏經인 膀胱經의 京骨과 腎經의 太谿로 太陽經氣를 疏通시킨다. 아울러 中渚穴로 三焦經氣를 調暢하여 通利水道하고 本證은 小便不利가

主症이므로 膀胱俞로 利小便시키며 三陰交 陰陵泉으로 祛濕시킨다.

2) 太陽蓄血證

太陽經脈의 邪氣가 入府하여 熱이 血과 結合해서 太陽蓄血證을 形成하는데 邪熱이 太陽府인 膀胱에 들면 一次的으로 膀胱의 氣化作用에 障碍要因이 되는 것이나 二次的으로 入府한 熱은 表熱과는 성질이 다른 內熱로서 內熱은 營血의 亂調를 촉발하는 原因이 되는데 이를 ‘熱血相搏’이라 한다. 즉 入府한 內熱이 營血과 相搏해서 損傷된 營血이 膀胱에 貯蓄된 것을 指稱한 것이다.

(1) 桃仁承氣湯證 針法

本證은 表證의 邪氣가 府로 入裏하여 下焦蓄血證을 이룬 것으로 瘀血이 下焦에 鬱結하여 少腹이 急結하고 小便은 自利하며 熱邪가 血分에 있어 夜間에 發熱하고 心神을 搖動하므로 逐瘀清熱해야 하는데 大椎로 肌表之邪를 除去하고 足三陰經과 冲任脈으로 瘀血을 除去하는데 關元은 足三陰과 冲任脈의 會로 胞中에 正在하여 膀胱熱結을 治療하고 四滿은 腎經과 冲脈의 會로 少腹積聚를 治療하고 活血散瘀한다. 太谿와 飛揚은 腎 膀胱經으로 表裏相通으로 膀胱經氣를 通調하며 委中穴을 出血하고 心包經인 間使를 瀉하여 瘀血을 除去하고 心神搖動을 治療한다.

(2) 抵當湯證 針法

本證은 瘀血이 時日이 經過하여 硬結된 것이 少腹硬滿 發狂과 같은 瘀血初期의 證과 비교해서 顯著하게 重한 證候에 使用하며 破瘀瀉熱을 治法으로 하는데 症狀에서 發狂하는 것은 濁熱이 循經上搖한 것이므로 心經의 表裏인 小腸經의 募穴인 關元을 取해서 通竅하여 瀉熱하고 足三陰 任脈의 會로 少腹蓄血에 瀉法으로 行瘀散結한다. 四

滿은 足少陰 冲脈의 會로 瀉血行血하여 臍下積을 治療하고 中極은 膀胱經의 募穴로 任脈을 調하여 通胞宮한다. 또 肝經이 陰器를 돌아 少腹으로 循行하므로 肝經의 原穴인 太衝으로 氣血을 宣導한다. 合谷과 後谿로 濁熱을 下降시키면서 內로는 清熱 外로는 解表邪하고 三陰交로 足三陰經을 다스려 氣血을 行하게 하고 瘀結을 散한다.

3. 結胸證

結胸은 表邪가 內陷하는 과정에서 熱邪가 痰水와 結合해 胸廓部에 結聚된 病變인데 그 病變處는 胸廓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下腹部에까지 波及한다. 그 일반적인 病因은 熱實에 屬하나 그밖에도 寒邪로 變하면서 痰水와 結合해서 寒實結胸證을 形成하는 例도 不無하다. 結胸은 病變의 範圍의 大小, 病狀의 輕重 및 熱證이나 寒證이나의 相異에 따라 大結胸, 小結胸, 寒實結胸等 證候로 分類할 수 있다.

1) 大陷胸湯證 針法

本方은 水飲과 熱邪가 堅固하게 結合해서 생긴 大結胸을 治療하는데 大結胸은 한편으로 病邪의 結合한 形狀이 激甚한 것을 표현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病邪가 結合해서 集中된 病症의 範圍가 현저히 큰 것을 뜻한다. 大陷胸湯은 水飲과 熱邪가 結合한 病邪를 瀉下시키는 急激한 方劑이다 鍼治療는 巨闕 關元 中脘 天樞로 心下에서 少腹까지 硬滿而痛을 치료하는데 巨闕은 清心化積하여 熱病胸中暴痛을 治하고 關元은 少腹之熱을 清하는데 巨闕 關元으로 上下之結을 治한다. 中脘은 清胃化滯하고 天樞는 大腸經의 腑氣를 疏泄하여 蕩熱實한다. 아울러 合谷으로 熱邪壅滯를 治하고 復溜로 清熱利濕하여 腹脹을 다스리며 支溝로 三焦之氣를

清利하여 通調水道하고 陽陵泉으로 痰火¹²⁷⁾之鬱滯를 清瀉한다.

2) 大陷胸丸證 針法

大陷胸丸證은 熱邪와 水飲이 結合한 大結胸證으로서 病邪는 주로 上部에 位置하고 症狀은 心胸部가 硬張하거나 激甚한 痛症을 主徵으로 하고 있으며 熱邪가 胸部로 內陷해서 水飲과 結合한 即 病勢는 胸上部에서 激甚해져서 汗出하기도 하고 項背筋의 強急으로 仰俯¹²⁸⁾運動이 不如意한 等の 柔痙에 近似한 證을 發하는데 大陷胸丸을 써서 水飲과 熱邪가 結合한 病邪를 緩和해야 한다. 鍼治療는 巨闕 中脘으로 上部의 實證을 瀉熱破結하는데 巨闕은 心氣를 統率하여 瀉火熱해서 濁降하고 中脘은 開胸順氣하고 清熱化滯한다.

日月 天樞穴로 水熱之結을 疏泄하는데 日月은 足太陽 足少陽 陽維脈의 會로 少陽樞機를 調整하여 司開闔하고 天樞는 腑와 臟을 通調하여 行氣導滯한다.

3) 小陷胸湯證 針法

本方은 小結胸을 治療하는 方劑로 小結胸이란 表位에 있던 熱邪가 內陷해서 心下部의 痰飲과 結合해서 形成된 것으로 病邪의 位置는 心下라는 한정된 位置 即 胃脘心窩部에 局限해 있어서 그 影響範圍가 넓지 않아서 上으로는 項背部에까지는 미치지 않고 아래로도 少腹에까지 病邪의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이 常例이다. 또 局所의 痛症도 比較的 가벼워 按壓하면 비로소 異常痛感이 있을 정도이며 그 脈象도 大陷胸湯證이 沈緊한 것과는 반대로 浮滑한 脈象이다. 鍼治療도 病邪가 心下에 局限되어 있으므로 膻

127) 無形の 火와 有形の 痰이 煎熱膠結되어 肺에 貯積된 病症을 말함.

128) 목을 上下로 구부리고 펴는 것.

中 巨闕 內關으로 心胸部의 熱邪를 淸利하는데 膻中은 心包經의 募穴로 寬胸理氣하고 巨闕은 心經의 募穴로 淸心하고 通胃氣하여 痰濁을 없애고 內關은 心胸部의 熱邪를 除去한다.

豐隆은 胃經의 絡穴로 健脾胃하여 祛痰化濁하고 支溝는 三焦經의 腑氣를 淸利한다.

4) 三物白散方 針法

本證은 寒實結胸에 使用하는데 寒實結胸은 寒邪와 痰飲이 結合해서 生成된 病이다. 이 病邪가 橫膈膜上에 있으면 胸中에서 硬痛이 顯著하며 病邪가 橫膈膜下에 位置하면 心下部에 硬痛이 있거나 心下部에서 腹部에 連한 硬痛 내지는 脹痛의 형태로 나타난다. 病이 寒邪와 痰飲의 堅固한 結合에 의해 形成되는 病人 까닭에 이 影響은 府에 있어서의 氣의 流通이 障礙를 받는 까닭에 일반적으로 大便의 秘訣 症狀이 顯著할 수 있다. 鍼治療에 있어서도 寒痰을 除去해야 하므로 膻中穴에 灸를 하여 攻寒逐水하고 心包經의 絡穴인 內關을 써서 胸膈의 寒痰을 除去하고 脾經의 絡穴인 公孫을 사용하는데 公孫은 冲脈과 通하여 胸中에 이르러 胸中痰을 消痰한다. 氣海 足三里로 益氣健脾하는데 氣海는 元氣之海로 振扶元陽하여 少陰之本을 固結하여 寒邪를 除去하고 足三里는 補益中陽健脾하여 祛痰한다.

4. 心下痞證

心下痞란 胃脘部가 痞塞해서 飲食物의 流通이 不便하게 느껴지는 病症이다. 그 特徵으로는 이와 같은 症狀에도 불구하고 外形上의 變化는 別반 認定되지 않고 때로는 心窩部가 膨滿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긴 하나 이를 按壓해 보아도 柔軟해서 痛症은 없는 것이 常例이다. 극히 部分的인 病例에서 痛

症을 感知하는 수도 있으나 거의 대부분 痛症은 없는 것이 常例이다. 痞證의 形成은 傷寒表證을 誤下하여 裏의 正氣를 損傷시킴으로써 表邪가 內陷하여 氣의 疏通流行이 窘塞해진 것이 痞의 形成原因이며 心下가 胃의 上腕部로 身體의 中央에 位置하고 이 位置가 邪氣로 因해 痞塞하면 氣의 上升下降하는 運行에 阻障을 招來하게 된다.

1) 半夏瀉心湯證 針法

半夏瀉心湯은 心下痞에 痰飲症狀을 隨伴한 것으로 原因은 氣의 升降失調를 筆頭로 脾와 胃의 不調和, 中焦之氣의 痞塞, 寒熱錯雜, 痰飲의 内生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症候群이 證으로서의 成立與件과 관련지어 고찰하면 胃氣는 上逆해서 不降하는 까닭에 惡心嘔吐하는 것이고 脾氣는 不調함으로써 上升치 못하고 腸鳴下利하며 上下를 交通해야 할 氣가 失調해서 中焦에서 痞塞함으로써 心下痞滿하는 것이다. 鍼治療는 巨闕로 調心火하고 下降而通腎하여 陰陽二氣를 交合하여 和胃降逆한다. 膈俞穴은 穴之會로 行血調氣하며 寬胸降逆한다. 痰飲은 脾胃經의 不和로 생긴 것이므로 脾俞穴과 內庭穴을 취하는데 脾俞穴은 膀胱經氣를 疏通하는 동시에 運脾和中하고 內庭은 胃經의 穴로 氣機升降之本을 健運케하여 痰飲을 化痰하여 없앤다.

2) 生薑瀉心湯證 針法

生薑瀉心湯은 心下痞滿에 水氣證候를 수반한 증이다. 生薑瀉心湯과 半夏瀉心湯은 發生機轉이나 證候에 있어서 서로 近似한 점이 많아서 兩證이 다 脾胃의 不和, 脾氣의 上升과 胃氣의 下降作用의 失調과 더불어 氣의 流用이 痞塞하다는 病變을 갖추고 있다. 그 結果로 心下痞라는 主證이 발생하고 서로 다른 점은 半夏瀉心湯은 痰飲을 隨

伴한 症인데 대해 生薑瀉心湯은 水氣를 隨伴한 症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本方의 證은 脾氣가 虛하여 水氣를 運化시키지 못하는 결과 氣化하지 못한 水邪가 脇下를 流注하기도 하고 腸間을 流注하기도 해서 脇下刺痛하기도 하고 腸鳴하기도 하며 또 水性下利의 症이 發現되기도 한다. 脾虛하므로 消化不良 不消化性噯氣 口臭等の 證候가 나타난다. 鍼治療에 있어서도 本證이 脾胃虛로 因해 나타난 것이므로 內關을 通해 胸部를 寬胸宣通하여 痞證을 治하는 同時에 中脘으로 健胃시켜 消納水穀하고 脾胃俞를 瀉法을 이용해 健脾胃하여 運化精微한다. 足三里를 取하여 脾胃機能을 돕고 升降氣機를 調理하고 陷谷은 胃腸을 補益하여 散水消痞한다.

3) 甘草瀉心湯證 針法

太陽病을 治療하는 過程에서 誤治에 의해 거듭 瀉下시킨결과 中焦가 虛해지므로 邪氣가 下陷하고 客氣가 上逆해서 形成된 心下痞證에 甘草瀉心湯을 사용한다. 鍼治療도 補胃降逆하여 痞消除煩해야 하는데 中脘 內關으로 補胃氣하여 胃虛痞를 治療하고 胃經의 合穴인 足三里와 輸血인 陷谷穴로 健脾和胃시켜 氣機升降을 調節하며 任脈穴인 建里와 胃經의 榮穴인 內庭穴로 補胃하여 痞證을 消痞한다.

4) 大黃黃連瀉心湯證 針法

半夏,甘草,生薑瀉心湯證은 모두가 上熱下寒¹²⁹⁾, 寒熱錯雜이라는 特徵을 구비하고 있다. 그러나 本證은 이들과는 달리 熱邪에

의한 氣의 痞塞에 屬하고 있으며 證候의 特徵은 無形한 熱邪가 心下에 結集된 것으로 因해 心下痞滿感은 있으며 按壓한 處局所反應은 連해서 堅硬하지 못하고 熱邪의 특징으로 關脈이 浮하다. 鍼治療는 心胸部를 清熱하고 滋腎水하는 것으로 巨闕은 心經의 募穴로 心火를 下降시키고 少衝은 心經의 井穴로 刺出血하여 火熱을 清降시키고 豐隆穴로 氣를 下降시키며 尺澤穴을 出血시켜 清熱한다. 靈道는 心經의 穴로 行氣活血하여 寧心시키고 水泉은 腎經의 穴로 滋腎水하여 津液을 生하게 하여 火降한다.

5) 附子瀉心湯證 針法

附子瀉心湯證은 熱痞證이기는 하나 여기에 表陽虛症이 添加된 證인데 腎의 陽氣가 虛해져서 體表를 守護할 衛陽之氣의 化生이 充分하지 못해서 溫補護衛할 機能이 低下하여 惡寒하고 汗出하는 것이다. 鍼治療는 扶陽하여 脾를 瀉하고 溫經清熱하는데 心經의 原穴인 神門과 腎經의 原穴인 太谿로 調心安神, 滋陰시켜 水火既濟를 이루고 關元에 灸를 하여 溫陽壯元하여 命門火를 돕는다. 氣海穴은 關元和 함께 振扶陽氣한다.

6) 旋覆代赭湯方 針法

旋覆代赭湯은 胃虛한 患者가 痰飲을 隨伴한 外에 肝氣上逆해서 生한 心下痞證을 指稱하는데 太陽表證을 治療하는 過程에서 發汗後에 誤下로 胃氣는 더욱 虛해지는데 胃氣가 虛損해지므로 木克土라는 病理關係로 肝氣乘之 하는 것이다. 胃虛로 因해 生成된 痰飲이 氣의流通을 不完全하게 만들어 心下에 痞塞한 狀況에서 上逆한 肝氣는 계속 下降하지 못하므로 噯氣가 계속 나오고 痞滿도 不解하는 것이다. 鍼治療時 治法도 和胃하는 同時에 疏肝理氣시키는데 脾經이 病이 되면 腹脹善噯하고 沖脈이 病이되면 逆氣裏

129) 患者가 같은 時期에 上部에는 熱性證候를 나타내고 下部에는 寒性證候를 나타내는 것으로 病因上은 寒熱錯雜이고 病理上으로는 陰陽의 氣가 協助不能해서 上部로는 陽盛하고 下部에서는 陰盛한 所致이다.

急하므로 公孫穴을 取하여 健脾降逆하고 育俞穴로 益氣降冲한다. 中脘을 補하여 健脾胃하고 太衝穴을 瀉해 疏肝하여 脾胃를 强하게 하면 痞證도 없어지고 噫氣도 없어진다.

5. 太陽病의 變證

變證이란 誤治에 의한 病狀의 變化가 발생한 것으로서 變證이 甚한 경우에는 壞病으로 發展하게 된다. 變證은 太陽病을 誤治해서 발생한 變證이기는 하나 그 發現證候群은 太陽病의 範疇내에서 처리될 수 있는 證이 아닌 것이 오히려 常例인 것으로 되어 있다. 一般의으로 太陽病에 屬하는 것은 中風이던 傷寒이던 간에 그 主證이나 兼證을 不問하고 證候展開에는 一定한 法則이 設定되어 있다 그러나 太陽病의 變證에서는 그 樣相이 다를 뿐 아니라 그 形成原因도 複雜하고 證候上 變化도 다양해서 陰陽, 表裏, 寒熱, 虛實間에 다양한 變化의 可能性을 띠고 있다. 즉 六經의 傳經法則이 그대로 도용될 수 없는 例外性이 豊富한 것이다. 그러므로 六經의 傳經¹³⁰⁾法則을 超越하고 있는 變證의 形成過程에 대해 細心한 省察을 가해두는 것은 辨證論治의 能動的 活用을 위해서 重要한 意義를 갖고 있는 것이다.

1) 心陽虛로 因한 水氣上衝證(苓桂朮甘湯證 針法)

太陽表證의 경우 吐法 汗法으로 治療하면 일단 表邪는 解除되나 心陽이 被害를 입고 中焦之氣가 弱化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因해 下焦水氣가 上衝하여 心陽을 壓迫하므로 動悸證이 發하고 頭暈目眩하는 것이다. 鍼治療時도 健脾行水하고 理氣降冲해야 하는

데 脾俞穴로 健脾益氣利濕하여 中陽이 不振하여 水濕이 內停하는 것을 治療하고 陰陵泉으로 降逆利水하여 健脾시킨다. 아울러 胃虛하면 肝氣가 乘之할수 있으므로 肝經의 原穴과 募穴인 太衝과 期門으로 疏肝解鬱해서 肝氣의 橫犯을 瀉한다.

2) 腎陽虛로 因한 汜水證(眞武湯證 針法)

太陽病에서 發汗을 過度히시켜 下焦腎陽이 損傷된 경우에도 上中焦의 陽이 虛해져 水氣를 制御하지 못하고 水氣汜濫하는 病證을 誘發한다. 太陽과 少陰은 表裏關係에 있으므로 太陽之氣는 少陰의 腎陽에서 化生되는 것이다. 따라서 太陽의 發汗이 過多했을 때는 반드시 少陰腎中의 陽氣를 損傷시키는 것이 된다. 그리고 少陰腎陽이 虛해지면 그 자체 收斂해서 內藏할 수 없어 虛陽이 外表에 浮上하여 “其人仍發熱”이라는 狀況이 된다. 즉 陽虛로 水氣가 心氣와 淸陽을 抑制하여 動悸와 眩暈이 생기고 筋脈을 滋養할 수 없으므로 振振搖動하여 쓰러질 것 같이 되는 것이다. 鍼治療는 扶陽하여 寒水를 除去하는데 關元穴에 灸를 하여 壯陽으로 命門眞火를 도와 寒邪를 除去하고 膀胱經의 募穴인 中極으로 利小便시킨다. 太谿穴로 補腎하고 足三里로 中宮을 暖하여 降冲逆한다.

6. 太陽病의 類證(風寒濕痺의 證)

1) 桂枝附子湯證 針法

本證은 風濕이 同時에 人體를 侵犯하여 經脈의 氣血이 阻滯되고 鬱滯된 것으로 鍼治療時 大椎 風池로 解肌 通經하여 風邪를 除去하고 胃經의 合穴인 足三里와 脾經의 經穴인 商丘穴을 灸를 하여 脾胃經의 濕邪

130) 傷寒病이 一經의 證候에서 다른 一經의 證候로 變遷하는 것이다.

를 化濕하며 大腸經의 合穴인 曲池로 氣血의 鬱滯를 宣通한다. 동시에 膽經의 合穴이며 筋之會인 陽陵泉으로 散風除濕한다.

2) 甘草附子湯證 針法

本證은 風寒濕의 三邪가 侵犯하여 寒濕한 邪氣가 關節에 侵入하여 氣血循環에 障礙를 주어 筋肉의 屈伸運動이 不利해지고 陽虛로 氣化不能해져서 小便不利하고 肢體가 浮腫하는 경우를 治療하는데 鍼灸治療는 溫陽化濕하여 祛風하고 舒筋시켜 止痛시키는데 肝俞에 灸를 하여 養血柔肝함으로 經氣를 阻滯한 風濕을 散하고 腎俞穴에 灸를 하여 水濕이 不化한 것을 化濕하며 曲池穴로 氣血循環을 通利시켜 祛風散濕한다. 筋之會인 陽陵泉으로 骨節疼痛을 치료한다.

IV. 結論

이상에서 傷寒論의 各 處方과 針灸治療原則을 考察해 보면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傷寒病症을 治療함에 있어 針治療穴은 五輸穴, 腹募穴, 背俞穴, 原, 絡穴 및 郄穴등이 많이 使用되었다
2. 六經證을 治療할 때 太陽中風, 傷寒證은 共히 祛風解表시 督脈(大椎) 膀胱經(大杼, 風門, 京骨) 陽維脈(風池穴은 足少陽經과 陽維脈의 會)을 利用해 去風邪했고 여기에 中風은 陽明經(曲池)의 穴로 調和營衛를 했으며 傷寒症은 鬱肺된 表部를 發汗할 때 肺經(列缺)의 穴과 膀胱經의 穴(肺俞)을 多用했다
3. 六經府證에서 蓄水症은 膀胱의 氣化作用을 돕기 위해서 利小便을 擔當하는 膀胱經이 主가 되므로 膀胱俞를 使用하고 三

焦經의 氣化를 調節하기 위하여 中渚穴을 取하고 健脾滲濕하기 위해 脾經의 三陰交 陰陵泉穴을 使用하였다.

4. 蓄血證은 膀胱府에 血熱相搏것이므로 足三陰經, 衝任脈을 使用했는데 足三陰經, 衝任脈의 會인 關元穴과 足少陰經, 衝任脈의 會인 四滿穴, 膀胱經의 募穴인 中極穴을 利用해 活血散瘀하였고 合谷, 後谿穴로 清熱下降하였다.
5. 結胸證은 巨闕 中脘 關元等 任脈의 穴로 上下之結을 治하는 同時에 清胃, 清熱하였으며 大結胸은 復溜, 支溝穴로 通調水道하였고 小結胸은 部位가 心下에 局限되므로 心包經의 募穴인 膻中과 內關으로 心胸部의 熱邪를 除去하는데 使用하였다. 結胸證에 柔痙症狀이 있는 경우는 足太陽 足少陽 陽維脈의 會인 日月穴을 使用하였고 寒實結胸은 膻中穴에 灸를 하고 內關穴과 胸中에 이르는 冲脈과 通한 公孫穴로 攻寒逐水 하였다.
6. 心下痞證은 心下部에서 氣의 流通이 不利한 것이므로 巨闕 內關穴을 주로 使用하여 痞症을 治療했고 半夏, 生薑, 甘草瀉心湯證은 脾胃虛가 나타나므로 脾胃經(脾俞 足三里)과 任脈(中脘)穴로 補胃氣했으며 熱證이 나타난 경우는 心經의 井穴인 少衝과 尺澤을 出血시켜 清熱하였다. 表陽虛證의 경우는 關元穴과 氣海穴에 灸를 하여 振扶陽氣 했고 肝氣上逆한 경우는 太衝穴을 瀉하여 疏肝하였다.
7. 少陰之本인 腎陽이 虛해져 寒水證이 發生한 경우는 關元和 氣海穴에는 灸를 하여 振扶元陽하였고 여기에 足三里穴과 膀胱經의 募穴인 中極으로 補益中陽하고 水邪를 利小便으로 除去하였다.
8. 水氣凌心으로 心氣不寧한 경우는 心經의 原穴인 神門과 腎經의 原穴인 太谿穴을

刺針하여 心腎交通을 이루어 心氣를 和平하게 하고 脾俞穴과 陰陵泉으로 健脾시키는 同時에 脾胃虛 하면 肝氣乘之할 수 있으므로 太衝으로 肝氣의 橫犯을 瀉하였다

V. 參考文獻

1. 高峰：鍼灸心傳，中國，中央廣播電視大學出版社，1993.
2. 單玉堂：傷寒論鍼灸配穴選注，中國，中醫書局，1992.
3. 蔡仁植 孟華燮：國譯醫方集解，韓國，대성문화사，1989.
4. 張仲景：仲景全書，韓國，대성문화사，1989.
5. 文瀆典外 2인：東醫病理學，韓國，고문사，1990.
6. 蔡仁植：傷寒論譯註，韓國，고문사，1991.
7. 蔡仁植：國譯編註醫學入門 卷三，韓國，남산당，1988.
8. 李正來：東醫要諦眞詮 卷二，韓國，광림공사학술도서，1992.
9. 朴憲在：傷寒論概論，韓國，약업신문，1991.
10. 南京中醫學院傷寒教研組：傷寒論譯釋，中國，상해과학기술출판사，1980.
11. 金完熙，崔達永：臟腑辨證論治，韓國，성보사，1990.
12. 全國韓醫科大學 鍼灸.經穴學教室：經穴學，韓國，집문당，1991.
13. 郭子光，馮顯遜：傷寒論湯證新編，中國，상해과학기술출판사，1983.
14. 李培生：傷寒論講義，中國，호남과학기술출판사，1986.
15. 黃賢九：鍼灸處方大辭典，韓國，한성사，1981.
16. 朴炅：國譯 瀕湖脈學 四言學要 奇經八脈攷 附脈結攷證，韓國，대성문화사，1992.
17. 洪元植：中國醫學史，韓國，동양의학연구원，1984.
18. 劉渡舟：傷寒論辭典，中國，해방군출판사，1988.
19. 楊繼洲：鍼灸大成，韓國，대성문화사，1990.
20. 安榮基：經穴學叢書，韓國，성보사，1986.
21. 陸壽康外 2인：鍼刺手法一百種，韓國，의성당，1988.
22. 王筠默，王恒芬：神農本草經校證，韓國，의성당，1988.
23. 具本泓外 4인：東醫心系內科學，韓國，서원당，1993.
24. 尹用甲：東醫方劑와 處方解說，韓國，의성당，1988.
25. 陳大舜：中醫各家學說，中國，호남과학기술출판사，1985.
26. 任應秋：中醫各家學說，中國，상해과학기술출판사，1993.
27. 伸昂庭：本草崇原集說，中國，南京中醫學院，1986.
28. 李尙仁外 4인：方劑學，韓國，영림사，1990.
29. 崔達永，金俊錡：傷寒論釋講，韓國，대성문화사，1998.
30. 全國韓醫科大學 本草學教室：本草學，韓國，영림사，1991.